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향성 연구 용역

책 임 연 구 원

정 주 영

공 동 연 구 원

김 주 연

보 조 연 구 원

김 현 승

2020. 5.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1
다. 연구 범위	2
라. 연구 방법	2
II.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4
1.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4
가. 시기별 비전	4
나. 주요 공연 프로그램	7
다. 극장 운영 프로그램	31
2.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37
가. 한국영상자료원, KMDB	37
나. 호주, Ausstage	51
다. 노르웨이, The Virtual Ibsen Centre	62
라. ECLAP(EUROPEAN COLLECTED LIBRARY OF ARTISTIC PERFORMANCE)	68
3.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결과	72
III.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73
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목적 및 데이터 수량	73
가. 지향점	73
나. 자료 및 정보 수량	74
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74
라.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80
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로드맵	100
가. 단계별 추진 과제	100
나. 소요 예산 및 기간	104
다. 운영 방안	106
라. 기대효과	106

〈표 차례〉

표 1 페스티벌 장 참여 작품 리스트 및 학술 행사	10
표 2 남산희곡페스티벌 프로그램	15
표 3 서치라이트 작품 리스트	17
표 4 남산예술센터 학술 프로그램	26
표 5 남산 아고라	28
표 6 남산희곡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29
표 7 상주극작가 작품	32
표 8 상임드라마터그 제작 참여 목록	33
표 9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낭독 공연된 ‘초고를 부탁해’ 작품 목록	34
표 10 서치라이트에서 낭독 공연된 ‘초고를 부탁해’ 작품 목록	34
표 11 남산예술센터 발간 희곡집 목록	35
표 12 어바웃 스테이지 시행 일시	36
표 13 KMDB 서비스 페이지 요소	50
표 14 Ausstage, Events	52
표 15 Ausstage, Contributors	53
표 16 Ausstage, Venues	53
표 17 Ausstage, Organisations	54
표 18 Ausstage, Works	54
표 19 Ausstage, Reources	55
표 20	56
표 21 남산예술센터 공연 자료 및 정보 현황	74
표 2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클래스	75
표 23 공연 모델	77
표 24 기록물 모델	78
표 25 사건 모델	79
표 26	100
표 27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필요 인력	103
표 28	104
표 29	105
표 30	106

〈그림 차례〉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1	37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2	38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3	39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4	40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5	40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6	41
영상자료원 KMDB 영화인정보-1	41
영상자료원 KMDB 영화인정보-2	42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1	43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2	43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3	44
영상자료원 KMDB 검색-1	44
영상자료원 KMDB 검색-2	45
영상자료원 KMDB 검색-3	45
영상자료원 KMDB 검색-4	46
영상자료원 KMDB 검색-5	47
영상자료원 KMDB 검색-6	48
영상자료원 KMDB 검색-7	48
영상자료원 KMDB 검색-8	49
영상자료원 KMDB 검색-9	49
영상자료원 KMDB 검색-10	50
Ausstage 메인화면	51
Ausstage, Network-1	57
Ausstage, Network-2	57
Ausstage, Network-3	57
Ausstage, Network-4	58
Ausstage, Network-5	58
Ausstage, Network-6	58
Ausstage, Network-7	59
Ausstage, Network-8	59
Ausstage, Network-9	59
Ausstage, Network-HAMLET	60
Ausstage, Network-Victor Arnold-1	60
Ausstage, Network-Victor Arnold-2	61
The Virtual Ibsen Centre - Main	62
The Virtual Ibsen Centre - Text Archive	63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1	63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2	64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3	64
The Virtual Ibsen Centre - Henrik Ibsen's Writings	65
The Virtual Ibsen Centre - IbsenStage	65
The Virtual Ibsen Centre - 인형의 집 세계 투어	66
The Virtual Ibsen Centre - Hedda Gabler	66
The Virtual Ibsen Centre - Multilingual Ibsen	67
ECLAP 메인 화면	68
ECLAP 동영상 오브제	69
ECLAP Location 지도 정보	69
ECLAP Timeline	70
ECLAP Social Graph-1	71
ECLAP Social Graph-2	7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75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개념도	76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공연모델-	76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 모델-	78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사건 모델-	79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 기본정보-	80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참여 인물/단체-	8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공연자료-	8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작품-	83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주제/소재-	83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관련 공연/행사-	84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공간-	84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사건-	84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인물/단체-	85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작품-	86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자료1-	87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자료2-	88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사건-	89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간1-	90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간2-	9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보도/연구-	9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1-	93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2-	94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3-	95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96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역사사건'-	96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역사사건'->'한국전쟁'	97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1-	98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2-	99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3-	99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시맨틱 네트워크 예시	101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2009년 재개관부터 2020년 하반기 폐관을 앞둔 남산예술센터는 기관과 창작자들에게 산재해 있는 공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공에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논의됨
- 2009년 이후 남산예술센터의 공연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이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그 자체로 국내 공연예술계의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 서비스하여 국내 공연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남산예술센터는 1962년 건축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이며, 공연예술 외 타 장르 창작자들과의 협업으로 공연예술과 공연장의 의미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남산예술센터의 예술적 업적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연구 목적

- 200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남산예술센터의 공연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산예술센터의 공연예술사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남산예술센터의 공연과 그 외 활동은 국내 사회·문화·정치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한 유의미한 사회적 산물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 또한, 공연예술 창작 현장과 교육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함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담아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간과 소요 예산, 인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연구 범위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 남산예술센터 2009-2019년까지의 공연 및 활동

☐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 연구

- 국내외 사례 검토

-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호주, Ausstage

-유럽연합, ECLAP

-영국, 내셔널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노르웨이, Ibsen Virtual Center

- 남산예술센터 공연 정보 및 자료 현황

-공연 및 활동 290여편

-인물 7000명

-자료 현황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설계 및 샘플 아카이브

-6개의 데이터 유형과 기록물을 바탕으로 샘플 아카이브 제작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로드맵

-구축 기간, 인원, 예산 제시

-향후 관리 방안 제안

라. 연구 방법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조사

- 2009년 재개관부터 2020년까지의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공연 및 활동을 연구

- 공연예술에 특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조사

□ 데이터 모델 설계 및 샘플 아카이브 구축

-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와 데이터 현황 및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를 바탕으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 가능한 모델 도출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을 대상으로 샘플 아카이브 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 회의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진행에 대한 기술 자문을 진행함
- 남산예술센터 공연 및 활동의 주제별 접근을 위한 키워드 정리 워크숍을 진행
- 데이터 모델에 대한 남산예술센터의 내부 의견 수렴

II.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1.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

가. 시기별 비전

1) 2009~2011

- 극장 정체성 모색 및 신진 연극인 인큐베이팅에 주력
- 재개관 당시 슬로건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
- 극장 정체성 모색 및 신진 연극인 인큐베이팅에 주력
- 재개관 당시 슬로건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Contemporary & New Wave)’

2009년 서울문화재단 산하기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남산예술센터는 재개관의 슬로건으로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를 내세웠다. 재개관 직후부터 약 2~3년간은 남산예술센터가 공공극장으로서 극장의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신진 연극인들의 인큐베이팅에 주력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컨템포러리’, 즉 동시대성은 이 시기와 이후의 남산예술센터 비전과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먼저, 남산예술센터의 동시대성은 이 시기 극장이 주로 동시대 사회이슈를 담은 창작극을 주로 제작, 공연했다는 데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페스티벌 장(場)’ 및 해외연극 교류, 그리고 ‘페스티벌 봄’이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다른 축제들과의 공동주관한 작품을 제외한 시즌 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숙자, 이주노동자, 역사, 자본주의, 차별, 가출 등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다룬 창작극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후 극장 드라마티그 제도의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남산연극포럼’ 및 학술프로그램에서도 ‘동시대성’은 꾸준히 극장의 화두로 다뤄졌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 남산예술센터의 동시대성이란 단순히 당대의 사회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 연극이란 무엇이며, 연극과 시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와 같은 ‘동시대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극장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다음으로 ‘뉴 웨이브’는 기존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연극 형식, 새로운 경향의 연극 언어를 찾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이었는데, 재개관 초기 시즌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페스티벌 장이 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어졌던 페스티벌 장은 일반적인 연극보다는 시각예술, 현대 무용, 영상이나 사운드 작업, 신체극, 전통연희, 미디어 퍼포먼스 등 탈장르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지닌 다원예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참여 예술가들 역시 연극인과 다른 장르 예술가들의 만남 혹은 아예 새로운 영역의 아티스트들의 무대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페스티벌 장은 연극의 형식 및 범위의 경계를 지우고 다각적인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연극계 내부의 관심이 떨어지고 또 다원장르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흐름 속에서 자체 폐지되었다. 이후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다원예술은 거의 다루지 않게 되는데, 2016년 이후 새로운 극장장 체계 하에서 다시 연극과 인접 장르 및 다원예술과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뉴 웨이브’적 요소를 새롭게 시도하게 된다.

2009년 시즌 프로그램의 첫 작품이자 남산예술센터의 개관 기념작이기도 했던 <오늘, 손님오신다>는 컨템포러리와 뉴 웨이브 두 가지 비전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일단 이 작품은 연극을 통해 시대를 이야기하는 데 앞장서 온 작가들인 장성희, 최치언, 고연옥 등 세 명의 작가가 작품을 집필하고, 이를 구태환, 최용훈, 고선웅 세 명의 연출가가 맡아 동시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다채롭게 조명하고자 한 데서 동시대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세 작품을 단순히 에피소드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의 장면을 자르고 나눈 뒤, 다른 작품 사이사이에 끼워 맞추어 하나의 퍼즐처럼 완성했다. 이러한 독특한 형식을 통해 서로 다른 주제를 지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미묘한 충돌과 중첩을 만들어가며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뉴 웨이브적인 글쓰기 양식으로서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

한편 컨템포러리와 뉴 웨이브, 두 개의 비전과 더불어 재개관 초기, 남산예술센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다.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산예술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인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와 ‘신진연출가 기획전’ 그리고 이 시기에 시작된 ‘상주극작가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대학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을 남산에서 다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신진연출가 기획전과 상주극작가 제도는 각각 젊은 연출가, 작가에게 스스로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였다. 이 외에도 시즌 프로그램의 대다수 작품을 젊은 작가, 연출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극장 이상의 무대에서 공연하기 쉽지 않은 젊은 연극인들에게 중극장 공연의 기회를 선사하고자 했다.

2) 2012~2015

-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정체성 확립
- 극작가 발굴, 신작 창작극 발굴에 초점

이 시기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유일의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시즌 레퍼토리와 공동제작 선정에 있어서도 번역극이나 번안극, 이미 발표되어 제작된 바 있는 희곡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초연 창작극만 고집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2인의 극장 드라마터그가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초고를 부탁해’, ‘남산연극포럼’, ‘남산희곡페스티벌’ 등 작품 및 작가 발굴 프로그램과 학술 프로그램이 신설,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극장 드라마터그의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래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 파트에 상술하였다).

이 시기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남산예술센터가 창작극 중심 극장이라는 인식을 확립한 시기이다. 특히 창작 초연만을 고집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창작극을 제작 공연하는 다른 극장인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두산아트센터 등과의 정체성의 차별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4년부터 극장 예산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자체 제작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화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극장의 비전이었던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 중 ‘컨템포러리’라는 동시대 테마는 2012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뉴 웨이브’ 부분은 페스티벌 장을 없애면서 그 성격이 희미해진 바 있는데, 이 분야는 2016년, 새로운 극장장 체제에서 남산예술센터가 창작연극 레퍼토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원예술 및 근접 예술 장르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다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2016~2020

- 연극 외 장르, 다원예술로 영역 확대
- 소설, 미술, 설치미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

2016년부터는 남산예술센터에 오르는 공연들이 국내 창작극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창작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이어가되, 연극과 소설, 연극과 미술, 설치미술과 다큐멘터리 등 다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으며, 연극인 뿐만 아니라 소설가, 미술작가, 큐레이터, 퍼펫 아티스트 등 다양한 장르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과의 협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남산예술센터의 개관 당시 슬로건 중 하나였던 뉴 웨이브의 비전을 다시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르와 형식은 다원화되었지만 컨템포러리적인 특징은 2016년 이후의 작품에서도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 공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희곡 기반 창작 연극과 함께 개념 기반 창작 연극 트랙을 새로 만들어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이미지나 개념, 형식 실험에 초점을 맞춘 작품에도 공연 기회를 연 것이다. 그로 인해 2016년 시즌 프로그램부터는 희곡을 바탕으로 한 창작연극과 함께, 무용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연극, 디바이징 씨어터, 설치미술 퍼포먼스, 장소특정적 공연, 소설을 각색한 연극, 인형극, 토론 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이 시도되었고, 크고 작은 화제를 모았다.

일단 2016년 시즌 프로그램 개막작이었던 박근형 작,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당시 연극계의 검열 문제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 공모에서 검열로 배제되었던 이 작품을 정규 시즌의 개막작으로 올림으로써 공연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여성국극 배우와 아마추어 게이합창단 지보이스(G-Voice)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잣대로 규정지을 수 없는 존재의 목소리를 담아낸 <변칙 판타지>, 전직 대통령 박정희란 인물을 여러 시선으로 조망한 연극 <국부(國父)>,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VR을

쓴 관객이 남산예술센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극적 환상을 체험하는 <천사-유보된 제목>, 2007년 전시 이후 보관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위탁했던 작품들을 10년 만에 모아 등장시킨 <십년만 부탁드립니다>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형식의 공연들로 남산예술센터의 색깔을 더욱 다채롭게 만든 시기이기도 하다.

시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극장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극장 운영 시스템 중 초고를 부탁해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 진행되었다. 극장 드라마터그 시스템 대신 다양한 시선과 시각을 지닌 예술가,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극장의 방향성을 다듬고, 희곡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었던 ‘남산희곡페스티벌’을 다양한 연극적 아이디어의 장인 ‘서치라이트’로 확대 운영했다. 이 외에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이란 공간을 활용하는 ‘남산 아고라’가 새로 신설되었고,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의 무대로 자리잡으면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연극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했다.

나. 주요 공연 프로그램

1) 시즌 프로그램

시즌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주요 공연들로서 남산예술센터의 비전과 색깔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성을 갖춘 창작 연극을 지향하는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을 담고 있기에 창작 초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 신작 초청공연이나 다른 장르와의 협업 공연들도 매해 한, 두 편 정도 시즌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되었다. 해외 초청이나 대관 공연보다는 창작극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남산예술센터의 특성상 시즌 프로그램은 크게 제작 방식에 따라 자체제작 공연과 공동제작 공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관 초반에 진행되었다가 사라진 페스티벌 장 또한 별도의 트랙으로 언급할 수 있다.

(1) 자체제작 공연

자체제작 공연은 공연의 기획부터 작가 및 연출가 섭외, 배우 캐스팅, 공연 제작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남산예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물론 예산 역시 전부 극장 측이 담당한다. 작품의 기획과 방향부터 극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체제작 공연은 이후 진행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극장의 색깔과 방향성이 선명하게 드러난 트랙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만큼 예산의 규모와 진행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트랙이다 보니 모든 시즌 프로그램을 자체제작으로 진행하지는 못했고,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몇몇 작품에 대해서만 자체제작을 진행했다.

주요 자체제작 작품으로는¹⁾ 2009년 재개관 기념작이었던 <오늘, 손님오신다>와 2009년 시즌 프로그램 마지막 작품이었던 <운현궁 오라버니>, 그리고 2010년의 신진연출

가 기획전과 2010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내 심장을 쏘라>, 그리고 공동연작 프로젝트로 공연된 <세자매 산장>, <너의 왼손>, <냄비>를 들 수 있다. 특히 개관작인 2009년 <오늘, 손님오신다>와 2010년 공동연작 프로젝트의 경우, ‘동시대 우리의 삶’이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세 명의 작가/연출가가 맡아 한 편의 이야기로 직조해내거나, 남성 중심으로 흘러온 한국 현대사를 여성 극작가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연작 형식으로 공연을 이어가는 등, 공동제작 방식이나 외부 극단과의 협업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독특한 기획과 제작 방식을 통해 동시대적인 새로운 글쓰기를 지향하는 남산예술센터의 색채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2011년 시즌 프로그램 중에서는 신자본주의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창작극인 <살>과 스타일리시한 검객 괴담을 지향한 <도화만발>을 들 수 있으며, 2012년에는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을 통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상주극작가 김지훈의 <풍찬노숙>과 한국 근현대사를 날카로운 시선과 풍자로 꿰뚫어낸 <전명출 평전>, 그리고 22년 만에 시대를 비추는 <햄릿> 시리즈를 가지고 무대로 돌아온 기국서 연출의 <햄릿6 : 삼양동 국화 옆에서>가 자체제작으로 공연되었다. <풍찬노숙>의 경우 무려 5시간에 다다르는 러닝타임과 무대와 객석을 통째로 바꾸어 사용하는 공연 방식 등으로 인해 자체제작이 아니고서는 제작비와 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3년 시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정영욱 작/김낙형 연출의 <농담>은 남산예술센터가 진행한 마지막 자체제작 시즌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2013년부터 남산예술센터는 자체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 모든 시즌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농담>의 경우 그 전 해인 2012년 상주극작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던 관계로 이 작품까지만 자체제작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세 작가의 공동집필 공연, 한 주제의 연작 공연, 상주극작가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낭독-실제 공연 등 파격적인 기획 및 극장 운영프로그램(상주극작가)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제작 시스템, 공개 오디션을 통한 배우 캐스팅과 극장 드라마터그의 작품 참여 등 극장 자체의 기획력과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작 방식이었으나, 필요 예산과 인력의 규모가 공동제작/공동주관 트랙에 비해 훨씬 많이 들고, 또 다소 파격적인 기획과 시도로 인해 의의는 좋지만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개관 초기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남산예술센터의 색깔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기에, 이후 공동제작 공모에도 어느 정도 극장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들과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는 남산희곡페스티벌과 서치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극장의 자체제작이 지향하는 지점을 이어가고 있다.

1) 남산희곡페스티벌이나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서치라이트와 같은 신작 발굴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극장 자체제작 트랙이라 할 수 있지만, 시즌 프로그램에 속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시즌 프로그램 중 자체제작 공연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2) 공동제작 공연

공동제작 공연은 극장과 극단 등 외부 단체가 공동으로 작품의 제작을 기획, 제작하고 공연 진행과 성과를 공유하는 제작 형태이다. 초반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나 2013년 이후로는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전부가 외부 극단과의 공동제작 형식으로 제작, 진행되었다.

공동제작 공연은 중극장 및 공공극장의 설립 및 운영 이후 상대적으로 활기를 잃은 극단 제작 공연에 힘을 실어주고, 극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극인들에게 작업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공공극장과 극단의 협업 및 공생을 위한 제작 방식으로 의미가 크다. 자체제작 공연에 비해 작품에 대해 극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는 점에서, 극장의 색깔과 비전을 드러내기에는 아쉬울 수 있는 방식이나, 한편으로는 극단과 참여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는 제작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09년 재개관부터 2012년까지는 자체제작 공연들과 함께 공동제작 공연들이 시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시기 특이한 공동제작 작품으로는 불가불가 레코드와 공동으로 제작했던 ‘장기하와 얼굴들’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일 없었는지>와 2011년 초연 이후 5년간 재공연을 이어가며 극장의 대표적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신시컴퍼니와의 공동제작 공연 <푸르른 날에>를 들 수 있다. 다원예술 축제였던 페스티벌 장 역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 운영되었다.

2013년부터는 공동제작만으로 시즌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게 되었는데, 2013년은 공동제작만으로 전체 시즌을 진행하는 첫해다 보니 극장과 극단이 서로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극단 주도의 기획에 극장이 제작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전까지의 극장 시즌 프로그램과는 다소 색깔이 다른 작품들이 공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시즌 프로그램 개막 전에 공동제작 극단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극장과 극단이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미리 갖기도 했다. 이는 공동제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으나, 예산 확보 및 일정 조정상의 문제들로 인해 2014년 한 해만 진행하고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남산예술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극단들의 인식 및 이해도가 전보다 커져서 사전 워크숍 없이도 극장과 극단이 비전을 공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페스티벌 장(場)

2009년 재개관 당시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이었던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 중 ‘뉴 웨이브’는 기존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연극 형식, 새로운 경향의 연극 언어를 찾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이었는데, 재개관 초기 시즌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페스티벌 장이 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페스티벌 장은 남산예술센터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1997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한국 공연예술계가 주목하는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던 페스티벌 장 프로그램을 1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어졌던 페스티벌 장 프로그램 중 2009년 첫해는 남산예술센터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의 공동제작으로,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두 해는 남산예술센터와 원더스페이스의 공동제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제작인 만큼 남산예술센터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원더스페이스나 문래예술공장같은 공간에서도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페스티벌 장은 ‘한국공연예술의 실험무대와 장르융합’을 모토로 연극, 무용, 음악, 영상, 마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융합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새로운 대안의 공연예술을 생산하고, 신진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지향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했다. 실제로 페스티벌 장에는 기존의 텍스트, 서사 중심으로 작업하는 연극 작품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영상이나 미디어를 사용한 연극작품이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극, 그 외에 극단 몸풀이나 김윤진 댄스컴퍼니, 무브먼트 당당, 달파란과 권병준 등 음악, 무용, 마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원장르적인 공연을 기획, 소개했다.

2010년 페스티벌 장에서는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예술, 미디어를 만나다’란 주제의 학술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남산예술센터와 공동으로 페스티벌 장을 주관한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에서 진행된 이 학술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큐레이터 및 작곡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매체의 확장, 관객의 소통방식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1년까지 진행된 페스티벌 장은 연극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모았으나 다원장르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2012년부터 남산예술센터가 창작극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흐름 속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되었다. 한동안 남산예술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페스티벌 장의 다원, 융합적 공연들은 2016년 이후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트랙이 이원화되고, 서치라이트라는 다원/개념 중심형 신작 발굴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다시 맥을 이어가게 된다.

표 1 페스티벌 장 참여 작품 리스트 및 학술 행사

연도	작품명	장르	참여단체
2009	The Blue	연극	4관객 프로덕션
2009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II	무용	김윤진 댄스컴퍼니
2009	허기진 휴식	신체극	극단 몸풀
2009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도쿄데스락
2010	원 <(-), One>	다원	블루 엘리펀트/동해안 별신굿

2010	죽음에 이르는 병	다원	사무소
2010	Private Collection	다원	극단 몸꼴
2010	The Wall	다원	Nebular Factory
2010	LOVE ver. 2010	다원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도쿄데스락
2010	찰나가 부르는 시간	다원	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
2011.9.9	페스티벌 장 학술행사 <공연예술, 미디어를 만나다>	학술	<p>장소 :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 주제 : 공연예술, 미디어를 만나다 발제자 : 스미모토 후미히코(Tokyo Initiative 큐레이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예술작품과 관객의 소통 방식” 서현석(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실재, 혹은 매체의 확장 장재호(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러지와 교수) 새로운 미디어, 예술의 경계를 다시 세우다</p> <p>토론 정영두(두댄스씨어터 대표, 안무가) 이경성(크리에이티브 VaQi 대표, 연출가)</p> <p>사회 이진아(연극평론가)</p>
2011	<기억의 몽타주> 오래된 이별	다원	무브먼트 당당
2011	방문기 X	다원	X
2011	펜테질레아	다원	팻저-프로젝트
2011	여섯 개의 이야기	다원	달파란과 권병준
2011	아이에게 말하세요:가자지구를 위한 연극	다원	상상만발극장
2011	겨울	다원	극단 거미

(4) 남산예술센터 온라인 스트리밍 <NFLIX>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상반기 남산예술센터 공연 대부분이 취소, 연기되고, 남산예술센터 역시 다른 극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공연 영상을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에서 따와 <NFLIX>라 이름 붙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남산예술센터는 4월 한 달간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그녀를 말해요>, <7번국도>, <처의 감각>, <파란나라> 등 비교적 최신작 6편을 서울문화재단 유튜브와 서울문화재단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인형극인 <손 없는 색시>를 추가 편성했다. 상영시간은 해당 상영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상영 종료일 오후 10시까지 언제든지 접속과 시청이 가능하게 했다.

2) 신작 발굴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의 신작/신진예술가 발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진예술가들의 작품으로만 기획, 구성해 자체제작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는 공연 프로그램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초고 상태의 원고, 초기 아이디어, 개념 등을 먼저 받아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서서히 발전시켜 정규 프로그램으로 흡수시키는 인큐베이팅 트랙이다.

재개관 초기에는 신진연출가 기획전,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및 정규공연 등 공연 프로그램 트랙을 통한 신작/신진예술가 발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신진이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중극장 규모의 무대와 객석 조건, 공연의 완성도를 예상하기 힘든 신작 공연의 특성, 그리고 극장 운영예산의 삭감 등의 문제로 인해 2012년 이후부터는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작을 발굴, 발전시켜가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초고를 부탁해, 남산희곡페스티벌, 서치라이트 등 신작 발굴/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놓은바, 여기에서는 신진예술가의 작품으로만 기획, 운영했던 공연 프로그램 트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신진연출가 기획전

신진연출가 기획전은 남산예술센터가 2010년 단 한 해 자체제작 형식으로 기획, 제작한 신진예술가 발굴/지원 프로그램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작가보다는 ‘연출가’에 방점을 찍은 이 기획전은 당시만 해도 공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젊은 여성 연출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연출가의 시선과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들이 선보이는 실험적 무대언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신진연출가 기획전은 2010년 5월, 작가와 연출을 겸하는 동이향의 신작 <당신의 잠>과 작가 한현주/연출 김한내의 <우릴 봤을까?> 두 작품을 연달아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여성 연극인들의 창작극인 동시에 ‘파멸’과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당신의 잠>은 파산에 파산을 거듭하는 현대의 운명적 파국을 무언가를 시도할수록 창피해지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며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주세희’라는 한 개인에게 투영시켜 소영웅 서사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한편 <우릴 봤을까?>는 2009 CJ영페스티벌 연극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한 여성이 15년의 시간차를 두고 겪은 두 개의 죽음,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죄책감’, ‘기억의 왜곡’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작품이었다.

두 작품은 모두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시선으로 인간과 삶, 그리고 죽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젊은 여성 연출가들에게 중극장 무대의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었지만, 아무래도 480석 규모의 중극장 무대를 소규모 창작연극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다 보니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또 2012년 이후 남산예술센터가 젊은 연출가보다는 젊은 작가의 창작극 발굴과 디벨로핑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 속에서 신진연출가 기획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2)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상주극작가는 남산예술센터가 2011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운영한 극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장편 희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김지훈, 동이향, 2012년 정영욱, 오세혁, 2013년 백하룡, 안재승 작가가 선정되어 상주극작가로 지원을 받았다. 상주극작가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극장 운영 시스템 섹션에 상세하게 기술했으므로 그 부분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신작 발굴 프로그램의 일환인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은 1차적으로 상주극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초고를 받아 먼저 낭독공연을 통해 정식 공연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객의 피드백을 받아 작가들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무대이다. 상주극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모든 작품이 정규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지는 못했지만,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은 모든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2011년 첫 번째 상주극작가였던 김지훈의 <풍찬노숙>, 동이향의 <잊혀진 부대>가 그 해 여름 낭독공연의 형태로 3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중 김지훈의 <풍찬노숙>은 다음 해인 2012년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2012년 상주극작가인 정영욱의 <농담>과 오세혁의 <김사장의 전투>는 2012년 각 1회씩 낭독공연의 형태로 소개되었고 이 중 정영욱의 <농담>이 다음 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2013년 상주극작가인 백하룡과 안재승 작가의 경우, 2013년 남산예술센터의 자체제작이 중단되고 공연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낭독공연까지만 진행되고, 시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백하룡의 <고제>와 안재승의 <위대한 유산> 낭독공연은 남산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소개되었고, 비록 남산예술센터의 자체제작 공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고제>의 경우 2015년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에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정식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3)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예술센터는 2009년 재개관 이후 ‘창작 초연 제작형 공공극장’을 표방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6년까지 남산예술센터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창작 희곡 초연 극장’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재개관 이후 전체 라인업에서 번역극이나 이미 발표된 희곡을 배제하고 창작극을 최우선시하면서 창작극 초연 제작극장으로서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단순히 창작극을 제작, 초연하는 극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넘어서, 남산예술센터라는 극장 자체가 창작 희곡 글쓰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대표 작가들의 신작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장’이 되고자 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번에 걸쳐 개최된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는 남산의 새로운 희곡 및 작가 발굴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에서 심사를 거친 낭독공연, 기성 극작가들의 미발표 신작희곡 낭독공연, 그리고 원로 및 중견 극작가들의 마스터클래스가 주요 프로그램을 이루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상주극작가 작품 낭독공연이나 남산연극포럼, 남산 아고라와 같은 다른 트랙의 극장 프로그램을 함께 묶어 페스티벌 안에서 소화하기도 했다.

제1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2013년 개막 시즌에 앞서 진행되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남산의 새로운 희곡 및 작가 발굴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에서 두 단계의 피드백 및 수정 과정을 거친 두 작품의 낭독공연과 남산예술센터가 주목하는 젊은 작가의 미발표 신작 두 편의 낭독공연, 그리고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팟캐스트 ‘희곡을 들려줘’ 공개방송과 원로 극작가 오태석의 극작술에 대한 마스터클래스가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제1회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었던 두 작품 <지금도 가슴 설렌다>와 <나와 할아버지>가 이후 정식 공연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신작 희곡을 발굴하고 소개하고자 했던 페스티벌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희곡페스티벌 기간 중 극작 강의와 낭독공연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매일 배삼식, 김명화, 선옥현, 박상현 등 동시대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들이 하루씩 맡아 플롯과 대사, 인물과 구조 등 극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선사하고, 이후 낭독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낭독공연은 두 편의 초고를 부탁해 선정작과 두 편의 상주극작가 작품 낭독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제3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세 편의 낭독공연과 남산연극포럼으로 이루어졌다. 세 편의 낭독공연 중 두 편은 젊은 극작가들의 새롭고 실험적인 글쓰기를 낭독이란 형태의 공연으로 무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한 편은 남산예술센터의 상시투고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처음 선보이는 무대였다. 이 중 김은성 작가의 <뽕뽕뽕> 역시 낭독공연을 통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이후 대학로에서 정식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산연극포럼은 동시대 희곡 창작의 중심지인 동시에 희곡 ‘담론’

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남산연극센터의 또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소설가 천정완, 소설가 정영문, 시인 겸 극작가 최치언이 발제자로 참여해 ‘무대언어가 가진 문학적성’, ‘희곡과 문학 장르 간 소통의 부재와 가능성’, ‘문자언어와 무대언어 사이’를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했다.

제4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신인 작가 발굴 프로그램 초고를 부탁해 우수작 낭독공연과 중견 작가 장우재의 신작 발표, 그리고 극작가 이강백의 마스터클래스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페스티벌에서 낭독공연의 형식으로 처음 소개된 <햇빛샤워>는 삶에 찌든 백화점 매장 직원 광자와 그녀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밝고 맑은 10대 소년 동교를 통해 비틀린 삶의 양상과 부조리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장우재 특유의 반어적이고 유머러스한 어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공연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음 해인 2015년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2016년 재공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5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초고를 부탁해와 ‘대산대학희곡상 수상작’ 낭독공연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중견 극작가 김명화와 최용훈 연출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신작 <봄>의 최초 공개, 여기에 원로 극작가 이강백의 마스터클래스 및 한국연극평론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산연극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구성이 돋보이는 페스티벌이었다.

제6회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초고를 부탁해 선정작과 기성 작가의 신작 낭독, 그리고 남산연극포럼과 남산 아고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산희곡페스티벌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2016년 이후 공연 공모 트랙이 이원화되고 다원 장르의 공연들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르는 등 2016년 이후의 남산예술센터의 새로운 경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로, 이후 희곡 기반의 남산희곡페스티벌이 사라지고 확대된 형태의 서치라이트가 다음 해부터 시작되게 된다.

표 2 남산희곡페스티벌 프로그램

회차	날짜	작품 및 활동명
1	2013.2.	이혜빈 작/손기호 연출 <지금도 가슴 설렌다> : 초고를 부탁해 성기영 작/변정주 연출 <바둑이와 워리> : 초고를 부탁해 민준호 작·연출 <나와 할아버지> 낭독공연 권영준 작/백석현 연출 <립썹명鳴!> 낭독공연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희곡을 들려줘-달의 뒤쪽> 오태석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2	2013.8.	손희영 작/윤정환 연출 <희망고시원 방화사건> : 초고를 부탁해 전성현 작/박상현 연출 <철수연대기> : 초고를 부탁해 백하룡 작/김한내 연출 <고제> :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안재승 작/김승철 연출 <위대한 유산> :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배삼식, 김명화, 선옥현, 박상현 <극작강의>
3	2014.2.	원소영 작/최진아 연출 <장롱 속엔 괴물이 산다> : 초고를 부탁해 김은성 작/부새롬 연출 <뽕뽕뽕> : 낭독공연 창작집단 ‘독’ 공동창작, 민복기 연출 <싸이렌> : 낭독공연 남산연극포럼 <희곡이라는 ‘문학’>
4	2014.8.	류동민 작/전인철 연출 <꼬드득> : 초고를 부탁해

		박신수진 작/박해성 연출 <마트로시카-인형 안의 인형> : 초고를 부탁해 장우재 작·연출 신작 <햇빛샤워> : 낭독공연 이강백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5	2015.8.	구혜미 작/적극 연출 <게으름뱅이의 천국> : 초고를 부탁해 고정민 작/부새롬 연출 <초상, 화(畵)> : 대산대학문학상 희곡수상작 낭독공연 김명화 작/최용훈 연출 <봄> : 중견극작가 낭독공연 이강백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6	2016.12	김경주 작/김민정 연출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곁엔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 윤미희 작/전윤환 연출 <투명한 집> : 초고를 부탁해 이오진 작/전인철 연출 <누구의 꽃밭> : 초고를 부탁해 남산포럼 '드라마터그 토크' 남산 아고라 <페미그라운드 - 여기도 저기도 히익 거기도?>

(4) 서치라이트

2017년부터 시작된 서치라이트는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남산희곡페스티벌을 변형, 확장시킨 신작 인큐베이팅 및 낭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극장의 공연 트랙 자체가 희곡 기반 창작극 및 개념 기반 퍼포먼스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희곡텍스트 중심의 신작 낭독공연 및 희곡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이었던 남산희곡페스티벌로는 다원화된 공연 아이디어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관계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서치라이트는 크게 리서치, 리딩, 무대화의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곡 개발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작품 콘셉트 프레젠테이션/피칭, 주제 개발을 위한 컨퍼런스, 주제 확장을 위한 공개토론(이상 리서치 트랙), 최종 탈고를 위한 작품 낭독공연, 공연을 준비 중인 작품의 낭독공연(이상 리딩 트랙), 워크숍 시연, 30분 이내의 쇼케이스와 대담, 공연을 앞둔 작품의 낭독공연(이상 무대화 트랙) 등 다양한 발표형식을 지원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에는 연습실 이용 및 공연 제작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초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서치라이트 기간 동안 낭독공연, 워크숍, 공개토론,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피칭 등 각각의 아이디어에 적합한 무대로 구성된 프로젝트 발표를 공개한다. 또한 초고를 부탁해에서 1차 합격한 작가들의 초고 중 공연 가능성이 있는 작품 역시 서치라이트 낭독공연을 통해 소개된다.

남산희곡페스티벌 때와 마찬가지로, 서치라이트 역시 남산예술센터 극장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극계 전체에서 공연 창작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나누고 공유하는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우선시한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서로 관심 있는 예술가들을 네트워킹하고, 창작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게 하며, 또 기획자들에게 새로운 공연 프로젝트의 견본시으로써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서치라이트를 통해 남산예술센터의 새 시즌 프로그램이 여러 개 발굴,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극장 레퍼토리 구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서치라이트에서 <두 번째 시간>, <처의 감각>, <7번

국도>, <왕서개 이야기> 등 총 4개 작품이 다음 해 시즌 프로그램으로 정식 제작, 공연된 바 있다.

표 3 서치라이트 작품 리스트

연도	제목	작품 형식	비고
2017	환상속의 그대	낭독	
	Big Democracy Project	기획/공개토론	
	마지막 황군	공개토론	
	두 번째 시간	낭독	2018 시즌 프로그램
	처의 감각	낭독	2018 시즌 프로그램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인 남산	쇼케이스	
	Turn Leap: 극장을 측정하는 작가들	리서치	
	25시-극장전	토크쇼	
2018	소에츠-한반도의 하얀 태양-	낭독	
	7번국도	낭독	2019 시즌 프로그램
	이러지도저러지도어데로	쇼케이스	
	본 공연은 자막이 제공됩니다.	리서치	
	인간설명서	낭독	
	밤이 되었습니다	쇼케이스	
	하얗게 질리기 전에	쇼케이스	
	강철로 된 무지개	기획/낭독	제7회 벽산희곡상 수상작
2019	너의 후일은	기획/낭독	
	왕서개 이야기	낭독	2020 시즌 프로그램
	구구구절절절하다	리서치	
	우리, 가난한 사람들	쇼케이스	
	영자씨의 시발택시	낭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Do not think of an elephant)	리서치	
	아무튼 살아남기 : 여개가 맞이하는 엔딩에 대하여	쇼케이스	
	생존 3부작	낭독	
2020	삼고무(三鼓舞)	쇼케이스	
	기계장치의 신	낭독	
	@GODBLOG	쇼케이스	
	무릎을 꿇었는데겨드랑이가따끔하여	쇼케이스	
	미래 기념비 탐사대	리서치	
	귀쫂긋 소셜클럽	쇼케이스	
	백 년 만의 초대: <의붓자식>, <두 애인>	리서치	
	재주는 꿈이 부리고 - 파업 -	리서치	
	망할 극장	쇼케이스	

3) 외부 공동 기획 공연

남산예술센터의 자체제작 공연/프로그램과 극단과의 공동제작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연들은 대부분 외부 공연예술축제와의 공동 기획이나 서울문화재단 연관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연극교류협의회와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 이 트랙에 해당하는 공연들의 경우, 극장의 시즌 프로그램이나 신작 발굴 프로그램처럼 매년 꾸준히 진행되기보다는 단발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다만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면서 남산예술센터의 또 다른 기획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 공동 기획 공연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남산예술센터의 방향성이나 비전만을 고집하기 어려워 극장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트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외부 기관/축제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자체 기획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무대에 선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산예술센터가 다루는 공연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진행된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기존에 대학로 소극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창작극 중 중극장 공연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해 남산예술센터에서 확장된 형태로 선보이게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창작극 신작 초연만으로 한 해 시즌 레퍼토리를 다 채울 수 없는 극장 측의 상황과, 극단 중심의 대학로 연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공공극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완성된 형태의 공연을 다시 무대에 올리면서도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소극장 무대에 올려진 작품을 중극장 규모와 형태로 새롭게 발전시켜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통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작품은 총 7 작품으로, 2010년에는 극단 신기루만화경과 함께한 <설공찬전>, 극단 죽도록달린다와 함께한 <호야:好夜>, 극단 죽죽(竹竹)과 함께한 <맥베드>, 극단 서울공장과 함께한 <도시녀의 칠거지악> 총 4 작품이 소개되었다. 16세기 한글소설을 원작으로, 저승에서 돌아온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사촌동생의 몸을 빌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다룬 <설공찬전>은 작, 연출을 맡은 이해제의 언어유희와 풍자적 대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었고, 한아름 작/서재형 연출의 <호야:好夜>는 배우가 지문과 대사를 함께 읽는다는 독특한 형식미가 흥미로운 궁중 이야기였다. 김낙형이 각색/연출을 맡은 극단 죽죽의 <맥베드>는 배우들의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과 의자와 책상들로 대변되는 오브제의 활용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한 편의 제의적 연극이었으며, <도시녀의 칠거지악>은 브레히트의 짧은 발레극 <소시민의 칠거지악>을 오늘, 서울의 이야기로

공동 재창작하여 선보인 음악극 형태의 연극이었다. 네 작품 모두 주제나 소재면 보다는 형식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파격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특히 소극장 무대가 아닌 중극장 무대에서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들이었다.

2011년에는 극단 드림플레이와 함께한 <장석조네 사람들>, 극단 초인과 함께한 <특급호텔>, 극단 여행자와 함께한 <상사몽> 3편이 이 트랙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랐다. <장석조네 사람들>은 김소진의 원작 소설을 10개의 압축된 에피소드로 극화시킨 작품이었고, <특급호텔>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사건을 미국인 극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연극이며 <상사몽>은 고전소설인 <운명전>을 양정웅 연출 특유의 무대미학으로 그려낸 공연이었다.

기 공연된 완성작들이다 보니 작품의 방향이나 색깔 자체는 남산예술센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독특한 형식의 무대언어를 사용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는 남산예술센터의 '컨템포러리 & 뉴 웨이브'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는 공연들이라 볼 수 있다. 이 트랙의 작품들은 원래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린 각 극단들과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제작, 공연되었으며 2012년 이후 극장의 초점이 기 완성작보다는 미발굴 신작과 창작극 지원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2)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 NArt 작품제작사전단계 선정작 낭독공연

2012년 단 한 번 진행된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 NArt 작품제작사전단계 선정작 낭독공연은 남산예술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공연 트랙이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유망예술육성지원 사업인 NArt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후의 공연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낭독공연이었다.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제작 사전단계의 작품들인 만큼 완성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이후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완성작이 아니라 길이가 짧다 보니(작품 당 한 시간 내외) 하루에 세 작품씩 이틀에 걸쳐 무료 낭독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오태석의 <자전거>를 원작으로 김현탁이 새롭게 재구성·연출한 극단 성북동 비둘기의 <자전거>, 극단 차이무의 민복기가 쓰고 연출한 신작 <조편인>, 그리고 무브먼트 당당의 김민정이 구성·연출한 신작 <빛나게 하라>가 차례로 낭독공연되었다. 둘째 날에는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작품을 임수현이 각색·연출한 극단 산울림의 <숲에 이르기 직전의 밤>, 셰익스피어 <오셀로>의 주변인물이었던 사이프러스 총독 몬타노를 중심으로 새롭게 상상해낸 창작프로젝트 페리악토이의 <몬타노, Governing the Music>, 제주 4.3항쟁을 소재로 한 창작그룹 오기(Orgy)의 공동창작극 <파도소리> 세 편이 역시 연속으로 낭독공연되었다.

(3) 베세토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는 한국·중국·일본의 연극인들이 동양연극의 정체성 발견과 미학적 가능성의 모색을 목표로 시작한 자발적 민간 연극축제이다. 1994년 처음 개최한 이래 해마다 3개국이 돌아가면서 열고 있는 장수 연극 축제이기도 하다. 축제명인 베세토(Be Se To)는 각각 중국, 한국, 일본의 수도인 베이징(Be), 서울(Se), 도쿄(To)를 의미하지만 꼭 수도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남산예술센터는 재개관을 한 2009년부터 한동안 베세토 연극제의 한국 공연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공연하게 되는 베세토 연극제의 특성상 매년 시즌 프로그램처럼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2009년 재개관 이후 세 번에 걸쳐 베세토 연극제 한국 공연의 주 무대가 되어 왔다. 먼저 2009년 제16회 베세토 연극제 상연작 중 상해화극예술센터의 <선비와 망나니>를 공동주관 형식으로 처음 선보이면서 베세토 연극제와 남산예술센터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3년 뒤인 2012년에는 제19회 베세토 연극제의 일본 작품인 <갈매기>를 역시 공동주관 형식으로 공연했다.

3년 뒤인 2015년에는 기존 명칭을 확장한 베세토 페스티벌과 공동기획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총 5개 작품을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림으로써 베세토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 해에 한국 작품으로는 무브먼트 당당의 <불행>과 양손 프로젝트의 <한중일 단편선-한 개의 사람>을 선보였는데, 이 중 <불행>은 2016년 시즌 프로그램 주제기획전인 ‘귀.국.전(歸國展)’에서 다시 한번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 외에 극단 노이즈의 <상자 속의 여인>과 홍콩화극단의 <ALONE>, 그리고 황잉스튜디오의 <황량일몽>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동시대 일본과 중국 연극의 현재를 선보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대중문화 양상과 연극’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함께 진행되어 한중일 연극과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베세토 아시아 네트워크 : 한중일 연출가 워크숍’ 또한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려 이경성, 자오추안, 기구치 노리유키 등 한중일의 젊은 연출가들과 함께하는 배우들의 워크숍이 진행된 바 있다.

다시 3년 뒤인 2018년 한국 주관의 베세토 페스티벌은 서울이 아니라 광주로 무대를 옮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총장로 일대에서 펼쳐짐으로써 남산예술센터가 더 이상 플랫폼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일본, 중국 연극인들과의 네트워크와 베세토 연극제 플랫폼으로서 극장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이후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의 무대로 활용되면서 남산예술센터는 계속하여 한중일 연극 교류의 플랫폼이자 동아시아 연극의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4)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 중국희곡 낭독공연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부터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을, 그리고 2019년부터 중국희곡 낭독공연을 각각 한일연극교류협의회 및 한중연극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주관, 진행하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참여 작가/단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낭독공연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베

세토 연극제 공연에 이어 한중일 연극 교류의 플랫폼이자 동아시아 연극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남산예술센터의 기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6년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후지타 다카히로 작, 고주영 번역, 윤한솔 연출의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와 이와사키 마사히로 작, 이성곤 번역, 문삼화 연출의 <오사카 맥베스>, 그리고 구와바라 유코 작, 이해정 번역, 전인철 연출의 <슬립(SLIP)>이 공연되었다. 매 낭독공연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통역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부대 학술행사로 ‘세기 전환 후 한일 연극 - 공동체의 삶과 연극의 대응’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한국과 일본의 연극평론가 및 작가, 연출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동시대 한국과 일본의 연극상황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8년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시모리 로바 작, 이시카와 주리 번역, 최진아 연출의 <인사이드-헤지2>, 가미사토 유다이 작, 고주영 번역, 김정 연출의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오사다 이쿠에 작, 이흥이 번역, 강량원 연출의 <저편의 영원> 세 작품의 낭독공연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실과 드라마’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작가, 연출가 및 평론가가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심포지엄도 함께 열렸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장이 한동안 문을 닫기 바로 직전에 진행된 제9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노기 모에기 작, 이흥이 번역, 정진새 연출의 <다스 오케스터(Das Orchester)>, 야마모토 스구루 작, 이지현 번역, 민새롬 연출의 <그 밤과 친구들>, 시라이 케이타 작, 손상희, 쓰카구치 토모 번역, 박근형 연출의 <버스(Birth)>가 낭독공연의 형태로 소개되었고 부대행사로 ‘한일연극교류의 미래’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한일 공연 기획자, 평론가, 연출자들의 발제로 함께 개최되었다.

중국희곡 낭독공연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남산예술센터와 한중연극교류협회의 파트너십이 진행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2019년에 제2회 중국희곡 낭독공연이 열린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귀스싱 작, 오수경, 장은경 번역, 구자혜 연출의 <청개구리>, 사예신, 리서우청, 야오밍더 작, 장희재 번역, 전인철 연출의 <만약 내가 진짜라면>, 천쯔두, 양젠, 주샤오팡 작, 김우석 번역, 김재엽 연출의 <뽕나무별 이야기> 세 편의 중국 희곡이 소개되었고, 매 공연 이후 관객과의 대화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부대 프로그램으로 사진작가 리옌의 ‘사진으로 보는 중국연극 이야기’가 강연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제3회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2020년 가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었다. 명징후이 작, 장희재 번역, 임도완 연출의 <떠돌이 개 두 마리>, 쉬잉 작, 김우석 번역, 박정희 연출의 <로비스트>, 위룽전 작, 홍영림 번역, 김낙형 연출의 <손님>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는 ‘중국연극계의 미래 전망과 지형’을 주제로 중국의 프로듀서와 독립예술가가 발제했다.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한중일 연극인들이 오가는 교류의 장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기능을 새로이 부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의 신작 희곡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희곡 낭독공연 플랫폼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5) 2010서울연극올림픽,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페스티벌 봄

극장의 정체성을 모색하던 시기인 2010년, 남산예술센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페스티벌 봄, 2010서울연극올림픽 등 대규모 공연축제들과 공동주관 형식으로 해외 작품을 초청, 공연한 바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초청한 불가리아 스푸마토 극단의 <고골의 꿈>, 페스티벌 봄과 공동주관 형식으로 초청한 무용극 <루츠 피르스터>, 그리고 2010서울연극올림픽과 함께 초청한 베를린 샤우뷔네 극단의 <햄릿>이다.

남산예술센터가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화제를 모은 해외작품은 2010년 서울연극올림픽과 공동으로 주최해 2010년 시즌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초청한 베를린 샤우뷔네 극단의 <햄릿>(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이었다. 비록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남산예술센터가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초청을 주도했고 또한 단순 초청 공연이 아니라 2010년 정규 시즌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한 작품이므로, 나머지 두 작품과는 조금 트랙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단 3회의 공연이었지만, 매회 전원 기립이 이루어질 만큼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연극계에도 강력한 인상을 남겨 이후로도 오랫동안 연극계에 회자된 공연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공동으로 초청한 불가리아 스푸마토 극단의 <고골의 꿈>은 러시아의 대문호 고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으로, 꿈의 파편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골의 작품들이 과장되고 기이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연이었다. 또한 페스티벌 봄과 함께 주관한 무용극 <루츠 피르스터>는 페스티벌 봄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페스티벌 봄은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 간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예술축제로, 세계 연극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나 예술가를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창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축제다. <루츠 피르스터>는 안무가 제롬 벨이 자신과 함께 작업했던 중년의 남자무용수 루츠 피르스터를 주인공/퍼포머로 내세운 자기서술적 공연으로 이후 이러한 장르의 공연 레퍼런스에서 자주 인용되기도 한 작품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세 개의 주요 공연축제와 공동주관/주최 형식으로 해외 작품을 선보인 남산예술센터는 이후부터는 창작극 중심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공연축제와의 공동주관을 통한 해외 공연 초청은 진행하지 않았다.

(6)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초청공연

남산예술센터는 2011년과 2013년, 단발성 기획으로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과 공동주최로 초청공연을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아시아권 최초로 미국 링컨센터에듀케

이선(Lincoln Center Education, 'LCE')과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대표 협력 사업으로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oul Educators Workshop, 'SEW')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은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의 심미적 예술교육방법론 워크숍과 해외 유수의 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및 단체(기관)와 상호교류 형태의 개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조적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예술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 과정 순차통역을 제공하여 예술교육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1년과 2013년에는 이 서울국제교육워크숍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남산예술센터에서 단발적인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는 남산예술센터 자체적인 기획이라기보다는 서울문화재단 사업과 연관되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링컨센터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정영두 안무의 무용 <시간은 두 자매가 사는 서쪽마을에서 멈추었다>와 <TIMF 앙상블 특별콘서트>가 공연되어 한국 현대무용과 현대음악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초청공연으로 판소리 만들기 '자'가 제작한 판소리극 <사천가>를 2회에 걸쳐 공연했다. 판소리꾼 이자람이 작/작창을 맡고 남인우가 연출을 맡은 <사천가>는 한국 전통예술인 판소리가 어떻게 현대적인 메시지와 동시대적 형식을 갖춘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선보인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7) 해외 극장/극단과의 협업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중심의 극장을 지향하는 극장의 특성상, 그리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극장에 비해 해외극장 및 극단과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꾸준하게 해외 연극계와의 네트워크를 이어간 프로그램으로는 위에서 소개한 베세토 연극제와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그리고 중국희곡낭독공연 정도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미 언급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해외 극장/극단과의 협업 작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재개관 이후 남산예술센터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여러 번 협업한 해외단체는 타다 준노스케 연출이 이끄는 일본 극단 도쿄데쓰락이다. 먼저 2009년과 2010년, 페스티벌 장의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도쿄데쓰락과 한국극단인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가 함께 참여한 <로미오와 줄리엣>과 <LOVE ver.2010>이 공연되었다. 남산예술센터는 이 두 작품 모두 공동제작에 참여했으나 <로미오와 줄리엣>만 남산예술센터 무대에서 공연되고, <LOVE ver.2010>은 대학로 원더스페이스에서 공연되었다.

정규 시즌 프로그램 중 해외 극단/극장/아티스트와 공동으로 협업한 작품은 <바후차라마타>, <태풍기담(颱風奇譚)>,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 세 작품이 있다. 2014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바후차라마타>는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인도의 성소수자 예술가들이 함께 제작, 참여한 작품으로 남산예술센터와 뛰다, 아시안나우와 인코센터의 공동협업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태풍기담(颱風奇譚)>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기

반으로,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극인들이 함께 재해석한 공연이었다.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의 성기웅이 각색을 맡고, 도쿄데쓰락의 타다 준노스케가 연출을 맡았으며 양 극단의 배우, 스태프들이 함께 참여했다. <태풍기담(颱風奇譚)>의 경우 남산예술센터에서의 공연 이후 일본 후지미시민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에서도 공연하여 국제교류 프로젝트로서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8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쇼케이스의 형식으로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선보였던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은 한국, 일본, 홍콩 세 나라의 극단 및 예술가가 참여한 다국적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VaQi와 일본의 극단 Q, 홍콩의 Artocrite가 참여해 한국, 일본, 홍콩의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정치적 맥락을 해석하는 젊은 연극인들 각자의 시각과 연대감을 펼쳐냈다.

이 외에 남산예술센터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간 협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015년 시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연된 <DELUGE : 물의 기억>이 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Motherboard Production이 제작한 공연으로, 세월호 1주기를 기념한 특별기획공연 형식으로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바 있다.

4) 학술, 워크숍 프로그램

(1) 남산연극포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극장 드라마터그의 주도로 학술행사인 남산연극포럼을 해마다 개최하여 극장에서 연극 담론을 생성하고자 했다. 2012년 2월 <동시대, 동시대적 텍스트, 동시대적 연극>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남산연극포럼이 개최되었다. 문지문화원 사이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연극 내부는 물론, 발표자를 사회학자, 철학자, 문학평론가 등 연극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여 연극 담론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인 진은영, 문학평론가 김홍중, 연극평론가 안치운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2012년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 연극의 새로운 글쓰기>란 주제로 열린 남산연극포럼에는 연극학자 파트리스 파비스와 연극평론가 조만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2014년에는 남산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희곡이라는 ‘문학’>을 주제로 한 남산연극포럼이 진행되었다. 희곡이 문학의 중요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서의 기능만 강조된 채 문학적 담론의 외부로 밀려난 현 상황에 대해 연극인과 문학인이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포럼이다. 남산연극포럼은 극장 드라마터그인 조만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소설가 정영문, 소설과 희곡 창작을 병행하고 있는 작가 천정완, 그리고 시인이자 소설가, 희곡작가로 활동 중인 최치언이 각기 ‘희곡과 다른 문학간의 소통의 부재와 그 가능성’, ‘무대 언어가 가진 문학성’, ‘문자 언어와 무대 언어 사이의 간극’에 대해 발제를 들려주었다. 문학 장르로서의 희곡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희곡’의 문학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에는 남산희곡페스티벌 기간 중에 <공공극장과 드라마터그>라는 주제로 한국 연극평론가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남산연극포럼을 주최했으며, 2016년에도 남산희곡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남산포럼-드라마터그 토크>를 개최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연극 현장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드라마터그라는 스태프의 포지션과 의미, 하는 일 등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드라마터그들의 발표를 듣고, 질문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조만수, 김옥란, 김주연, 방혜진, 전강희, 김해주 등 연극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다원 장르에서 경계를 오가며 활약하는 드라마터그들의 발표를 통해 연극 장르를 넘어 드라마터그의 가능성과 의미를 확장시키는 시간으로 평가되었다.

남산예술센터의 학술프로그램인 남산연극포럼은 전반적으로 극장의 홍보나 독립적인 주제보다는 극장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패널들이 시각을 소개하여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8년에는 <남산예술센터, 10년의 평가와 그 이후>란 주제로 남산포럼이 진행되었다. 재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남산예술센터의 현재를 점검하고, 이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포럼으로, 남산예술센터 극장장과 극장운영팀장 등 내부 인사와 평론가, 연출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공공극장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10년을 돌아보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포럼은 2019년 <극장 접근성과 장애 관객 서비스>란 주제로 열린 포럼으로, 남산연극포럼 대신 무장애 예술, 장벽 없는 극장만들기 포럼이란 명칭으로 진행되었다. 장애/비장애와 극장공간이라는 주제로 제2회 남산 아고라를 진행한 바 있는 Oset 프로젝트와 오디오 디스크립션 전문가 등이 출연해 ‘극장 공간의 접근성’ 및 ‘극장에서의 장애 관객 서비스’,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 접근성 리서치’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산연극포럼의 경우, 시즌 프로그램처럼 매년 동일한 규모로 개최되지는 못했고, 때로는 남산희곡페스티벌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등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연극을 통한 담론 생성으로서 극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학평론가, 사회학자, 소설가, 장애연극 전문가 등 연극과 인접한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극장이 다룰 수 있는 연극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술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덧붙여야 할 프로그램은 2011년 남산예술센터 개관 2주년을 기념해 한국연극평론가협회와 공동주관 하에 개최된 심포지엄 <한국연극의 오늘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이다. 이는 2012년 남산연극포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 독립적으로 기획된 심포지엄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기획/운영된 남산연극포럼과 맥을 같이 하는 학술 행사라 할 수 있다.

표 4 남산예술센터 학술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참여자
2011.6.20.	<한국 연극의 오늘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	<p>공동주관 : 남산예술센터, 한국연극평론가협회</p> <p>참여자 및 세부 프로그램 사회: 김미혜(연극평론가, 한양대학교 교수)</p> <p>제1부: 제작환경의 변화와 나의 연출과제-미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1: 이성열(연출가, 극단 백수광부) 발제2: 박근형(연출가, 극단 골목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3: 안경모(연출가, 극단 연우무대, 극동대학교 교수)</p> <p>제2부: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 발제1: 김성희(평론가) / '중극장 연극의 역사적 미학적 의의' 발제2: 안치운(평론가)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1-연출가들의 주요 중극장 작업에 대한 비평적 연구' 발제3: 김소연(평론가) /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2: 남산예술센터를 중심으로 - 남산예술센터 주요작품에 대한 비평적 연구'</p> <p>제3부: 토론 토론자: 김석만, 김방옥</p>
2012.2.29.	2012 남산연극포럼 <동시대성, 동시대적 텍스트, 동시대적 연극>	<p>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p> <p>발제1: 김홍중(사회학자) / '이미-아직의 결합으로서의 지금'</p> <p>발제2: 진은영(시인) / '예술의 동시대성과 아나크로니즘-카프카의 <작은 문학>을 중심으로'</p> <p>발제3: 안치운(연극평론가) / '연극, 동시대성, 가치'</p> <p>토론: 발제자 외 이해성(연출가), 윤한솔(연출가), 김재엽(연출가)</p>
2012.12.3.	2012 남산연극포럼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 연극의 새로운 글쓰기>	<p>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p> <p>발제: Patrice Pavis(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초청교수, 파리 8대학 교수 역임)</p>
2014.2.28.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연극포럼 <희곡이라는 '문학'>	<p>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p> <p>발제1: 천정완(극작가, 소설가) / '무대언어가 가진 문학성'</p> <p>발제2: 정영문(극작가, 소설가) / '희곡과 문학장르간 소통의 부재와 가능성'</p> <p>발제3: 최치연(극작가, 시인) / '문자언어와 무대언어 사이'</p>
2015.8.28.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연극포럼 <공공극장과 드라마터그>	<p>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p> <p>발제1: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 '남산예술센터의 극장드라마터그의 역할'</p> <p>발제2: 이단비(고려대학교 강사) / '도이치테아터에서의 드라마터그-연수 보고'</p>

		발제3: 박정희(연출가, 극단 풍경) / ‘연출가가 바라본 드라마터그’ 발제4: 김미희(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드라마터그 역할에 대한 인식 현황’
2016.12.8.	남산희곡페스티벌 남산포럼 <드라마터그 토크>	사회: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발제1: 김옥란(연극평론가, 드라마터그) / ‘빈 무대, 역할의 빈 공간을 찾는 일’ 발제2: 방혜진(평론가) / ‘드라마터그는 없다’ 발제3: 김주연(공연칼럼니스트, 드라마터그) / ‘드라마터그를 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 발제4: 전강희(드라마터그) / ‘드라마터그, 느린 대화를 나누는 사람’ 발제5: 김해주(독립 큐레이터) / ‘드라마터그, 큐레이터, 아카이빙’
2018.10.15.	2018 남산포럼 <남산예술센터, 10년의 평가와 그 이후>	사회: 도재형(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팀장) 발제1: 조만수(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 ‘공공성과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 발제2: 박해성(연출가) / ‘작업, 창작자, 남산예술센터’ 발제3: 김옥란(평론가) /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6개월, 쟁점과 현황’ 발제4: 우연(남산예술센터 극장장) / ‘남산예술센터 10년 결산과 과제’
2019.11.29.	무장애 예술, 장벽없는 극장 만들기 포럼 <극장 접근성과 장애 관객 서비스>	모더레이터 : 최석규, 도재형 발제1: 요하나 노나 마틸라(culture for all) / ‘극장 공간의 접근성이란?’ 발제2: 신재, 문영민, 성수연(0set프로젝트) / ‘극장은 누구에게 열려있는가?(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 접근성 리서치를 중심으로)’ 발제3: Emma-Jane McHenry(오디오 디스크립션 전문가) / ‘극장에서의 장애 관객 서비스(장애 관객을 위한 미학적 접근성, 오디오 디스크립션, 터치블 투어)’ 발제4: 김민정(남산예술센터) / ‘남산예술센터 사례를 통해서 본 장애 관객 서비스’

(2) 남산 아고라

남산 아고라는 개방형 무대와 객석을 지닌 남산예술센터의 특수한 공간 방식에 착안, 공연 예술 무대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토론, 재판, 사교 활동이 이루어졌던 광장 이름인 ‘아고라’에서 이름을 따온 남산 아고라는 공연의 예술성이 아닌 공공성과 상호소통에 방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동시대적인 이슈를 다루되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완성되는 공연을 목표로 삼았다. 즉 행사성을 띤 학술적인 포럼이나 컨퍼런스가 아니라 관객참여가 공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상호소통적 수행성 퍼포먼스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공모는 개인, 단체, 예술가, 일반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되, 200명의 관객을 미리 모객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가져야 하며, 동시대적인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남산 아고라는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을 전면에 내세

워 극장의 공공성과 담론 생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참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으나, 구체적인 실현과 운영 형태에 있어 낯설고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 도드라지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원 공모작들 중에서 극장이 원래 기획한 취지에 정확히 들어맞는 기획안이 없어서 아예 선정을 못 하거나 공모를 연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며, 독립적인 시즌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남산희곡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결국 두 번의 남산 아고라 진행 이후 남산 아고라는 자체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남산 아고라에서 가져가고자 했던 동시대적 이슈에 대한 담론은 이후 서치라이트에서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맥을 이어갔다.

표 5 남산 아고라

일시	프로그램	참여자
2016.12.10.	제1회 남산 아고라 <페미그라운드 - 여기도 저기도 히익 거기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진동젤리
2017.8.18.	제2회 남산 아고라 <불편한 입장들>	0set

(3) 시즌 프로그램 사전 워크숍

시즌 프로그램 사전 워크숍은 2014년 한 해 동안만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이다. 한 해의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인 1월과 2월에, 그 해의 시즌 프로그램을 진행할 극단과 극장이 한 주씩 모여서 사전 워크숍 형태로 작품의 구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남산 도큐멘타 : 연극의 연습 - 극장편>, <바후차라마타>, <즐거운 복희>, <투명인간>,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5개 작품의 참여자들이 극장기획팀 및 드라마터그들과 함께 남산예술센터 역사 세미나, 신체 워크숍, 성소수자에 대한 토론과 자신의 성정체성 평가, 대본 낭독, 김수영 문학관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이후 작품의 방향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극단 별로 각 1주씩만 진행된 워크숍이었던 만큼,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나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기 전, 창작팀과 극장 측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작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미리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자체 평가한 바 있다.

자체제작 공연이 사라진 뒤로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은 공동제작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참여극단의 예술적 선택에 극장이 개입/간섭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 빠듯한 시간에 맞추어 연습 및 셋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궁극적인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해 극장과 극단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극단과 극장이 함께 만나 작품의 방향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시즌 프로그램 사전 워크숍은 공동제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으나, 예산 확보 및 일정 조정상의 문제들로 인해 2014년 한 해만 진행하고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다.

(4) 글쓰기 워크숍 및 아카데미

남산예술센터는 동시대성을 담보하는 글쓰기 형식을 탐색하는 장으로서 글쓰기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남산희곡페스티벌과 연계되어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견 극작가와 대학의 극작 교육자, 그리고 원로 극작가의 워크숍의 형식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산예술센터는 창작 희곡 발굴의 중심지인 동시에 희곡 창작 담론의 중심지이자 희곡 창작 실험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다시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의 경우는 모두 남산희곡페스티벌을 이루는 구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남산희곡페스티벌과 별도로 기획되어 남산예술센터 2016 극작 강의와 극작가 김광림의 마스터클래스로 운영된 바 있다.

글쓰기 워크숍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으로는 2013년 <극작강의>를 들 수 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남산희곡페스티벌 기간 내내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작가들의 극작 강의와 새로운 희곡의 낭독공연이 매일 한 편씩 펼쳐졌다. 배삼식, 김명화, 선옥현, 박상현 등 동시대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들이 하루씩 맡아 플롯과 대사, 인물과 구조 등 극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단순히 자신의 극작 경험에 대한 소개나 조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작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극작가들 스스로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극작 강의 프로그램은 한 달 전부터 인원이 마감되고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을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바 있다. 글쓰기 워크숍 및 극작 강의 프로그램은 남산예술센터가 신작 희곡 발굴의 중심지인 동시에 희곡 창작 담론의 중심지로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남산희곡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기간	프로그램	참여자
2013.2.19.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오테석(극작가, 연출가)
2013.8.20.~8.23.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강의>	모더레이터: 조만수(연극평론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터그) 강의1: 배삼식(극작가) / ‘플롯’ 강의2: 김명화(극작가, 연극평론가) / ‘대사’ 강의3: 선옥현(극작가, 연출가) / ‘인물’ 강의4: 박상현(극작가, 연출가) / ‘구조적 글쓰기’
2014.8.5.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이강백(극작가)

	‘체험적 글쓰기 시작에서 완성까지: <즐거운 복희>를 중심으로	
2015.8.24.	남산희곡페스티벌 <극작가 마스터클래스> ‘희곡 창작의 단계별 글쓰기’	이강백(극작가)
2016.8.23.~8. .25.	남산예술센터 2016 극작가의 & <마스터클래스>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 ‘코미디의 극작법’ 김민승(연극평론가, 극작가, 드라마터그) / ‘공동창작 글쓰기’ 고선웅(연출가) / ‘연극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장우재(극작가, 연출가) / ‘인물-사람에게서 사람을 보라’ 김광림(극작가, 연출가) / ‘김광림 마스터클래스’

(5) 시즌 공연 관련 부대 행사 ‘관객과의 대화’

공연에 딸린 부대 프로그램은 관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의 하나로 기획, 진행되었다. 주로 관객과의 대화, 전문가와 연출가의 대담 등 관객들에게 공연 창작자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품, 공연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공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서 시민 교육의 장이 되고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고자 했다. 다만 매 시즌의 공연 일정 및 예산 확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매 공연마다 비슷한 규모, 비슷한 형태의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했고 때로는 부대 프로그램이 아예 없이 공연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특히 개관 초기에는 따로 심포지엄과 포럼을 자주 기획, 개최한 관계로 구체적인 공연 관련 부대프로그램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연 후 연출가 및 작가,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작품에 참여한 극작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배우가 관객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진행자로 출연했으나 때로 공연의 주제 및 성격에 따라 인접 분야의 예술가나 전문가를 따로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4년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김재엽 작, 연출의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공연 시에는 부대행사로 김수영 문학에 대한 강연회를 2회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에는 시인 심보선, 안현미, 성기완과 김수영 연구자인 김응교 교수가 발표를 맡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김수영의 위치 및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6년 시즌 프로그램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공연 시에는 ‘장정일의 연극읽기’라는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 작가 장정일이 사회를 맡고 시인 함성호, 조선희 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연극평론가 안치운, 칼럼니스트 김규항 등과 작품의 내/외적 의미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품의 경우, 당시 문화예술위원회의 검열 사건과 연관이 깊은 관계로 다음 해 재공연 시에는 검열백서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대담을 맡아 작품 외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학교에서의 집단성과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연의 형식으로 풀어낸

2016년 시즌 프로그램 <파란나라>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과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정세청세(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단체의 대표가 대담을 이끌었으며, 2017년 재공연 때는 교사, 학생, 학부모, 서울시교육감이 각각 대담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다. 극장 운영 프로그램

1) 상주 극작가 시스템

2009년 개관 이후 국내 희곡 창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조한 남산예술센터는 2010년, 국내에서 최초로 상주극작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차적인 목표는 막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려 하는 젊은 극작가들에게 1년 정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안정된 기반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동시대의 문제의식이 담긴 작품 창작에 기획부터 관여함으로써 남산예술센터만의 특색이 들어있는 신작희곡을 발굴하고 이를 공연으로 올려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상주극작가 제도는 2011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매년 두 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2011년 김지훈, 동이향, 2012년 정영옥, 오세혁, 2013년 백하룡, 안재승 작가가 선정되어 상주극작가로 지원을 받았다. 상주극작가에게는 약 1년간 매달 소정의 활동료가 지급되었으며, 2010년에 선정된 1기 상주극작가들에게는 연희문학창작촌 입주 기회도 주어졌다.

상주극작가 선정심사는 그간의 작품 활동과 남산예술센터에서 올리고 싶은 작품에 대한 기획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주극작가는 지원을 받는 동안 남산예술센터의 극장과 어울리는 1편의 장막희곡을 완성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며, 일단 초고를 받아서 낭독공연으로 운영한 뒤, 작품이 성격 및 완성도에 따라 다음 해 남산예술센터 시즌 공연 레퍼토리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1기 상주극작가 활동기간 동안 극장은 작가의 창작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작가에게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드백 과정에서 극장이 작품 집필 과정에 간섭이 아닌 최대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 시기부터 극장 드라마터그 2인이 활동하게 된 바, 2기의 경우는 상주극작가와 드라마터그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드라마터그 1인이 상주극작가 1인의 협력자가 되어 집필 과정을 동반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극장 팀과 상주극작가는 정기적인 월례 회의를 통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극장은 작가의 취재나 인터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기의 경우는 운영 도중 극장의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앞의 상주극작가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6명의 상주극작가가 완성한 장막희곡 작품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작품은 일단 남산예술센터에서 낭독공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표 7 상주극작가 작품

지원	상주극작가 <작품>	낭독공연	제작공연
2011	김지훈 <풍찬노숙>, 동이향 <잊혀진 부대>	2011년 여름	2012년 <풍찬노숙>
2012	오세혁 <김사장의 전투>, 정영욱 <농담>	2012년 여름	2013년 <농담>
2013	백하룡 <고제> ²⁾ , 안재승 <위대한 유산>	2013년 여름	

이중 김지훈의 <풍찬노숙>과 정영욱의 <농담>은 낭독공연을 거쳐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공연되었다. 2013년의 경우는 작품과 상관없이 극장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제작공연 자체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예산의 문제로 상주극작가 제도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상주극작가 제도는 남산예술센터가 초반 3년간 연극 생태계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영향을 준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

남산예술센터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극장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을 도입, 2012년에 조만수, 김주연 2인의 극장 드라마터그를 임명했다. 극장 드라마터그는 기본적으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외에 극장의 레퍼토리화 시즌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극장의 학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맡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즌 프로그램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선정 및 방향성 회의 참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프로덕션 드라마터그 참여, 초고를 부탁해 선정 및 피드백 담당, 상주극작가 관리, 남산희곡페스티벌 기획, 남산연극포럼 등 학술회의 기획 및 진행, 개별 공연에 딸린 학술 부대 행사 기획 및 진행 등이었다.

2012, 2013년에는 자체제작 작품을 중심으로 극장 드라마터그가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로 참여했고, 2014년에는 공동제작 작품들(극단 드라마터그가 있는 경우 포함)에도 극장 드라마터그가 일정 부분 작품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극장 드라마터그가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로 참여한 작품 목록³⁾

2) 백하룡 작가의 희곡 <고제>의 경우, 남산예술센터에서 낭독공연만 하고 제작공연으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2016년, 창작산실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전인철 연출에 의해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식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3) 2011년 김주연 참여의 <도화만발>, 2017년 조만수 참여의 <에어콘 없는 방>은 두 사람이 극장 드라마터그로서가 아니라 프로덕션 드라마터그로만 참여한 작품이라 표에 넣지 않았다.

표 8 상임드라마터그 제작 참여 목록

연도	작품명	참여 드라마터그	비고
2012	<풍찬노숙>	김주연	자체제작
	<878미터의 봄>	조만수	공동제작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	김주연	공동제작
	<전명출 평전>	조만수	자체제작
	<사이코패스>	조만수	공동제작
	<사라지다>	김주연	공동제작
2013	<농담>	김주연	자체제작
	<살>	김주연(공동참여 ⁴⁾)	공동제작
2014	<남산 도큐멘타 : 연극의 연습 - 극장편>	조만수, 김주연(공동참여)	공동제작
	<바후차라마타>	조만수, 김주연(공동참여)	공동제작
	<투명인간>	조만수, 김주연	공동제작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조만수, 김주연(공동참여)	공동제작
2015	<햇빛샤워>	조만수, 김주연	공동제작
	<치정>	조만수, 김주연	공동제작
	<태풍기담(颱風奇譚)>	조만수(공동참여)	공동제작
2016	<햇빛샤워> 재공연	조만수	공동제작
	<곰의 아내>	김주연	공동제작
	<나는야 연기왕>	조만수	공동제작

3) 신작 상시 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

2012년 극장 드라마터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초고를 부탁해는 남산예술센터의 상시 투고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과 역시 독회와 실제 공연 제작, 외부 공연과 희곡상 수상 등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초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은 단순히 극장의 라인업이나 공연 제작을 위해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존의 공모나 작품 발굴 시스템과는 궤를 달리 한다. 남산예술센터가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작가군을 발굴하고 이들 스스로 희곡의 장르와 양식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면서 더 깊이 있는 극작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둘째,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작가를 발굴해 이들을 연극계에 노출시킴으로써 창작 희곡의 인적자원 기반을 넓히는 것. 셋째, 가능성 있는 신작 희곡을 연극계 전반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창작 희곡의 제작 경로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상과 같이 초고를 부탁해는 남산예술센터의 작품 발굴이나 라인업 강화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희곡 및 작가 발굴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는 곧 초고를 부탁해를 일반적인 희곡 공모나 워크숍 공연과는 다르게 만드는 변별점이라 할 수 있다.

4) 극단 자체의 드라마터그와 극장 측 드라마터그의 공동참여를 의미한다.

초고를 부탁해는 극작가 지망생들을 위해 상시투고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분기별로 모인 작품을 1차적으로 담당위원(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극장 드라마터그 조만수, 김주연 담당 → 2017부터는 극작가 박상현, 고연옥, 김명화 담당)이 최초 검토한 뒤, 미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담당위원이 이메일로 간략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초 검토에서 검토위원이 추천한 대본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과 독회 위원이 심층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며, 이 2차 독회를 통과한 대상작은 모두 작품별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왔다. 이 피드백에 대한 수용 여부 및 발전 가능성에 따라 낭독공연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된다.

2차 검토와 피드백 시스템을 거쳐 낭독회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남산희곡페스티벌이나 서치라이트⁵⁾에서 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올려 관객 및 공연관계자들, 제작자들에게 소개해왔다. 초고를 부탁해를 통한 낭독공연은 최초로 소개되는 신작희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공연 관계자들에게 희곡 견본시로 기능하여 방향이 맞는 제작자들이 공연 제작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즉 이는 희곡 작가에게 부여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작품을 찾고자 하는 제작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표 9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낭독 공연된 ‘초고를 부탁해’ 작품 목록

연도	작품	작가	연출
2012	<지금도 가슴설렌다>	이혜빈	손기호
	<바둑이와 워리>	성기영	변정주
2013	<철수 연대기>	전성현	박상현
	<희망고시원 방화사건>	손희영	윤정환
2014	<장롱 속엔 괴물이 산다>	원소영	최진아
	<마트로시카_인형 안의 인형>	박신수진	박해성
	<꼬드득>	류동민	전인철
2015	<게으름뱅이의 천국>	구혜미	적극
2016	<누구의 꽃밭>	이오진	전인철

표 10 서치라이트에서 낭독 공연된 ‘초고를 부탁해’ 작품 목록

연도	작품	작가	연출
2018	<7번국도> ⁶⁾	배해률	구자혜
2019	<왕서개 이야기> ⁷⁾	김도영	이준우
2020	<기계장치의 신>	김상훈	이철희

그리고 비록 남산예술센터에서의 낭독공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초고를 부탁해를 통

5)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소개되었고, 남산희곡페스티벌이 서치라이트로 바뀐 2017년부터는 서치라이트에서 소개되었다.

6) 2019년 시즌 프로그램 선정

7) 2020년 시즌 프로그램 선정

해 피드백을 받은 작품 중 <지금도 가슴 설렌다>, <조치원 해문이>, <바람직한 청소년>, <목욕탕집 세 남자> 4편의 작품이 남산예술센터 이외의 극단 혹은 극장에 의해 실제 공연화되었다. 이 중 <조치원 해문이>는 2014년 제4회 벽산희곡상에 당선되었고, <바람직한 청소년>은 2012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연극 부분 지원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2017년부터 초고를 부탁해 1차 선정 작품은 남산희곡페스티벌이 아니라 서치라이트를 통해 낭독으로 공연되었는데, 이 중 <7번국도>와 <왕서개 이야기>는 낭독공연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각각 2019년과 2020년 남산예술센터 정규 시즌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정식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4) 남산예술센터 공연 희곡집 발간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부터 작가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희곡 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남산예술센터에서 제작 공연된 희곡을 출판하고 있다. 이는 국내 창작극 제작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작가의 희곡집으로만 발간되는 희곡 출판 현황 속에서 개별 희곡 단행본의 출판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희곡집 발간은 작품을 널리 알리는데 효과적이므로, 후에 다른 제작 주체들의 재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산예술센터의 희곡집 발간은 도서출판 이음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하고 이음희곡선으로 출판된 희곡집은 다음과 같다.

표 11 남산예술센터 발간 희곡집 목록

연도	제목	작가
2016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햇빛샤워>	장우재
	<처의 감각>	고연옥
	<파란나라>	김수정
2017	<에어콘 없는 방>	고영범
2018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최치언
	<두 번째 시간>	이보람
2019	<7번 국도>	배해률
	<명왕성에서>	박상현
	<목적지수>	서민준
2020	<왕서개 이야기>	김도영

* 2018년 공연작인 <손 없는 색시>의 경우, 이음출판사가 아닌 연극과인간에서大本집 별도 발간

5) 백스테이지 투어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부터 극장 무대와 그 뒤편의 공간, 기술적 장치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소개하는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인 <어바웃 스테이지>를 진행해왔다. 매 시즌의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중 하루, 주로 주말 중 미리 20명의 관객에게 선착순으로 예약 받아 공연 전 무대를 미리 둘러볼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투어 중에는 1962년 개관한 남산예술센터의 역사를 비롯해 프로시니엄 구조와 돌출형 무대에 대한 공간 설명, 그리고 무대와 음향, 조명 등 극장의 기술에 대한 담당 감독들의 설명이 곁들여져 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투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연되고 있는 실제 공연의 무대 평면도와 조감도, 조명 큐시트 등을 공개해 실제 공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 것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표 12 어바웃 스테이지 시행 일시

연도	일시
2016	3.26.(토) 12:00
	5.28.(토) 12:00
	7.16.(토) 12:00
	9.10.(토) 12:00
	9.26.(월) 12:00
	11.26.(토) 12:00
2017	6.17.(토) 12:00
	7.15.(토) 12:00
	9.23.(토) 12:00
	10.21.(토) 12:00
	11.25.(토) 12:00
2018	4.15.(일) 12:00
	5.5.(토) 12:00
	9.16.(일) 12:00
	11.4.(일) 12:00
2019	11.25.(일) 12:00
	4.28.(일) 12:00
	5.26.(일) 12:00
	7.7.(일) 12:00
	10.27.(일) 12:00
	11.17.(일) 12:00
2020	11.8.(일) 12:00

2.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역사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그동안 수행된 공연과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의미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가. 한국영상자료원, KMDB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영화의 한국영화의 작품 정보, 영화인 정보, 동영상, 이미지, 소장 자료 등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KMDb VOD(www.kmdb.or.kr/vod)를 통해 한국 고전영화를 온라인으로 감상하거나, 깊이 있는 영화 비평과 칼럼을 읽을 수 있음
- KMDb는 영화DB와 영화인DB, 소장자료로 구분됨

1) KMDb 영화DB

KMDb

← 이전

맹진사댁 경사

A Happy Day of Jinsa Maeng (Maengjinsadaek Gyeongsu)

1962년 연소자관람가 · 대한민국 · 124분 · 1962-03-08 (개봉)

제작사 동아영화촬영주식회사,대동영화제작공사

감독 이용민

출연 김승호, 최은희, 김진규, 구봉서, 김희갑

[스크랩하기] [DB 수정요청]

소장자료 기본정보

영상자료(15) 필름(4) 테이프(7) 디스크(2) VOD(2) 이미지(5) 포스터(1) 스틸(3) 스틸필름(1) 문헌자료(5)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1

- 영화 기본 정보 제공 방식 : ①영화명 ②영문명(의역/음차표기) ③제작년/관람연령/제작국가/상영시간/개봉일 ④제작자 ⑤감독 ⑥출연 ⑦사용자 서비스⑧정보 수정요청⑨소장자료를 유형과 수량으로 보여줌 ⑩영화 포스터 섬네일

VOD

i VOD이용안내



맹진사댁 경사 [본편]

• KMDb VOD

상영시간 02:04:00

색채 컬러

프레임크기 1920x1080

관람료 0원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2

- 한국고전영화 VOD서비스의 경우 네이버TV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서비스되며, KMDb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영화 감상이 가능함



맹진사댁 경사



맹진사댁 경사



맹진사댁 경사



맹진사댁 경사

줄거리

맹진사(김승호)는 자신의 외동딸 갑분(이빈화)이가 도라지골 김대감 자제인 미연(김진규)과 결혼할 것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돈으로 벼슬을 산 맹진사는 명문가와 사돈이 되면 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위가 될 미연의 성품 등은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진사댁에 묵게 된 도라지골의 어느 선비가 사위가 될 미연이가 절름발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당사자인 갑분이는 `죽어도 병신한테는 시집 안 간다'고 펄펄 뛰고, 세도가와 사돈이 되는 것도 좋지만 딸을 절름발이에게 시집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맹진사는 친족들과 모여 이 문제를 의논한다. 고민 끝에 맹진사는 갑분의 하녀 이쁜이(최은희)를 갑분이 대신 바꿔치기해 시집보내기로 한다. 맹진사는 갑분을 작은 아버지 댁으로 숨기고, 예쁜이에게 갑분이를...

▽ 펼쳐보기

장르

#시대극/사극

#코메디

#문예

키워드

#희곡원작

#희곡영화화

#판례

#인과응보

#해학

#탐욕

#풍자

#결혼

#조선시대

#이조시대

#컬러스탠다드

키워드를 추가해주세요

등록하기

로그인 하시면 새로운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3

- 영화 줄거리와 장르, 키워드 정보 제공, 장르와 키워드의 경우 태깅으로 제공되며, 해당 키워드를 갖는 영화 목록을 볼 수 있음
- 키워드의 경우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할 수 있음

감독	: 이용민
출연	: 김승호 맹진사 역
	: 최은희 임분 역
	: 김진규 김미언(김판서 아들) 역
	: 구봉서 삼돌 역
	: 김희갑 맹노인 역

스태프

• 원작	: 오영진	• 각본	: 오영진
• 제작자	: 이성근	• 기획	: 이수형 김영기
• 촬영	: 이용민	• 조명	: 고해진
• 편집	: 유재원	• 음악	: 김대현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4

- 크레딧 정보의 경우 파란색 글씨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인물 정보 페이지로 연결됨
- 출연의 경우 해당 배우가 연기한 등장인물 정보가 제공됨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등록하기](#)
 로그인 하시면 새로운 태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5

- 크레딧 정보가 있는 자료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크레딧 이미지에 관련 정보를 태깅할 수 있음

상세정보

• 등급정보	(1) 심의일자 1962-02-09 심의번호 제3205호 관람등급 연소자관람가 상영시간 124분 개봉일자 1962-03-08
• 다른제목	孟進士宅慶事(기타)
• 개봉극장	국도
• 노트	■ 오영진 원작 「맹진사댁 경사」의 두 번째 영화화 작품

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6

- 상세정보에는 등급정보/다른제목/개봉극장/노트가 있으며, 노트의 경우 항목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칸임

2) KMDB 영화인DB

← 이전

최은희

Choi Eun-hee / 崔銀姬 / 1926 ~ 2018

본명

최경순 (Choi Kyeong-soon)

대표분야

배우, 감독

데뷔작품

새로운 별서 1947

활동년대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DB수정요청

소장자료

기본정보

영상자료(97)

VOD(97)

이미지(272)

스틸(236)

스틸필름(36)

문헌자료(16)

도서(16)

이미지 (236)

더보기

제8회 아시아 - 태평양영화제

최은희

성준향

성준향

영상자료원 KMDB 영화인정보-1

- 영문명/한자명/생년-몰년,본명/대표분야/데뷔작품/활동년대가 기본정보로 제공됨

- 41 -

필모그래피

역할	영화명	역할명	소장자료
감독(3)	총각선생(최은희, 1972)		시나리오(2)
	공주님의 짝사랑(최은희, 1967)		필름(5) VOD(1) 시나리오(2)
	민머느리(최은희, 1965)		필름(3) 디스크(1) VOD(1) 시나리오(4)
배우(119)	[원로영화인 구술인터뷰] 최은희(,)		
	연인과 독재자(로스 아담, 로버트 캐넌, 2016)		D시네마(2) 디스크(1)
	황홀경(김소영, 2003)		디스크(1)
	아름다운 생존 - 여성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임순례, 2001)	본인 역	
	필름으로 희망을 이야기 한다 감독 박상호(박상찬, 2001)	인터뷰	VOD(1)
	소금(신상옥, 1985)		필름(2)
기타스텝(3)	겨울이야기(신상옥, 2004)	캐스팅	필름(4) 시나리오(2)
	증발(신상옥, 1994)	연기지도	필름(2) 디스크(1) 시나리오(4)
	마유미(신상옥, 1990)	캐스팅디렉터	필름(5) 디스크(1) 테이프(1) 시나리오(4)

수상정보

⊕ 더보기

- 제 2회 부일영화상(1959) : 여우주연상(저속화)
- 제 5회 부일영화상(1962) : 여우주연상(사향방 손님과 어머니)
- 제 1회 대중상 영화제(1962) : 여우주연상(상륙수)

주요경력

1943년 극단 아랑 입단
 1947년 <새로운 맹서>로 영화계 데뷔
 1953년 신상옥 감독과 함께 신필름 설립
 1966년 안양영화예술학교 설립(이사장)
 1969년 안양영화예술학교 취임(교장)

☺ 펼쳐보기

기타정보

수상내역(영화)

2012년 제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공로예술인상

수상내역(기타)

■ 기타 수상내역/
 - 2007 제3회 앙드레김 베스트스타어워드 특별상/

영상자료원 KMDB 영화인정보-2

- 영화인의 필모그래피는 역할과 영화명(하이퍼링크), 역할명(배역)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관련 소장 자료의 유형과 수량을 함께 보여주는 형태이며, 그 외 수상정보, 주요경력, 기타 정보가 있음

- 수상정보의 수상명 역시 하이퍼링크 형태의 정보로 제공되며, 상에 대한 설명과 해당년도 수상작, 수상인의 이름이 제공됨

3) KMDB 소장자료와 검색 기능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1

- KMDb는 전체 소장자료의 유형과 수량을 메인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의 유형은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관류로 구분됨

맹진사댁 경사

A Happy Day of Jinsa Maeng (Maengjinsadaek Gyeongssa)

1962년 · 연소자관람가 · 대한민국 · 124분 · 1962-03-08 (개봉)

제작사 동아영화촬영소·대동영화제작공사

감독 이용민

출연 김승호, 최은희, 김진규, 구룡서, 김희갑, 더보이

[스크랩하기]

[DB 수정요청]



소장자료 기본정보

< 영상자료(15) **필름(4)** · 테이프(7) · 디스크(2) · VOD(2) **이미지(5)** · 포스터(1) · 스틸(3) · 스틸필름(1) **문헌자료(5)** · 시나리오/콘티(2) · 심의자료 >

영상자료 (15)

필름 (4)

맹진사댁 경사

▪ 구분	필름스 프린트(RP)	▪ 규격	16mm
▪ 색채	컬러	▪ 화면비	SD(1.33:1)
▪ 사운드	모노	▪ 시간	123분
▪ 보관위치	상함	▪ 입수방법	구입

맹진사댁 경사

▪ 구분	오리지널 네거티브(ON)	▪ 규격	35mm
▪ 색채	컬러	▪ 화면비	SD(1.33:1)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2

- 필름 자료의 경우 구분, 규격, 색채, 화면비, 사운드, 시간, 보관위치, 입수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됨

K M D B

A Happy Day of Jinsa Maeng (Maengjinsadaek Gyeongsa)


1962 년 · 연소자관함가 대한민국 · 124분 1962-03-08 (개봉)

제작사 동아영화촬영주식회사,대동영화제작공사

감독 이윤민

출연 김승호, 최은희, 김진규, 구룡서, 김화갑, 덕보기

[스크랩하기](#) [DB 수정요청](#)



소장자료
기본정보

< 영상자료(15)
필름(4)
테이프(7)
디스크(2)
VOD(2)
이미지(5)
포스터(1)
스틸(3)
스틸촬영(1)
문헌자료(5)
시나리오/콘티(2) *
심각자료
>

문헌자료 (5)

시나리오/콘티 (2)

맹진사댁 경사

관리번호: CKD020787

• 형태	인쇄물	• 내용구분	심의대본
• 감독	이윤민	• 제작사	동아영화촬영주식회사(주)싸이더스
• 언어	한국어	• 페이지	148
• 보관위치	문헌보존실(열람불가)	• 원본/사본정	파일 (DCKD020787)의 원본

맹진사댁 경사

관리번호: DCKD020787

• 형태	파일	• 내용구분	심의대본
• 감독	이윤민	• 제작사	동아영화촬영주식회사(주)싸이더스
• 언어	한국어	• 페이지	148
• 원본/사본정	인쇄물 (CKD020787)의 사본		

영상자료원 KMDB 소장자료-3

- 시나리오/콘티는 형태, 내용구분, 감독, 제작사, 언어, 페이지, 보관위치, 원본/사본정보를 제공함
- KMDB는 영화, 영화인, 소장자료별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작품 DB

국가구분 ☒ 전체 ☒ 국내영화 ☒ 해외영화

유형 ☒ 전체 ☒ 극영화 ☒ 애니메이션 ☒ 다큐멘터리 ☒ 기타

영화명 AND ▼

영화인 감독 ▼ AND ▼ +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로케이션

제작년도 범위 년 ~ 범위 년

영화개봉일 8자의 입력 ~ 8자의 입력

제작국가 국가선택 검색

↶ 다시입력
Q 검색

영상자료원 KMDB 검색-1

- 영화 DB 검색의 경우 국가구분, 장르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로케이션, 제작년도, 영화개봉일, 제작국가별로 검색할 수 있음

이전

인명 DB

성명

직접입력

AND

필모그래피

직접입력

AND

생년월일

8자리 입력

8자리 입력

다시입력

검색

영상자료원 KMDB 검색-2

- 영화인 DB의 경우 이름, 필모그래피, 생년월일로 검색이 가능함

이전

소장자료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본티

도서/논문

OST

심외서록

박물관

유형

전체

국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기타

영화명

직접입력

AND

영화인

직접입력

감독

AND

제작사/투자배급사

직접입력

키워드/줄거리

직접입력

국가구분

전체

국내영화

해외영화

제작년도

범위 직접입력

년

범위 직접입력

년

장르

장르선택

검색

영화심의여부

전체

심의필

심의미필

필름구분

전체

ON

MP

DN

RP

DCDM

DSM

DCP

SOUND

필름규격

전체

70mm

35mm

16mm

8mm

CINEON

DPX

MXF

WAV

AIFF

MOV

TIFF

JPEG2000

MP4

NPG

AVI

자막

전체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시입력

검색

영상자료원 KMDB 검색-3

- 필름/D시네마는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국가구분, 제작년도, 장르, 영화심의여부, 필름구분, 필름규격, 자막으로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음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류
---------	------------	-----	-----	---------	-------	-----	------	-----

유형 ☒ 전체 ☒ 국영화 ☒ 애니메이션 ☒ 다큐멘터리 ☒ 기타

영화명 AND ▼

영화인 감독 ▼ AND ▼ +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국가구분 ☒ 전체 ☒ 국내영화 ☒ 해외영화

제조년도 년 ~ 년

제작국가 검색

장르 검색

비디오규격 ☒ 전체 ☒ Blue-ray ☒ DVD ☒ VHS ☒ HDCAM ☒ Digi-Betecam

비디오제조/판매원

제작년도 년 ~ 년

관람기준 전체 ▼

색채 ☒ 전체 ☒ 흑백 ☒ 컬러 ☒ 혼합 ☒ 단색

언어 ☒ 전체 ☒ 한국어 ☒ 영어 ☒ 불어 ☒ 독어 ☒ 일어 ☒ 중국어 ☒ 스페인어

자막 ☒ 전체 ☒ 한국어 ☒ 영어 ☒ 불어 ☒ 독어 ☒ 일어 ☒ 중국어 ☒ 스페인어

보존위치 영상도서관 보존고

영상자료원 KMDB 검색-4

- 비디오의 경우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국가구분, 제조년도, 제작국가, 장르, 비디오 규격, 비디오 제조/판매원, 관람기준, 색채, 언어, 자막, 보존위치로 검색 가능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관
---------	-----	------------	-----	---------	-------	-----	------	-----

유형 ☒ 전체 ☒ 극영화 ☒ 애니메이션 ☒ 다큐멘터리 ☒ 기타

영화명 AND ▼

영화인 감독 ▼ AND ▼ +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줄거리

국가구분 ☒ 전체 ☒ 국내영화 ☒ 해외영화

제작년도 범위 작성일력 ~ 범위 작성일력

제작국가 검색

장르 검색

서비스구분 ☒ 전체 ☒ 온라인VOD ☒ 영상도서관VOD

동영상종류 ☒ 전체 ☒ 본편 ☒ 예고편 ☒ 기타

영상자료원 KMDB 검색-5

- 동영상의 검색은 유형,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키워드, 줄거리, 국가구분, 제작년도, 제작국가, 장르, 서비스구분, 동영상종류로 가능함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관
---------	-----	-----	------------	---------	-------	-----	------	-----

내용구분 ☒ 전체 ☒ 영화 ☒ 영화인 ☒ 영화제 ☒ 기타

자료유형 ☒ 전체 ☒ 포스터 ☒ 스틸/스틸필름

이미지명, 관련 영화명, 행사/장소명

직접입력 AND ▼

인명 직접입력

국가구분 ☒ 전체 ☒ 국내영화 ☒ 해외영화

제작년도 범위 직접입력 년 ~ 범위 직접입력 년

디지털이미지 보유 미보유

영상자료원 KMDB 검색-6

- 이미지 검색은 내용구분, 자료유형, 이미지명, 관련 영화명, 행사 장소명, 인명, 국가구분, 제작년도, 디지털이미지 보유 유무로 가능함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관
---------	-----	-----	-----	---------	--------------	-----	------	-----

도서/논문명 직접입력 AND ▼

저자/역자 직접입력 AND ▼

키워드/목차/초록 직접입력 AND ▼

발행처 직접입력

발행국가 ☒ 전체 ☒ 국내 ☒ 해외

발행년도 범위 직접입력 년 ~ 범위 직접입력 년

보존위치 영상도서관 보존고

영상자료원 KMDB 검색-7

- 도서/논문 검색은 도서/논문명, 저자/역자, 키워드/목차/초록, 발행처, 발행국가, 발행년도, 보존위치로 가능함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관
음반명	직접입력					AND	▼	
관련영화명	직접입력					AND	▼	
수록곡	직접입력					AND	▼	
아티스트	직접입력							
음반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이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디스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레코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일							
제조년도	범위 직접입력		년	~	범위 직접입력	년		
보존위치	<div>영상도서관</div> <div>보존고</div>							

영상자료원 KMDB 검색-8

- OST의 검색은 음반명, 관련영화명, 수록곡, 아티스트, 음반종류, 제조년도, 보존위치로 가능함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관
심의서류명	직접입력					AND	▼	
관련영화명	직접입력					AND	▼	
영화인	직접입력					감독 ▼	AND ▼	+
제작사	직접입력							
내용	직접입력							
제작년도	범위 직접입력		년	~	범위 직접입력	년		
보존위치	<div>영상도서관</div> <div>보존고</div>							

영상자료원 KMDB 검색-9

- 심의서류 검색은 심의서류명, 관련영화명, 영화인, 제작사, 내용, 제작년도, 보존위치로 가능함

필름/D시네마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콘티

도서/논문

OST

심의서류

박물류

박물류명

직접입력

관련영화명

직접입력

박물류 종류

☒ 전체
☒ 영화기자재
☒ 영화소품
☒ 기타박물류
☒ 영화종보물
☒ 기념품

보존위치

보유

미보유

영상자료원 KMDB 검색-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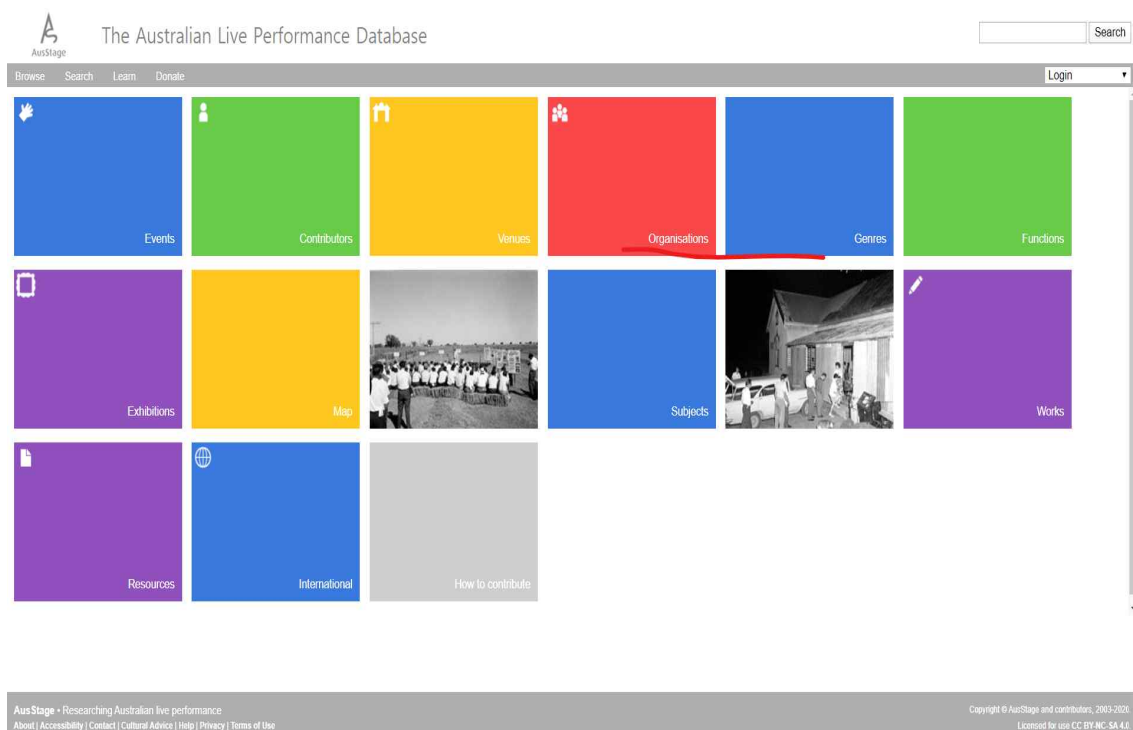
- 박물류 검색은 박물류명, 관련영화명, 박물류종류, 보존위치로 가능함

표 13 KMDB 서비스 페이지 요소

KMDB 서비스 페이지 요소			
영화DB		영화인DB	소장자료
영화명		인물명	필름/D시네마
영문명(의역/음차표기)		영문명	비디오
제작년도		한자명	동영상
관람연령		생년-몰년	이미지
제작국가		본명	시나리오/콘티
상영시간		대표분야	도서/논문
개봉일		데뷔작품	OST
제작사		활동년대	심의서류
감독		인물사진	박물류
출연		소장자료/기본정보	
VOD		이미지	
이미지		필모그래피	
줄거리	장르	수상정보	
	키워드		
크레딧	감독	주요경력	
	출연		
	스태프		
풀 크레딧 이미지		기타정보	
상세정보	등급정보	한국영화사료관	
	다른정보		
	개봉극장		
노트		영화인 정보조사	

나. 호주, Ausstage

- 호주의 연극, 콘서트, 무용 등의 총체적인 공연예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는 호주 라이브 퍼포먼스 데이터베이스. 호주의 창작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라이브 공연 정보로 확장됨
-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연예술을 홍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 사용자들과의 예술 및 학술적 협업을 목적으로 공연예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Ausstage의 경우 현재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입센 연구센터가 벤치마킹하였음
- 공연, 창작자, 단체, 공간, 전시, 주제, 자원, 장르, 지도 등 주요 9개의 데이터 유형이 있음. 각 유형 데이터는 다른 유형 데이터와 관계 속에서 구축되었음
- Ausstage는 공연 자료를 아카이빙하려는 목적보다는 호주의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정보를 Events, Contributor, Works, Maps, Resources, Exhibitions, Functions, Genres, Subjects 등으로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호주 여러 기관과 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호주 라이브 퍼포먼스 자원의 소장처 정보와 온라인 자원일 경우 접근 가능한 URL을 제공함



Ausstage 메인화면

1) Ausstage 데이터 유형

- Ausstage의 데이터는 Events, contributors, Works, Venues, Organizations, Genres, Functions, Exhibitions, Map, Subjects, Resources, International로 구분됨
- Events는 Ausstage의 핵심 데이터이며, Events를 중심으로 그 외 데이터 유형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임

표 14 Ausstage, Events

유형	속성	설명
Events	ID	개별 Event에 적용되는 고유 번호
	Event Name	Event의 타이틀 또는 이름
	umbrella	Event가 속해 있는 페스티벌이나 시리즈의 종류
	Description	Event에 대한 간략한 설명
	Part of a Tour	투어의 하나인 경우 yes 또는 No를 선택
	World Premiere	세계 초연 여부 선택
	First Date - Day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 프리뷰를 포함함
	First Date - Month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달. 프리뷰를 포함함
	First Date - Year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해. 프리뷰를 포함함
	Last Date - Day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의 종료일. 프리뷰를 포함함
	Last Date - Month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의 종료한 달. 프리뷰를 포함함
	Last Date - Year	Event가 공개적으로 처음 공연된 날짜의 종료된 해. 프리뷰를 포함함
	Status	해당 Event의 성격. 프로, 아마추어 등으로 표현
	Primary Genre	주요 장르
	Further Information	description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기술
	Description Source	description의 출처 정보
	Opening Date -Day	프리뷰를 제외한 Event의 공식적인 첫 공연 날짜
	Opening Date -Month	프리뷰를 제외한 Event의 공식적인 첫 공연 달
	Opening Date -Year	프리뷰를 제외한 Event의 공식적인 첫 공연 해
	Estimated Dates	Event의 공연일이 추측 가능한지에 대한 선택. yes 또는 No

표15 Ausstage, Contributors

유형	속성	설명
Contributors	ID	개별 ID에 적용되는 공유 번호
	Last Name	이름의 가족 성
	First Name	이름
	Gender	성별
	Born	생년월일
	Died	몰년월일
	Nationality	국적
	Other Names	다른 이름
	Address	주소
	Suburb	주소
	State	주소
	Postcode	우편번호
	Email	이메일 주소
	Notes	약력 정보
	Country	거주 국가
	Prefix	Contributors의 타이틀. Mr, Mrs emd
	Middle Name	중간 이름
	Suffix	Contributor에게 사용되는 호칭
	Place of Birth	태어난 장소
	Place of Death	사망한 장소

표 16 Ausstage, Venues

유형	속성	설명
VENUE	ID	개별 ID에 적용되는 공유 번호
	Venue Name	Venue의 이름
	Other Names	Venue의 다른 이름
	First Date	Venue의 오픈일
	Last Date	Venue의 종료일
	Address	Venue의 주소
	Suburb	Venue의 주소
	State	Venue의 주소
	Postcode	Venue의 우편번호
	Country	Venue가 있는 국가
	Capacity	venue의 수용 가능한 관객수
	Contact Name	Venue에서 연락 가능한 사람의 이름
	Contact Phone	Venue의 연락처
	Contact Fax	Venue의 팩스번호
	Contact Email	Venue의 이메일
	Web Link	Venue의 웹주소
	Longitude	Venue의 지리 좌표 경도
	Latitude	Venue의 지리 좌표 위도
	Radius	Venue의 위치 반경
	Elevation	Venue의 높이
	Notes	Venue의 정보(위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Venue Association/s	현재의 Venue와 관련있는 다른 장소

표 17 Ausstage, Organisations

유형	속성	설명
Organisations	ID	Organisation의 고유 번호
	Organisation Name	Organisation의 이름
	Other Names	Organisation의 다른 이름
	Address	Organisation의 주소
	Suburb	Organisation의 주소
	State	Organisation의 주소
	Postcode	Organisation의 우편번호
	Contact Name	Organisation에 연락 가능한 사람의 이름
	Contact Phone1	Organisation의 전화번호1
	Contact Phone2	Organisation의 전화번호2
	Contact Phone3	Organisation의 전화번호3
	Contact Fax	Organisation의 팩스
	Contact Email	Organisation의 이메일
	Web Link	Organisation의 웹주소
	Notes	Organisation의 표기해야할 내용 중 위의 속성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Country	Organisation이 있는 국가 정보
	First Date	Organisation이 시작된 날짜
	Last Date	Organisation이 종료된 날짜
	Place of Origin	Organisation이 시작된 장소
	Place of Demise	Organisation의 활동이 종료된 장소

표 18 Ausstage, Works

유형	속성	설명
Works	ID	work의 고유 번호
	Work Title	work의 제목
	Alternative Work Title	work의 다른 이름

표 19 Ausstage, Resources

유형	속성	설명
Resources	Resource Sub Type Identifier	Resources의 고유 번호
	Resource Type	Resources의 타입
	Resource Sub Type	Resources의 세부 형. 컬렉션, 데이터셋, 무빙 이미지, 실물자료 등
	Title	Resources의 제목
	Title Alternative	Resources의 다른 이름
	Abstract/Description	Resources의 요약 및 설명
	Source	Resources의 소스가 되는 Resources
	Publisher	Resources의 발행처
	Publisher Location	Resources의 발행처 위치
	Volume	Resources의 볼륨(권) 정보
	Issue	Resources의 호 정보
	Page	Resources의 쪽수 정보
	Citation	Resources의 인용 정보
	Date Created	Resources가 생산된 날짜
	Date of Issue	Resources가 발행된 날짜
	Date of Copyright	Resources의 저작권이 시작된 날짜
	Date Accessioned	Resources를 자료로 등록한 날짜
	Date Notes	Resources에 대한 설명(위의 속성에 속하지 않은)
	Catalogue ID	Resources가 속해 있는 카탈로그의 ID
	Holding Institution	Resources의 소장처
	Storage	Resources의 저장형태
	Donated/Purchased	Resources의 기부 및 구매 형태
	From	Resources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 정보
	Provenance	Resources의 출처, 유래에 대한 기술
	Significance	Resources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
	Resource Condition	Resources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기술
	Condition Comments	Resources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기술
	Rights	Resources의 저작권 상황
	Rights Holder	Resources의 저작권 소유자
	Access Rights	Resources의 저작권 활용에 관한 사항
	Resource Language	Resources의 언어
	Medium	Resources의 물리적 매체
	Extent	Resources의 물리적 크기, 치수
	Mimetype	전자우편을 위한 디지털 아이템의 파일 포맷
	Format	Resources의 형태에 대한 속성 외의 정보
	Resource URL	Resources의 URL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도서의 ISBN 정보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악보의 ISMN 정보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간행물의 ISSN 정보
	Serial Resource and Contribution Number	간행물의 SRCN 정보

2) Ausstage 관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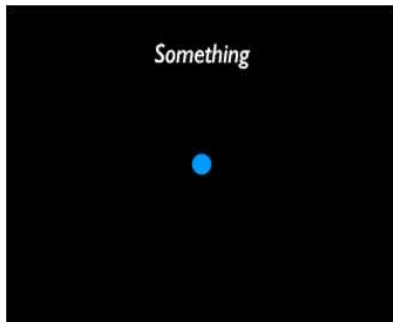
○ Ausstage는 각 데이터 사이의 의미를 관계 데이터를 통해 밝혀주고 있음

표 20

유형	관계데이터	설명
Event	Is umbrella of <-> Is under umbrella of	a는 b의 공연 중 하나이다
	Is under umbrella of <-> Is umbrella of	b는 a에 속하는 공연이다
	Is part of tour <-> Is tour of	a는 b의 투어 공연 중 하나이다
	Is tour of <-> Is part of tour	b는 a의 투어 공연에 속한다
	Has part <-> Is part of	a는 b를 포함한다
	Is part of <-> Has part	b는 a의 일부이다
CONTRIBUTOR	Is child of <-> Is parent of	a는 b의 자식이다
	Is parent of <-> Is child of	b는 a의 부모이다
	Is related to <-> Is related to	a와 b는 관련 있다
	Is sibling of <-> Is sibling of	a와 b는 형제자매이다
	Is spouse of <-> Is spouse of	a는 b는 서로의 배우자이다
ORGANISATION	Is not <-> Is not	a는 b가 아니다
	Also known as <-> Also known as	a는 b로 알려져 있다
VENUE	Is related to <-> Is related to	a와 b는 관련 있다
	Also known as <-> Also known as	a는 b로 알려져 있다
	Formerly located at <-> Moved to	a의 위치는 b였다/a는 b로 이동했다
	Is on the site of <-> Is on the site of	a는 b에 위치하다/b는 a의 장소이다
	Is part of <-> Has part	a는 b의 일부이다
	Has part <-> Is part of	b는 a를 포함한다

3) 네트워크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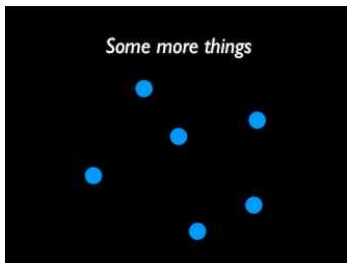
- Ausstage는 모든 데이터 유형과의 관계를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는 1930년대 야코브 레비 모레노(Jacob L. Moreno)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개별 창작자와 공연과의 관계 및 창작자와 창작자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 Ausstag는 Contributors 사이의 관계 160만 개를 생성하였으며, 개별 Contributor는 평균 4단계 안에서 서로 링크되어 있음을 발견함
- Ausstage의 네트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음: 누가(Contributor) 누구(Contributor)와 관계가 있는지? 공연과 공연 사이의 관계와 특정 인물이 Event에 관련한 시기를 시각화하고 있음



Networks show the relations between things.

Here is something – it could be a person, an event, a book... or anything you 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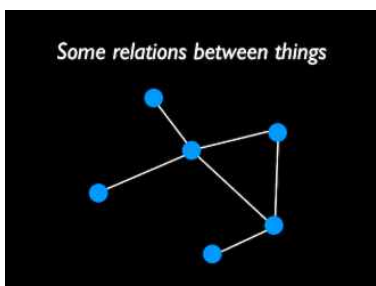
Ausstage, Network-1



Here are some more things.

The things that make up a network are referred to as nodes; nodes are also sometimes called vertices or points.

Ausstage, Network-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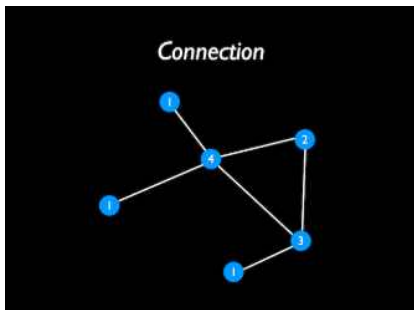


Here are some relations between things.

The relations in a network graph are referred to as links; links are sometimes called edges or lines.

Ausstage, Network-3

- Ausstage의 네트워크는 Event, Contrubutor, Resource를 하나의 '점(노드)'로 파악하고, 서로 관련 있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링크(엣지)'로 구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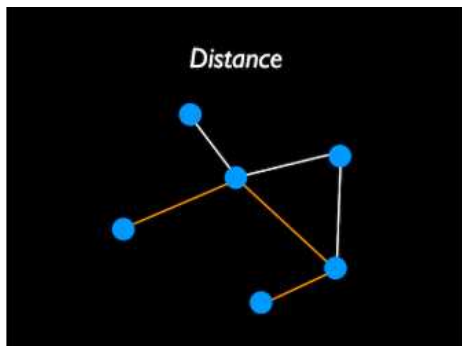


How many relations does each thing have?

The number of links that a node has with other nodes is called 'degree of connection'.

Ausstage, Network-4

- Ausstage의 노드와 노드의 연결 빈도는 'degree'로 표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노드는 연결된 노드가 많은 중심 노드의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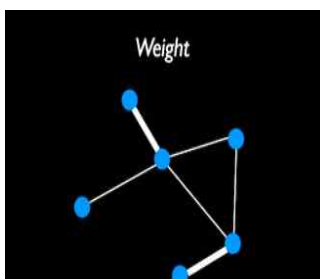


How far from one node to another?

The number of links between one node and another is called 'distance'.

Ausstage, Network-5

- Ausstage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를 'distance'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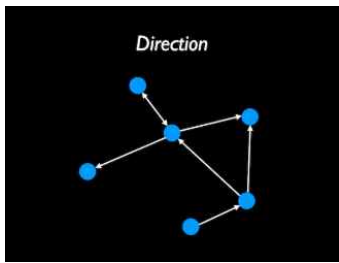


How strong is the connection between things?

The strength of the link is called the 'weight'. Weight can represent the strength, intensity, frequency or duration of relations.

Ausstage, Network-6

- Ausstage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빈도는 'weight'라고 하며,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 빈도나 지속 시간을 선의 두께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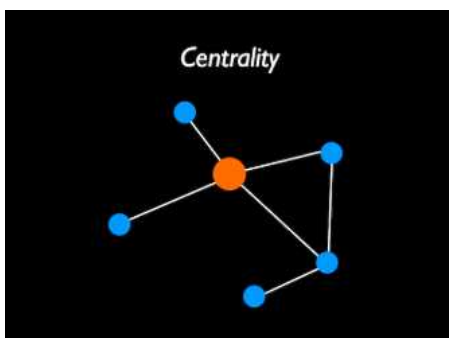


In what direction does the relation go?

Is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 one-way, like unrequited love? Or does it go both two-ways, like mutual admiration?

Ausstage, Network-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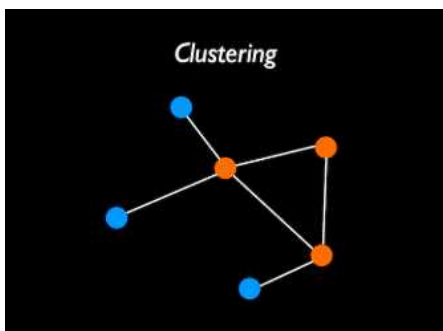
○ Ausstage의 엣지는 한 방향, 양방향으로 표현됨



Where in the network – at the centre or the edge?

This is called 'centrality' and there are several different ways to measure it.

Ausstage, Network-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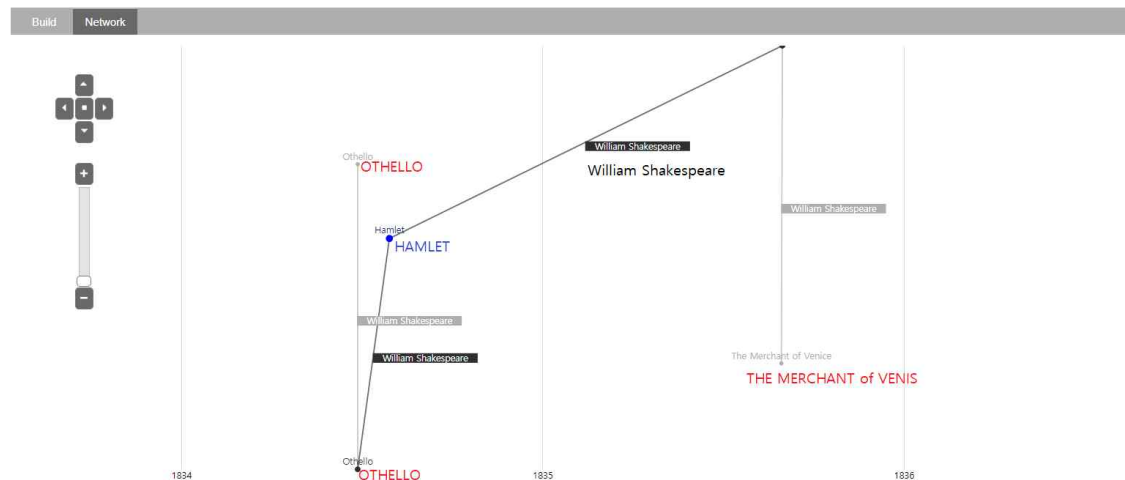


Do some things go together?

Things that are joined more to each other than to other things form 'clu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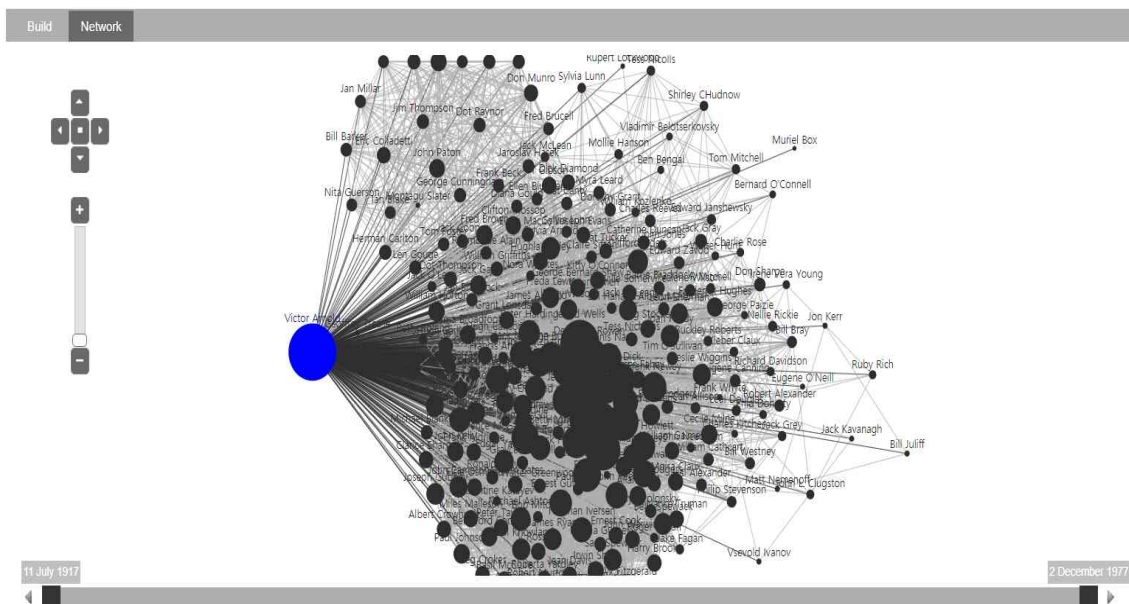
Ausstage, Network-9

○ 다수의 관계로 연결된 노드를 'Cluster'라고 함



Ausstage, Network-HAMLET

- Ausstage에 의하면 호주에서 처음 공연된 햄릿은 1834년 8월 18일이며, 이 공연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위의 그림과 같은데, 하단에 공연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햄릿과 오델로, 베니스의 상인이 Contributor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의해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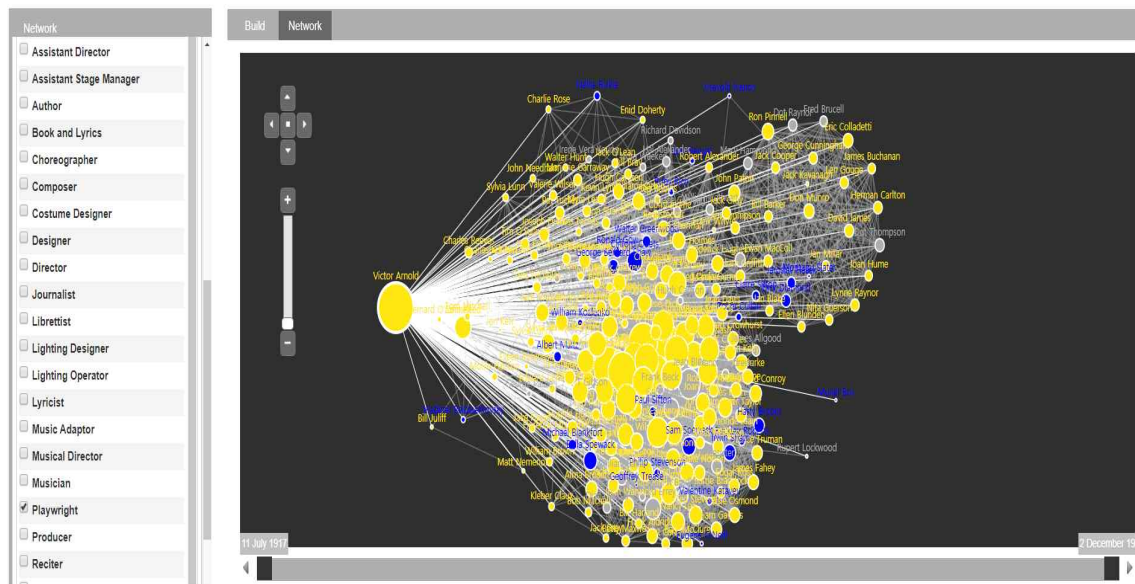


Ausstage, Network-Victor Arnold-1

- Victor Arnold에 대한 네트워크에 의하면, 그는 1917년 7월 11일 처음으로 공연에 참여했고 1977년 12월 2일 공연 활동을 종료함. 이는 위의 그림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시간대를 나타내는 하단 막대 사이를 좁히면 기간별 Victor Arnold가 협업한 창작자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위의 그림에서 푸른색 큰 원이 Victor Arnold임. 그를 중심으로 협업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원의 사이즈가 큼

- Victor Arnold는 229명의 Contributors와 연결되어 있고, 해당 엣지는 4452개, 이들 사이 협업의 개수는 7102개임
- 그 외에 Victor Arnold와 연결된 Contributor의 역할, 성별, 국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볼 수 있음. 아래의 그림은 Victor Arnold와 협업한 사람 중 작가만 볼 수 있도록 체크한 것인데, 왼쪽의 박스에서 작가를 체크하면 네트워크 그래프 상에서 파란색 원으로 보이는 것이 작가임. 원의 크기가 클수록 협업 빈도수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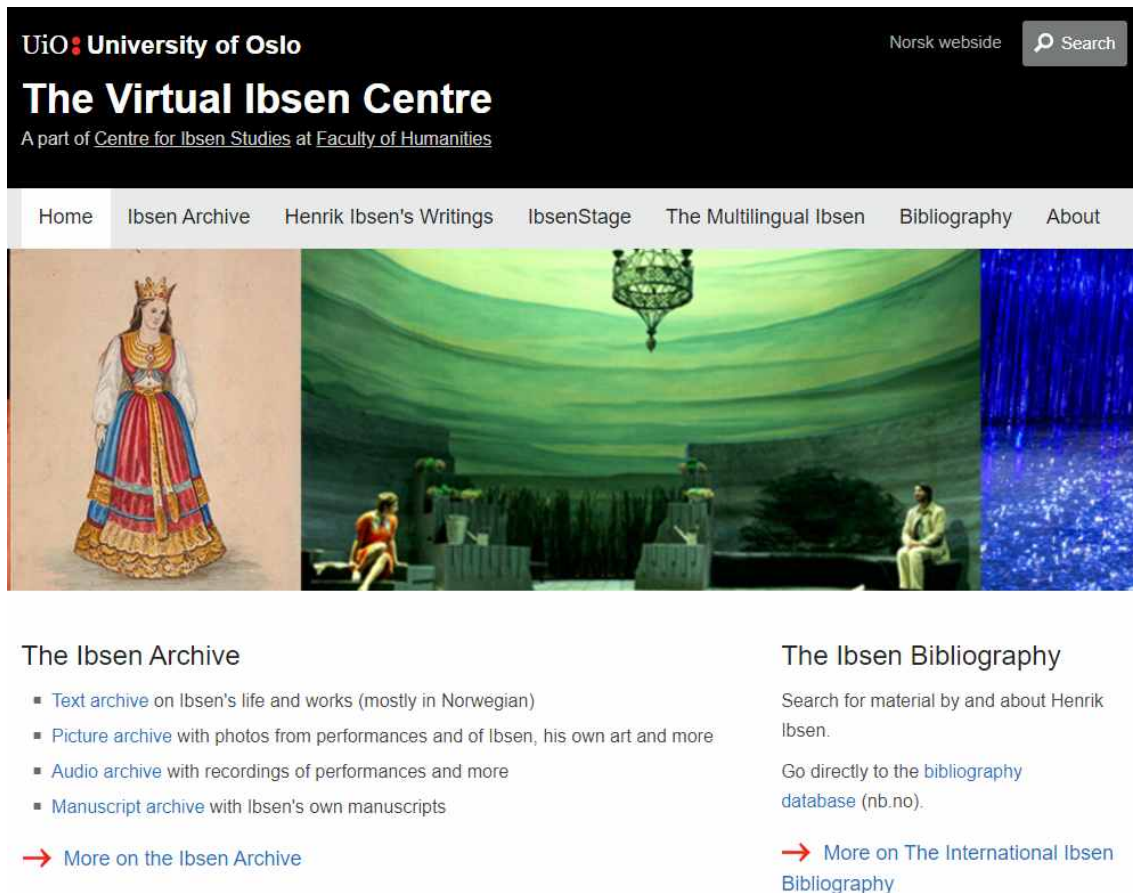
Ausstage, Network-Victor Arnold-2

4) 그 외 기능

- Ausstage에는 데이터 유형별로 Export, map, feedback, 프린트 기능이 있으며, Export의 경우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관계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음. map은 지리정보가 있는 경우 지도에 관련 지역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으며, 피드백의 경우 각 데이터별로 마련되어 있어 개별 데이터별 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음.

다. 노르웨이, The Virtual Ibsen Centre

-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입센 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입센에 대한 종합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임. Ibsen Archive, Henrik Ibsen's Writings, IbsenStage, The Multilingual Ibsen, Bibliography로 구성됨



The Virtual Ibsen Centre - Main

1) The Ibsen Archive

- The Ibsen Archive는 텍스트 아카이브, 사진 아카이브, 오디오 아카이브, 대본 아카이브로 구성됨
- 입센의 삶과 작품에 관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아카이브는 영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헝가리아어 등으로 번역된 입센의 작품과 그의 삶에 관한 글, 리뷰, 서신과 온라인 에디션을 볼 수 있음

The Virtual Ibsen Centre

A part of Centre for Ibsen Studies at Faculty of Humanities

[Home](#) [Ibsen Archive](#) [Henrik Ibsen's Writings](#) [IbsenStage](#) [The Multilingual Ibsen](#) [Bibliography](#) [About](#)

[Ibsen Archive](#)

[Text Archive](#)

[Translations](#)

■ [persian](#)

Translations of Ibsen's works

In [The Multilingual Ibsen](#) you can read translations side by side with the norwegian original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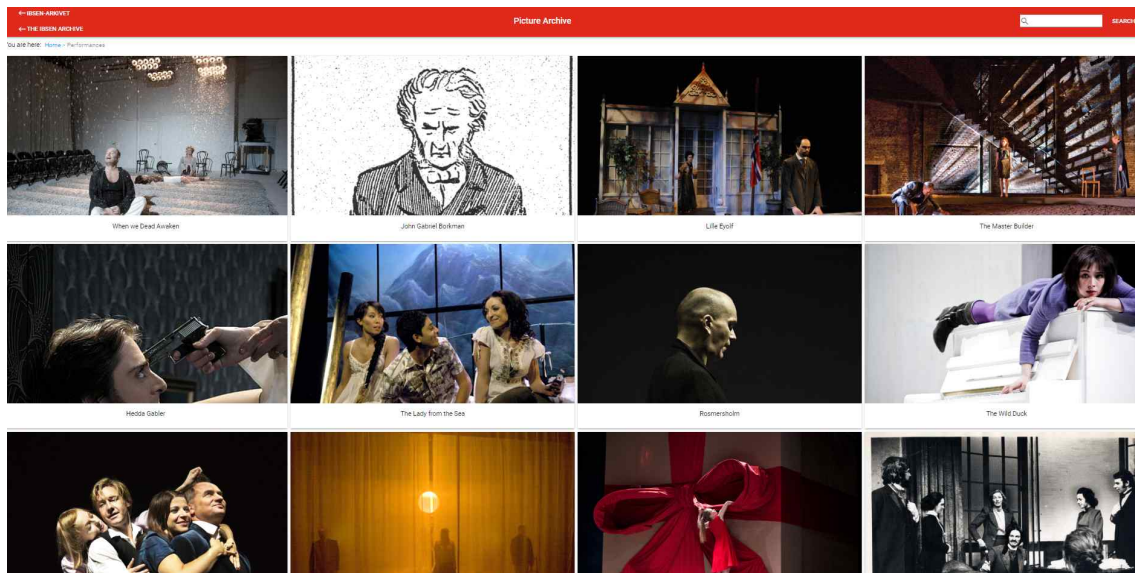
Below you find links to other translations of Ibsen's works in several languages.

[English](#)
[Esperanto](#)
[Finnish](#)
[French](#)
[Dutch](#)
[Persian](#)
[Russian](#)
[Swedish](#)
[German](#)
[Hunga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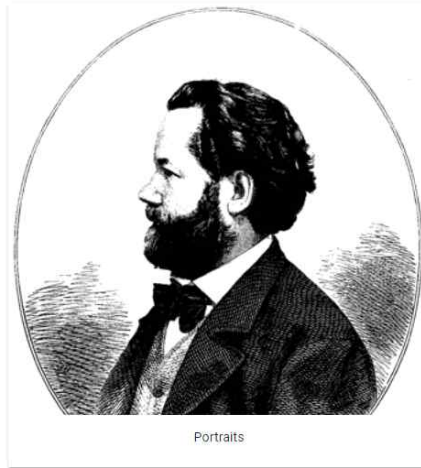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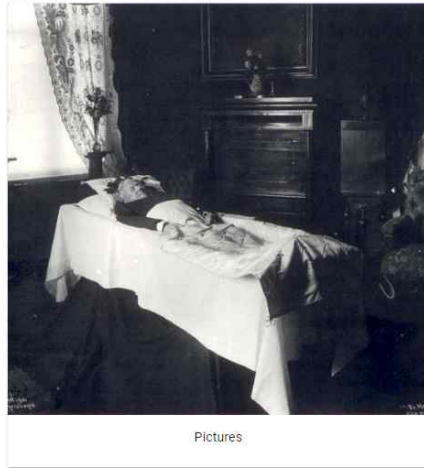
Published May 3, 2018 11:29 AM - Last modified Mar. 19, 2020 11:20 AM

The Virtual Ibsen Centre - Text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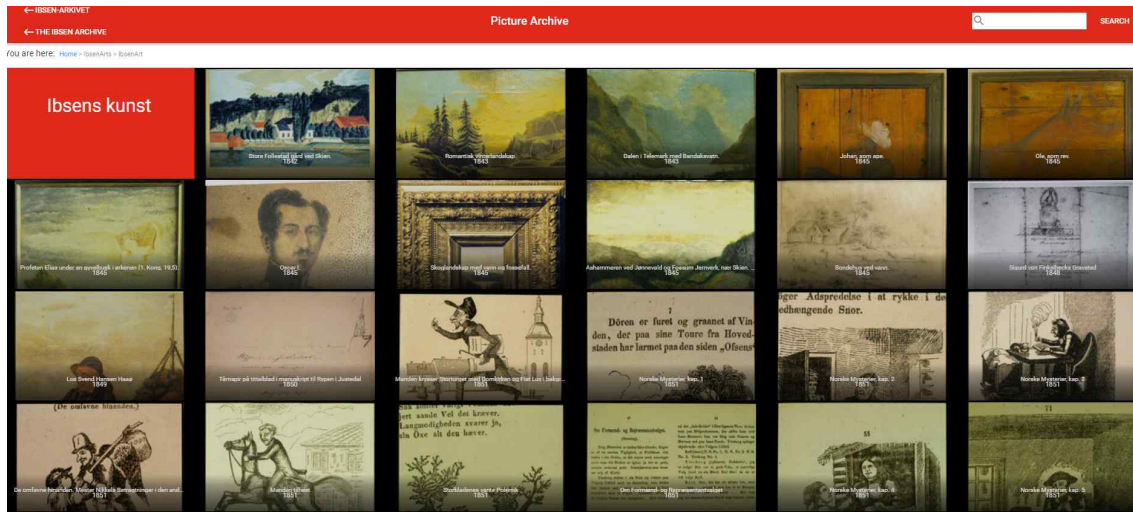
- 사진 아카이브는 이븐의 공연 사진과 초상화, 이븐의 아트웍(그가 그린 그림 중심), 그의 캐리커처로 구성됨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1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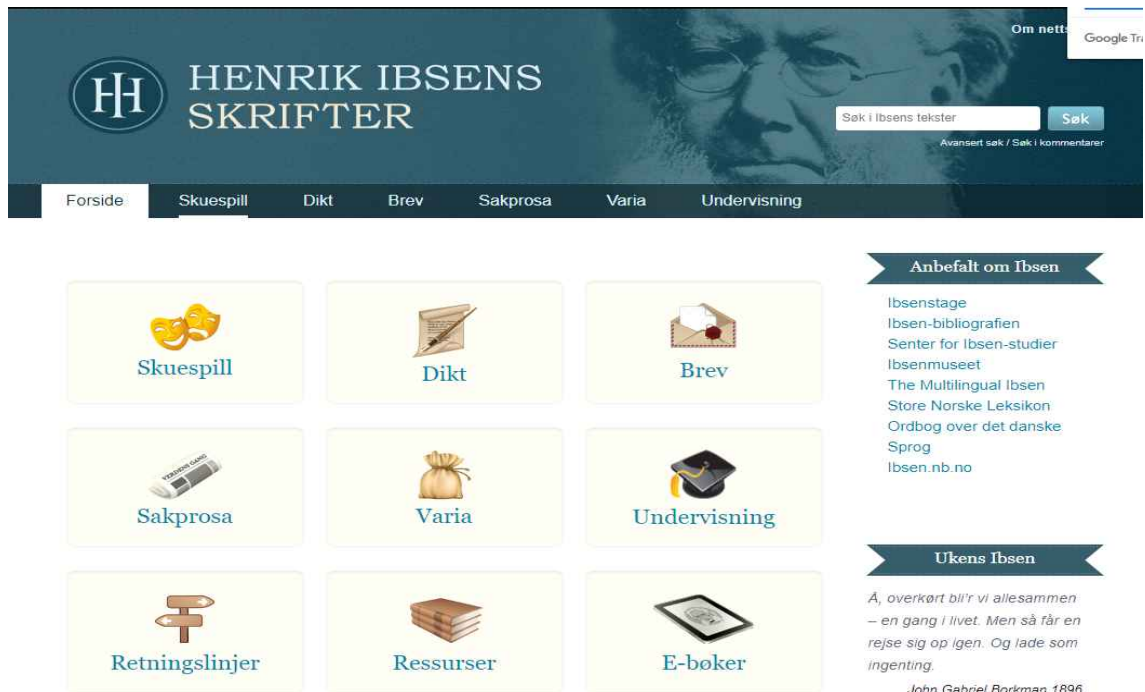


The Virtual Ibsen Centre - Picture Archive-3

- 입센 공연 영상과 그 외 오디오 자료들이 있는 오디오 아카이브가 있으며, 대본을 서비스하는 대본 아카이브가 있음

2) Henrik Ibsen's Wri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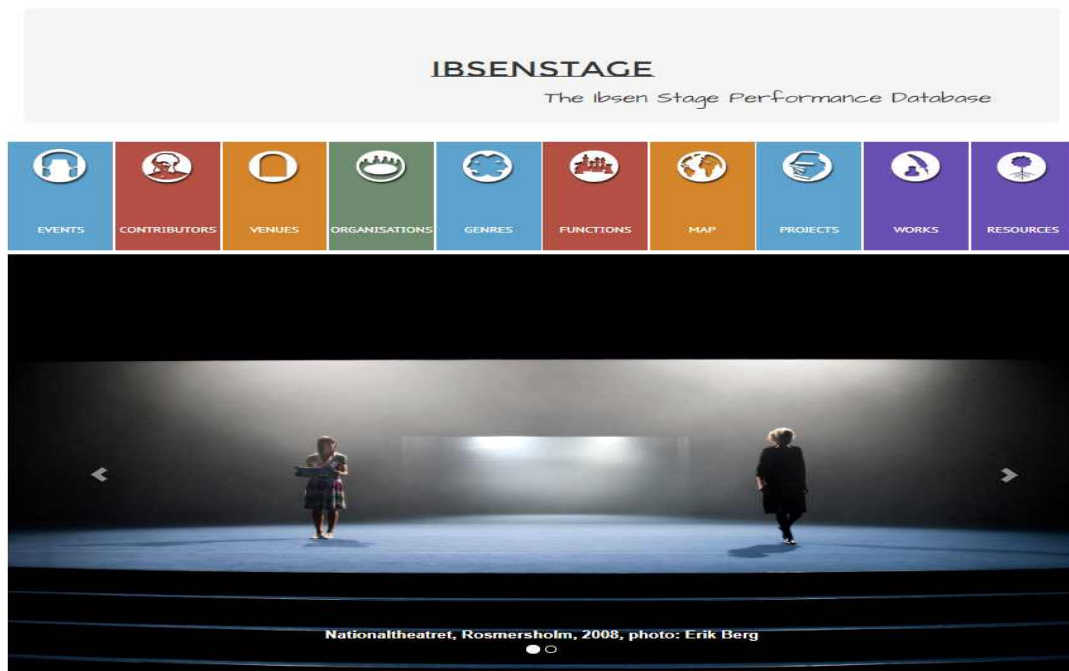
- 입센의 대본 초고, 시, 편지, 연설 및 기사 등의 자료를 노르웨이어로 제공하고 있음



The Virtual Ibsen Centre - Henrik Ibsen's Writings

3) IbsenStage

- 호주의 AusStage와의 협업으로 구축된 입센 스테이지는 각 데이터들의 관계성 속에서 구현되며, 입센 연극에 대한 20,000개 이상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음



The Virtual Ibsen Centre - Ibsen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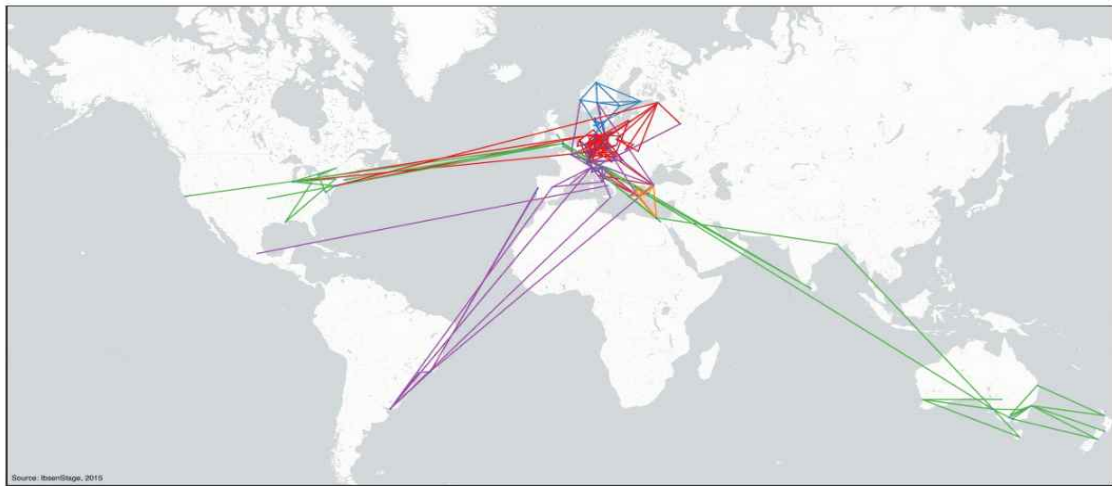
- Events, Contributors, Venues, Organizations, Genres, Functions, Maps, Projects, Works, Resources의 데이터 유형이 있음
- Ausstage와 다른 점은 Projects가 있어서, IbsenStage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이를 다시 IbsenStage로 환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인형의 집'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연구 결과임

Global Tours

The First Global Expansio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and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fourteen major European theatre companies toured the play internationally. These tours covered thirty-five countries and five continents. The play was performed in eleven languages. The artists' trajectories are marked on this map start with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play in 1879 and continue until 1930. However, the major years of global expansion fall between 1889 and 1916.

This map shows the trajectories of the following artists from 1879 to 1930: Agnes Sorma (427367), Thessa Kinkhammer (439040), Irene Triesch (427219), Auguste Prach Grevenberg (437638), Lilli Petri (432284), Gabriela Zapolska (434385), Johanne Dybwad (428957), Berly Hennings (427226), Janet Achurch (427547), Alla Nazimova (427384), Suzanne Després (428830), Teresa Mariani (441260), Teresa-Mariani Zampieri (434718), Emma Gramatica (429579), Eleonora Duse (428954), Lucinda Simões (433221), Kyveli Adrianou (448958), Bépa-Béropopona Komwacapi-Essikan (449852), and Matsui Sumako (431469).



The Virtual Ibsen Centre - 인형의 집 세계 투어

4) The Multilingual Ibsen

Hedda Gabler

Hedda Gabler

- ▼ Title
- ▼ Dramatis personae
- ▼ Stage
- ▼ ACT I
- ▼ ACT II
- ▼ ACT III
- ▼ ACT IV
- Back to library

Sentence by sentence view
Continuous text view
View in admin

Hedda Gabler

[Go to the first sentence...](#)

[Go to the full text...](#)

Contents

1. Introductions by authors/translators
2. in German
3. in English
4. in Chinese
5. Bibliography
6. Credits

Introductions by authors/translators:

in German

Anmerkungen: Die deutsche Orthographie entspricht der Originalübersetzung.

in English

Archer (1909: vii-xxxii):

INTRODUCTION.

From Munich, on June 29, 1890, Ibsen wrote to the Swedish poet, Count Carl Solisky: "Our intention has all along been to spend the summer in the Tyrol again. But circumstances are against our doing so. I am at present engaged upon a new dramatic work, which for several reasons has made very slow progress, and I do not leave Munich until I can take with me the completed first draft. There is little or no prospect of my being able to complete it in July." Ibsen did not leave Munich at all that season. On October 20 he wrote: "At present I am utterly engrossed in a new play. Not one leisure hour have I had for several months." Three weeks later (November 20) he wrote to his French translator, Count Prezer: "My new play is finished, the manuscript went off to Copenhagen the day before yesterday... It produces a curious feeling of exultation to be thus suddenly separated from a work which has occupied one's time and thoughts for several months, to the exclusion of all else. But it is a good thing, too, to have done with it. The constant intercourse with the fictitious personages was beginning to make me quite nervous." To the same correspondent he wrote on December 4: "The title of the play is *Hedda Gabler*. My intention in giving it this name was to indicate that Hedda, as a personality, is to be regarded rather as her father's daughter than as her husband's wife. It was not my desire to deal in this play with so-called problems. What I principally wanted to do was to depict human beings, human emotions, and human destinies, upon a groundwork of certain of the social conditions and principles of the present day."

So far we read the history of the play in the official "Correspondence" (1) Some interesting glimpses into the poet's mood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completion of *The Lady from the Sea* and the publication of *Hedda Gabler* are to be found in the series of letters to Frau Emma Barlach, of Vienna, published by Dr. George Brandes (2) This young lady, Ibsen met at Gossensass in the Tyrol in the autumn of 1889. The record of their brief friendship belongs to the history of *The Master Builder* rather than to that of *Hedda Gabler*, but the allusions to his work in his letters to her during the winter of 1889 demand some examination.

So early as October 7, 1889, he writes to her: "A new poem begins to dawn in me. I will execute it this winter, and try to transfer to it the bright atmosphere of the summer. But I feel that it will end in sadness—such is my nature." Was this "dawning" poem *Hedda Gabler*? Or was it rather *The Master Builder* that was germinating in his mind? Who shall say? The latter hypothesis seems the more probable, for it is hard to believe that at any stage in the incubation of *Hedda Gabler* he can have conceived it as even beginning in gaiety. A week later, however, he appears to have made up his mind that the time had not come for the poetic utilisation of his recent experiences. He writes on October 15: "Here I sit as usual at my writing-table. Now I would fain work, but am unable to. My fancy,

The Virtual Ibsen Centre - Hedda Gabler

○ 입센 작품의 같은 장면을 노르웨이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Sentence by sentence view	Continuous text view	View in admin	
<p>HG Nor Ibsen (1890) line no 1,0 - 10 FORSTE AKT</p> <p>(Et mennesket, smalt og smagfuldt udstyret selkabsværelse, dekoreret i mørke farver. På bagvæggen er et bredt dørbue med tilhængende portierer. Denne åbning fører ind i et mindre værelse, der er holdt i samme stil som selkabsværelset. På væggen til højre i dette er en Rejstet, der fører ud til forstuen. På den modsatte væg, til venstre, en glæder, ligesom med tilhængende forhang. Gennem ruden ses en del af en udenfor liggende overbygget veranda og levtræer i høstfarve. Fremme på gulvet står et ovalt tæppebelagt bord med stole omkring. Foran på væggen til højre en bred, mørk porcelænssofa, en højrygget lænestol, en fodkammel med pude og to taburetter. Oppe i krogen til højre en hængende og et liden rundt bord. Foran til venstre, lidt ud fra væggen, en sofa. Ovenfor glæderne et piano. På begge sider af dørbuen i baggrunden står etager med vaser, kaffetø og engillånger. – Ved bagvæggen af det mindre værelse ses en sofa, et bord og et par stole. Over denne sofa hænger portretet af en ung kvinde i en generaluniform. Over bordet en hængende med nat, mørkefarvet glaskrøl. – Rundt om i selkabsværelset er en smule blomsterkratter stillet i vaser og glasse. Andre ligger på bordene. Gulvets i begge værelser er belagt med tykke tæpper. – Morgenbelysning. Solen skinner og gennem glæderne.)</p> <p>(Froken Juliane Tesman, med hat og parasol, kommer ind fra forstuen, fulgt af Berte, som bærer en buket, omvundet med papir. Froken Tesman er en godt og godtmodigt udseende dame på omkring 65 år. Net men enkelt klædt i grå spædsdragt. Berte er en pige lidt til års, med et jævnt og noget ladtigt ydre.)</p> <p>FROKEN TESMAN (stander indenfor døren, lytter og siger dæmpet) Nej såmæn om jeg tror de er kommet på benene endnu!</p> <p>BERTE (ligesom dæmpet) Det var jo det, jeg sa', froken. Tænk, – så sent, som dampbåden kom ind. Og så bagefter da! Josses, – alt det, som unge fru'en skulde ha' pakket ud, før hun kunde komme sig til ro.</p> <p>FROKEN TESMAN Ja, ja, – lad dem bare få hvile sig godt ud. Men frisk morgenluft skal de da rigtig ha' ind til sig, når de kommer.</p>	<p>HG Eng Archer (1891) ACT FIRST.</p> <p>A spacious, handsome, and tastefully furnished drawing room, decorated in dark colours. In the back, a wide doorway with curtains drawn back, leading into a smaller room decorated in the same style as the drawing-room. In the right-hand wall of the first room, a folding door leading out to the hall. In the opposite wall, on the left, a glass door, also with curtains drawn back. Through the panes can be seen part of a verandah outside, and trees covered with autumn foliage. An oval table, with a cover on it, and surrounded by chairs, stands well forward. In front, by the wall on the right, a wide stove of dark porcelain, a high-backed arm-chair, a cushioned foot-rest, and two footstools. A settee, with a small round table in front of it, fills the upper right-hand corner. In front, on the left, a little way from the wall, a sofa. Further back than the glass door, a piano. On either side of the doorway at the back a whatnot with ferns, cacti and magnolia ornaments. – Against the back wall of the inner room a sofa, with a table, and one or two chairs. Over the sofa hangs the portrait of a handsome elderly man in a General's uniform. Over the table a hanging lamp, with an opal glass shade. – A number of bouquets are arranged about the drawing-room, in vases and glasses. Others lie upon the tables. The floors in both rooms are covered with thick carpets. – Morning light. The sun shines in through the glass door.</p> <p>MISS JULIANA TESMAN, with her bonnet on a carrying a parasol, comes in from the hall, followed by BERTA, who carries a bouquet wrapped in paper. MISS TESMAN is a comely and pleasant-looking lady of about sixty-five. She is nicely but simply dressed in a grey walking-couture. BERTA is a middle-aged woman of plain and rather countryfied appearance.</p> <p>MISS TESMAN (Stops close to the door, listens, and says softly.) Upon my word, I don't believe they are stirring yet!</p> <p>BERTA (Also softly.) I told you so, Miss. Remember how late the steamboat got in last night. And then, when they got home! – good Lord, what a lot the young mistress had to unpack before she could get to bed.</p> <p>MISS TESMAN Well! well! – let them have their sleep out. But let us see that they get a good breath of the fresh morning air when they do appear.</p>	<p>HG Gert Klingenberg (1891) ERSTER AKT</p> <p>Ein geräumiges, elegant und geschmackvoll ausgestattetes Gesellschaftszimmer, in dunkeln Farben gehalten. An der Rückwand eine breite Thüröffnung mit zurückgeschlagener Portier. Dieser Ausgang führt in ein kleineres Zimmer, das in demselben Stil gehalten ist. An der rechten Wand des Gesellschaftszimmers ist eine Flügeltür, die in's Vorzimmer führt. Gegenüber, zur Linken, eine Glaskür, gleichfalls mit zurückgeschlagenem Vorhang; durch die Scheiben erblickt man einen Teil der außerhalb liegenden Veranda und herbstlich gefärbte Laubbäume. Im Vordergrund steht ein ovaler Tisch, mit einem Teppich bedeckt, und von Stühlen umgeben. Vor der rechten Wand ein breiter, dunkler Kachelofen, ein Lehnstuhl mit hoher Rückenlehne, ein Fußschemel mit Kissen und zwei Tabourets. Im Hintergrunde rechts in der Ecke ein Ecksofa und ein kleiner runder Tisch. Im Vordergrunde links, etwas von der Wand entfernt, ein Sofa. Bei der Glaskür ein Pianoforte. Zu beiden Seiten der Thüröffnung im Hintergrunde stehen Engländer mit Terracotta- und Majolika-Gegenständen. – An der Rückwand des inneren Zimmers sieht man ein Sofa mit Tisch und ein paar Stühle. Ueber diesem Sofa hängt das Porträt eines schönen ältern Mannes in Generaluniform. Ueber dem Tisch eine Hängelampe mit matter Milchglasur. Ringsum im Gesellschaftszimmer eine Menge von Blumensträußen in Vasen und Gläsern; einige liegen auf den Tischen. Beide Zimmer sind mit dicken Fußteppichen belegt. – Morgenbeleuchtung; die Sonne scheint durch die Glaskür.</p> <p>(Froken JULIANE TESMAN, mit Hut und Sonnenschirm, kommt durch das Vorzimmer; BERTe, die ein Bouquet trägt, folgt ihr. FRL. TESMAN ist eine Dame von ungefähr 65 Jahren, von angenehmem, gutwilligen Aussehen, einfach, doch sorgfältig in einen grauen Straßenanzug gekleidet. BERTe ist ein älteres Dienstmädchen von schlechtem, etwas ländlichem Aussehen.)</p> <p>FRL. TESMAN (bleibt innerhalb der Thür stehen, lauscht und sagt gedämpft) Ich glaube wahrhaftig, sie sind noch nicht auf den Beinen!</p> <p>BERTE (gleichfalls gedämpft) Das sagte ich ja, Fräulein. Denken Sie nur, wie spät das Dampfschiff heut Nacht ankam! Und all die Wirtschaft danach! Du meine Güte! Alles, was die junge Frau noch auszupacken hatte, bis sie zur Ruhe kam!</p> <p>FRL. TESMAN Ja, ja – mögen sie sich nur recht gut ausruhen! Doch frische Morgenluft sollen sie haben, wenn sie kommen. (Sie geht zur</p>	<p>HG Ch 曹慕夷 (1928) 第一幕</p> <p>(一間寬敞壯麗、陳設雅緻、色調深沉的客厅。後面有一個敞開了窗戶的寬門洞。通到一間跟客厅氣派相同但比較小些的寢室。客厅右牆壁的两面會夾門。通到外間門厅。對面牆壁。靠右有一個玻璃門。窗戶也是敞開的。從玻璃門望出去可以看見外面花園的一部分和滿綴秋葉的樹木。一張橢圓桌子置於前邊，上面擺着花瓶，四周围着椅子。靠近右牆的前方，有一張寬闊的軟墊火爐。一把高背扶手椅，一只軟面腳凳，兩個沙發。右前右角斜擺着一把長寬椅。椅子前面有一張小圓桌。前面左邊，靠爐不遠，有一張沙發。玻璃門更寬些，有一架鋼琴。后邊門洞兩旁，各有一張什錦椅子，架上面擺着一些意大利陶器小摆设玩意儿。靠牆壁后邊，有一張沙發，一張桌子，一兩把椅子。沙發后面牆上挂着一幅相親英俊，穿着將軍制服，中年以上的人的肖像。桌子上頭挂着一只吊燈，罩着乳色玻璃罩。客厅的地板和玻璃椅基都鋪滿了成花的鮮花。還有幾花兒分擺在那几張桌子上。兩間屋子都鋪着厚厚的地毯。晨光。太陽透過玻璃門照進來。)</p> <p>(朱麗安·奧斯曼小姐戴着帽子，拿着阳伞，从門厅里進來。伯特手裏拿着一把用紙裹的鮮花，跟在後面。奧斯曼小姐是个和蔼可亲，六十五岁左右的文夫人。她穿一件灰色出門作客的衣服，朴素雅潔。伯特是个相貌平常，帶点土气的中年女人。)</p> <p>奧斯曼小姐 (靠近門口站定，听了一听，低声说) 真是，他们还没起来呢！</p> <p>伯特 (也低声地) 我跟您说过了，小姐。您想，昨晚晚上轮船到得多晚。这还不说，他们到了家---哎呀！那位新夫人又不见打开多少东西才能睡觉。</p> <p>奧斯曼小姐 好，好，让他们睡个够吧。可是他们回头进屋的时候，应该让他们吸点清早的新鲜空气。</p>

The Virtual Ibsen Centre – Multilingual Ibsen

라. ECLAP(EUROPEAN COLLECTED LIBRARY OF ARTISTIC PERFORMANCE)

ECLAP 메인 화면

- ECLAP 는 유럽 공연 예술 문화의 진흥과 연구 및 학습 향상을 위해 유럽 연합 ICT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공동 자금 지원 프로젝트로 시작함. 유럽 전역에 존재하는 공연 예술 기관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연 예술 기관의 자원이 디지털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함
- ECLAP 는 유럽의 주요 공연 예술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접할 수 없었던 콘텐츠를 통합함. ECLAP 는 극장, 무용, 음악, 영화 및 영화에서 나오는 공연 예술 자료와 공연, 수업, 마스터 클래스, 교재 등을 이미지, 비디오, 문서, 오디오, 전자책,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재생 목록, 컬렉션, 3D, 점자 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함. 현재 175,000 개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각 콘텐츠는 1,000,000 개 이상의 관련 요소들과 함께 제공됨
- ECLAP 는 콘텐츠, 창작자, 컬렉션, 주석과 그룹 등의 의미적(시맨틱)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현하고 있음. 특정 콘텐츠를 둘러싼 의미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됨

Promotional trailer for the performance Alice

METADATA

Metadata languages

Title
Promotional trailer for the performance Alice

Creator
The Slovene National Theatre Nova Gorica

First performance date
2005-10-20

Contributors

Classification

IPR information

Performance information

Technical

Location

Subject
theatre performance

Description
An unusual lyrical musical about a magical dream journey.

Group
Muzeum, Institute of Art Production, Mediation and Publishing, Ljubljana, Slovenia

Provider
MUZEUM

Short url
<http://www.eclap.eu/96121>

ECLAP 동영상 오브제

- 콘텐츠의 구분은 목록 형태인 Featured, 인기있는 콘텐츠를 모아놓은 Popular, 기간 별 인기 콘텐츠 Popular in Period, 최근 포스팅 된 것 Last Posted, 가장 많이 본 콘텐츠 Top Rated, 콘텐츠의 소장처를 구글 맵으로 표기한 Location, 시대별 콘텐츠 수량 및 콘텐츠 유형을 정리해 놓은 Timeline 으로 구성됨

any types
deep search

register

HOME ABOUT CONTENT COMMUNITY SEARCH SERVICES EVENTS HOWTO

Log in/Create account

Map
Satellite

CONTENT

- Featured
- Popular
- Popular in the period
- Last Posted
- Top Rated
- Location
- Timeline

CLAS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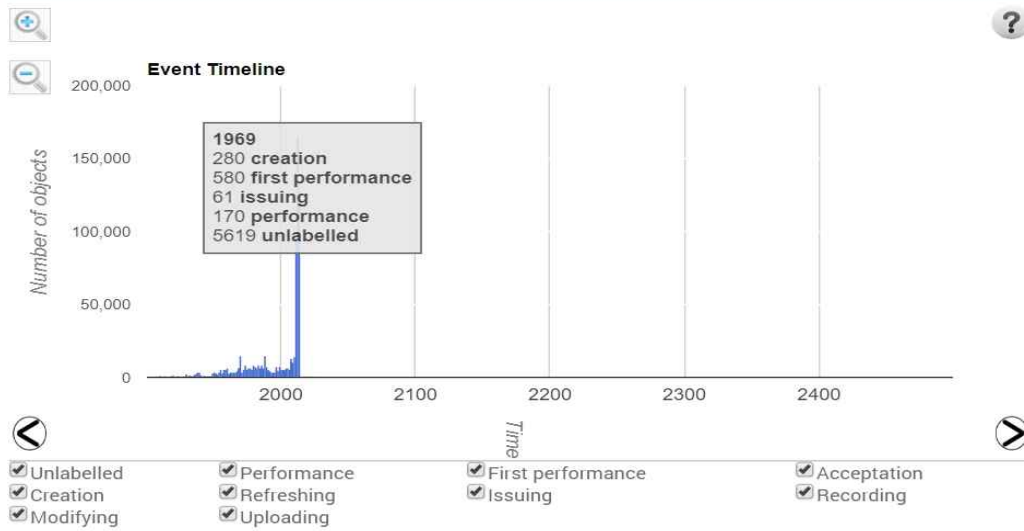
List of Terms

- Genre (717)
- Historical period (4276)
- Management and organisation (8412)
- Movements and Styles (29)
- Performing Arts (70671)
- Professionals (1969)
- Subject (3889)

THEMATIC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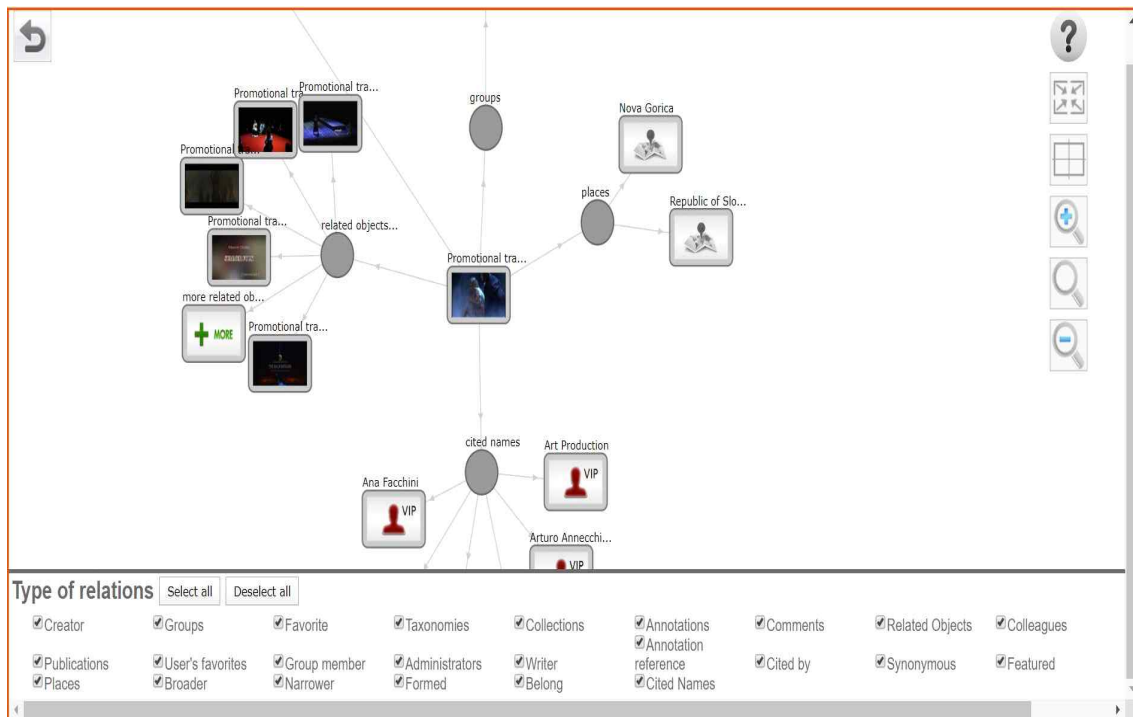
ECLAP Location 지도 정보

TIM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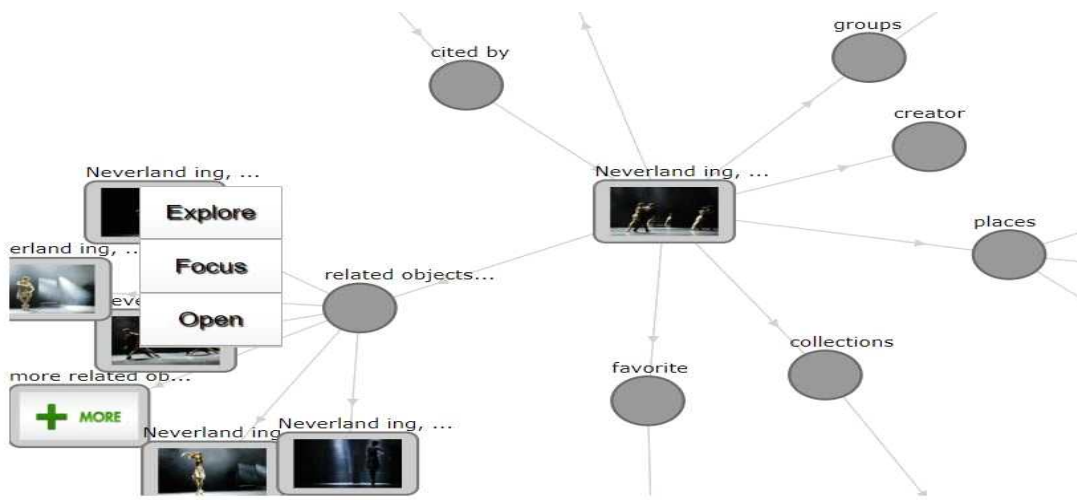


ECLAP Timeline

- 각 콘텐츠는 장르, 시대별, 콘텐츠 관리 기관, 문화사조, 공연 예술 분류, 공연 예술 전문 역할 구분, 주제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ECLAP의 콘텐츠 메타데이터는 Performing arts metadata, DC(Dublin Core), DCTERMS Technical metadata로 구성됨. Performing arts metadata는 공연 예술에 특화된 메타데이터로 초연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임. DC와 DCTERMS의 경우 제목, 창작자, 공여자 등 일반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임. Technical metadata는 콘텐츠의 기술적 정보를 기술할 수 있음



ECLAP Social Graph-1



ECLAP Social Graph-2

- ECLAP 는 각 콘텐츠별 소셜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음. 그래프는 해당 콘텐츠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됨. 또한 특정 콘텐츠 중심으로 타 콘텐츠와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3.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검토 결과

□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 2009-2019년까지의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연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료 ‘컬렉션’ 형태의 아카이브를 지양함. 아카이브의 핵심이 되는 공연 목록과 창작자, 자료, 이외 개념 정보 등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함
- 한국영상자료원의 KMDB는 국내 영화 자료와 정보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국가적인 영화 자료 보존소인 만큼 한국영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축적, 서비스하고 있음
- AusStage, IbsenStage의 경우 공연 예술에 특화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중심이 자료가 아닌 ‘공연’에 있음. 공연을 중심으로 창작자, 희곡, 주제, 장르, 자원, 지도, 역할, 전시 등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음.

□ 분산된 공연 자료를 통합

- AusStage, IbsenStages는 공연 자료를 보존, 소장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들의 목적은 분산된 공연 자료들을 특정한 목적(호주의 공연예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목적이나 입센 아카이브라는 주제로 특화된)에 따라 조사하고, 그 위치를 밝혀주는 것임, 해당 자료들은 공연 정보와의 관련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임. 공연 자료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될 경우 URL을 제공함

□ 의미 전달의 아카이브

- AusStage, IbsenStages, ECLAP는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음. 연구에 기반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는 축적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
- AusStage, IbsenStages는 주제, 장르, 역할 데이터 외에 공연과 창작자, 창작자와 창작자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함
- IbsenStage는 특정 공연의 세계 투어에 관한 내용을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이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 구조임
- ECLA의 경우 유럽 공연예술 박물관과 아카이브 기관에서 소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 자료와 자료의 맥락 정보를 네트워크로 구현하여,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소장 자료와 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임

III.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목적 및 데이터 수량

가. 지향점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2009-2020년까지의 활동과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시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자료 아카이빙을 하는 것보다 자료의 문맥을 해석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공연에 접근하는 여러 개의 루트를 제공할 예정
-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⁸⁾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구현됨
- 개별 데이터와의 관계는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 네트워크 그래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지식과 자료가 확장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음

8) '온톨로지'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 기술 체계이다. 원래 온톨로지라는 말은 철학에서 '존재론'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로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의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그러한 용어가 정보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과 컴퓨터가 정보화 대상(콘텐츠)을 이해하는 틀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틀은 바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이다.[1]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정보화의 틀이 다 온톨로지일 수 있겠지만, 대상 자원을 '클래스'(class)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individuals)들이 공통의 '속성'(attribute)을 갖도록 하고, 그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relation)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온톨로지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C%9D%B8%EB%AC%B8%EC%A0%95%EB%B3%B4%ED%95%99_%EC%98%A8%ED%86%A8%EB%A1%9C%EC%A7%80_%EC%84%A4%EA%B3%84_%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 2020.05.15)

나. 자료 및 정보 수량

표 21 남산예술센터 공연 자료 및 정보 현황

유형		수량	설명
공연 자료		약 3만건	2009-2020년까지의 공연 자료(사진, 프로그램북, 리플렛, 포스터, 대본, 연습일지, 연구자료 등)
이벤트	공연	약 300건	공연과 학술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 포함
	행사		
작품		약 200건	공연에서 구현된 개별 작품 정보
참여진	인물	약 3700건	공연 창작에 참여한 인물 및 단체
	단체		
공간	실제	약 100건	공간 활동이 일어난 공간
	가상		
학술/보도		약 500건	외부에서 생산된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평가, 비평, 연구 자료 등
개념	주제	약 1000건	공연에 적용된 키워드 정보
	소재		
사건		약 200건	남산예술센터와 공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
계		약 39,300건	

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 남산예술센터의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의미 관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 구현됨
-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클래스로 구분되고, 클래스 사이의 관계는 관계 데이터로 표현됨
- 온톨로지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시맨틱 데이터라고 함. 시맨틱 데이터의 구성은 Domain 클래스와 해당 클래스의 범주인 Range,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Relation으로 구현됨⁹⁾

9)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남산예술센터 데이터 모델은 클래스 정의 및 온톨로지 설계의 일부에 해당함. 온톨로지 설계의 경우 데이터 구축 병행되어 완성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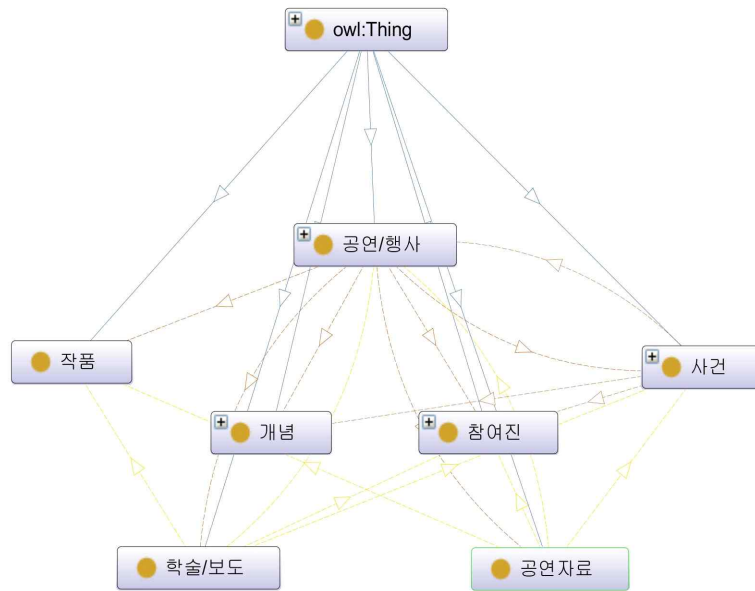
1) 클래스 설계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표 2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클래스

클래스	서브 클래스	설명
공연 자료		2009-2020년까지의 공연 자료(사진, 프로그램북, 리플렛, 포스터, 대본, 연습일지, 연구자료 등)
공연/활동	공연	공연과 학술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 포함
	행사	
작품		공연에서 구현된 개별 작품 정보
참여진	인물	공연 창작에 참여한 인물 및 단체
	단체	
공간		공간 활동이 일어난 공간
학술/보도		외부에서 생산된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평가, 비평, 연구 자료 등
주제/소재	주제	공연에 적용된 키워드 정보
	소재	
사건		남산예술센터와 공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개념도

(1) 공연 모델

○ 공연과 그 외 활동에 대한 모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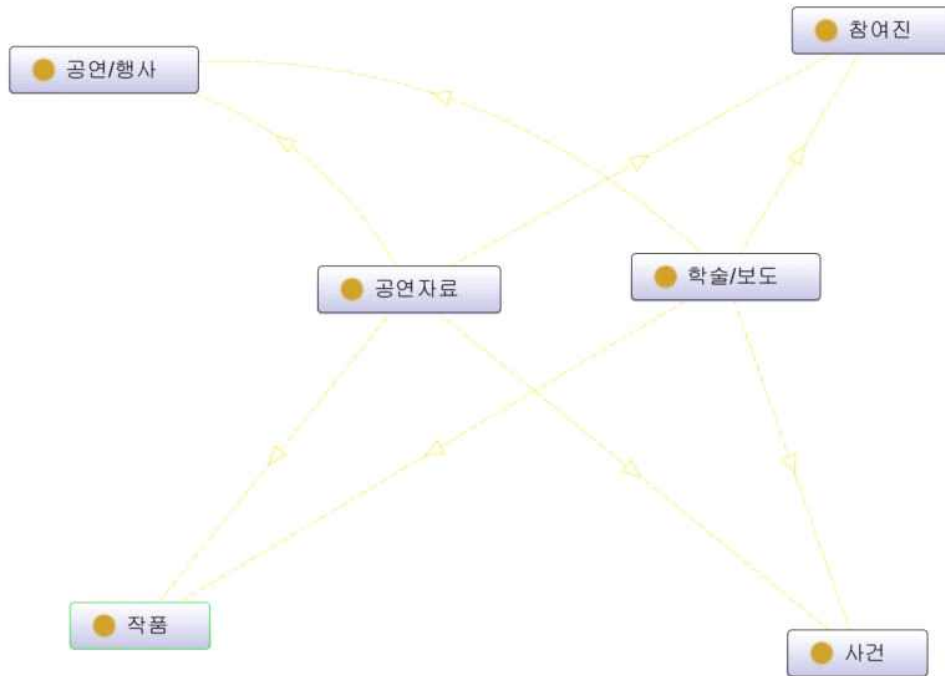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 -공연모델-

표 23 공연 모델

Domain	Relation	Range
공연/활동	Creator	참여진
공연/활동	isBasedOn	작품
공연/활동	Subject Genre	개념
공연/활동	Reference Press Review Critic	학술/보도
공연/활동	Event	사건
공연/활동	isRelatedTo	공연/활동

(2) 기록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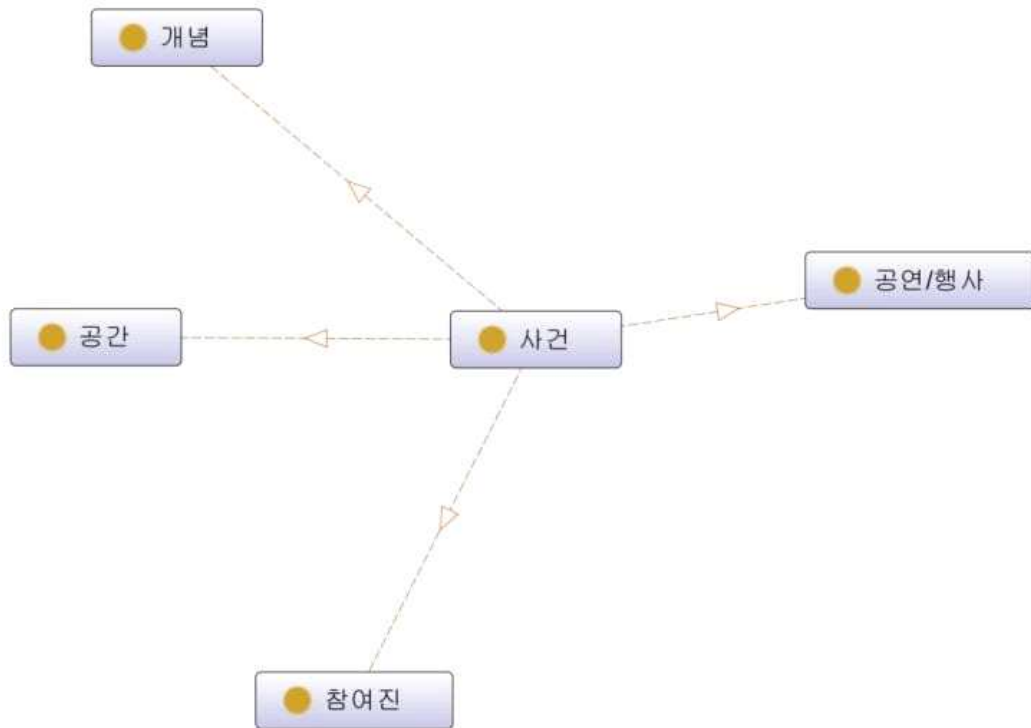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 모델-

표 24 기록물 모델

Domain	Relation	Range
공연자료	isDocumentOf isProgramBookOf isPosterOf isPhotoOf . . .	공연/행사 참여진 사건 작품
학술/보도	isCriticOf isReviewOf isRefOf . . .	공연/행사 작품 참여진 사건

(3) 사건 모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사건 모델-

표 25 사건 모델

Domain	Relation	Range
사건	isRelatedTo	공연/행사
사건	isHeppendAt	공간
사건	isRelatedTo	참여진
사건	hasConcept	개념
	hasSubject	

라.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공연을 대상으로 하여 샘플 아카이브를 제작함

1) 공연/행사¹⁰⁾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공연 정보

추진경과

날짜	내용
2017년 12월 3일	2018 시즌 공동제작 공모 선정
2018년 1월 17일	시즌 프로그램 기자간담회 개최
4~6월	프리-프로덕션 - 공옥진 병신춤 관련 자료 리서치 및 전문가 프리-프로덕션 자문
6월	출연진 및 제작 스태프 캐스팅
7월 3일~8월 10일	병신춤 활용한 한국춤작품 워크숍 진행 (4주간)
6월 25일	공연 연습 시작
8월	홍보를 제작, 홍보마케팅 방향 논의
8월 21일~9월 14일	한국무용 기본기 워크숍 진행 (4주간)
8월 22일	조기예매 티켓 오픈, 홍보촬영 진행
8월 9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9월 3일	2018 서울아트마켓 링크(PAMS Link) 선정
9월 7일	일반예매 티켓 오픈, 티저 홍보영상 공개
9월 18일	기술스튜디오의 진행
9월 19일	공연 보도자료 배포
9월 25일~26일	극장 무대연습
9월 27일~10월 3일	무대셋업 및 리허설 진행
10월 4일~14일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초연 / 남산예술센터
10월 6일	관객과의 대화 진행
10월 7일~12일	링크(PAMS Link) 진행 - 참여 엘리베이터 초청 및 음대
10월 19일~20일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투어 / 베세토퍼스티벌
12월 27일	<평가회의-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평가회의 진행
12월 28일	공동제작사 공연수입금 분배 완료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0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2018.10.04. - 10.14. 공연 / 행사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남산예술센터

공연/행사명

시작일

종료일

유형

장르

공연회차

소요시간

관람연령

총관객수

티켓가격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2018)

2018.10.04

2018.10.14

시즌 프로그램

창작극

10회

75분

만 13세 (중학생) 이상 관람가

1,228명

일반 30,000원 / 청소년 18,000원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 기본정보-

- 기본 정보 : 사진, 사진출처, 공연/행사명, 다른제목/부제, 영문표기, 한자표기, 외국어표기, 시작일, 종료일, 유형, 장르, 회차, 소요시간, 관람연령, 총관객수, 티켓가격

10)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9D%B4%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4%EC%9D%98_%E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_%EB%B3%91%EC%8B%A0%EC%B6%A4_%ED%8E%B8\(2018\)](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9D%B4%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4%EC%9D%98_%E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_%EB%B3%91%EC%8B%A0%EC%B6%A4_%ED%8E%B8(2018))). 2020.05.28.)

○ 상세정보 : 설명, 수상내역

○ 관계정보 : 공연공간, 참여정보, 관련 공연/행사, 관련 작품, 공연자료, 언론/보도, 사건, 주제/소재

설명

병신출의 대가 '공옥진'에 주목하는 연극.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전통을 현재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극.

참여 인물/단체

공연자료

작품

주제/소재

보도/연구

관련 공연/행사

공간

사건

원작

그림피그

연출

윤한슬

드라마터그

김민술

출연

박하늘(2)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태프

조명 최보윤

조명 어시스턴트 김소현(1)

조명 크루 STAGWORKS

조명 크루 윤진선

조명 크루 임학균

조명 크루 최연수

조명 크루 홍주희

조명 크루 황인택

조명 오퍼레이터 이승훈(3)

음악 장영규

음악 오퍼레이터 구자운

영상 윤민철

영상 어시스턴트 임유정(2)

분장 장경숙

분장 어시스턴트 남혜연

의상 김경희(3)

의상 어시스턴트 최세경

조연출 강대영

무대감독 박현지

홍보사진 조현우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참여 인물/단체-

기획 및 준비

- 대본 구성안.pdf
- 배우별 재담 텍스트 취합본.hwp

창작 과정

연습자료

- 01. 20180625~0627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2. 20180625~0702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3. 20180625~0705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4. 20180625~0714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5. 20180625~0818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6. 20180625~0822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7. 20180625~0828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8. 20180625~0831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09. 20180625~0903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10. 20180625~0906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11. 20180625~0910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12. 20180625~0914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 13. 20180625~0918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연습일지.docx

연습사진



무대자료

- 공연기술서.xlsx
- 테크니컬 라이더.pdf
- 테크니컬 라이더.docx
- 셋업플랜.pdf

홍보자료

- 포스터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공연자료-

설명

병신춤의 대가 '공육진'에 주목하는 연극.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전통을 현재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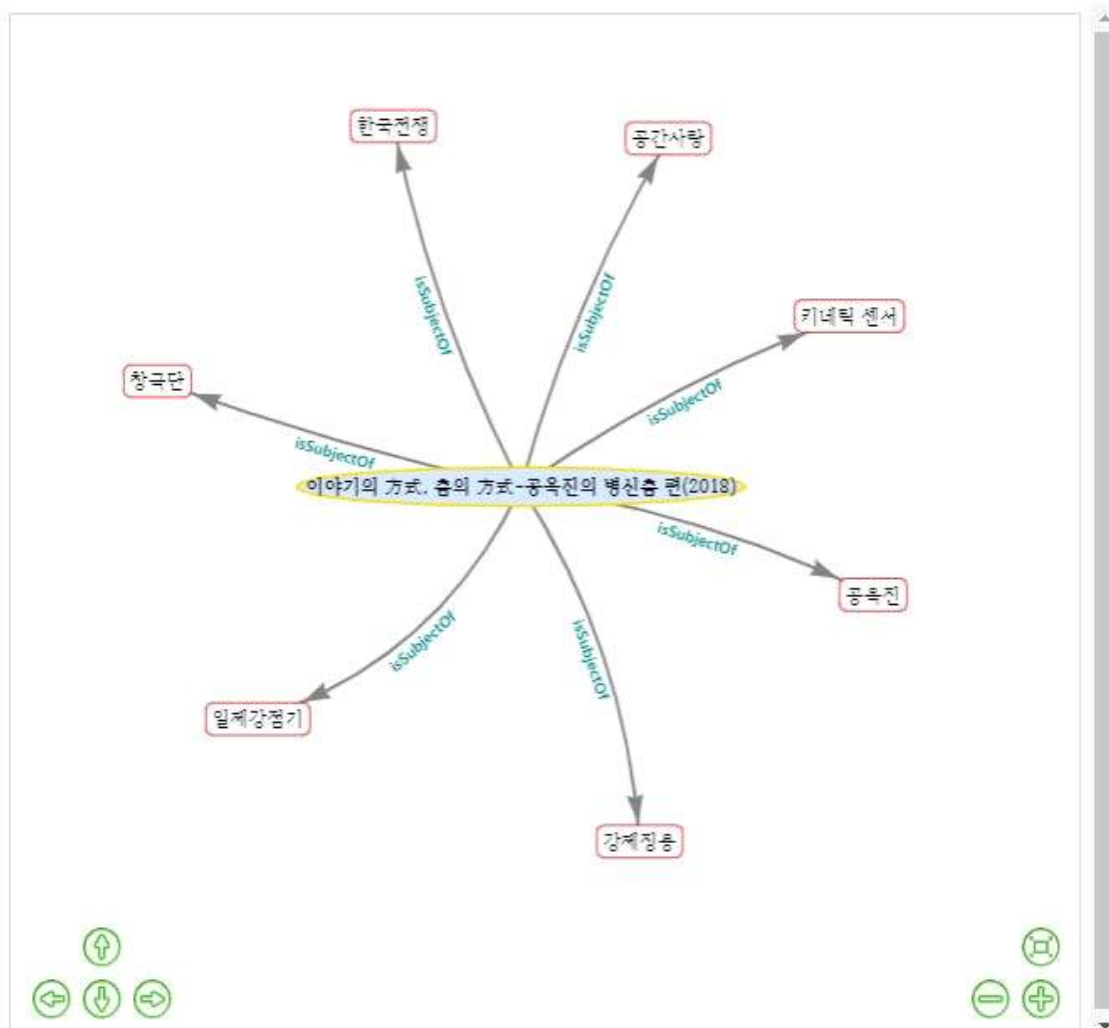
참여 인물/단체 공연자료 작품 주제/소재 보도/연구 관련 공연/행사 공간 사건

작품명	개요
병신춤	임진왜란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부터 추기 시작한 춤

[이 문서를 점검한 것으로 표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작품-

참여 인물/단체 공연자료 작품 주제/소재 보도/연구 관련 공연/행사 공간 사건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주제/소재-

- 주제/소재의 경우 시맨틱데이터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함. 주제/소재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감

[참여 인물/단체](#)
[공연자료](#)
[작품](#)
[주제/소재](#)
[보도/연구](#)
[관련 공연/행사](#)
[공간](#)
[사건](#)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공옥진의 병신출 편/ 관객과의 대화\(2018\)](#)

[이 문서를 점검한 것으로 표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관련 공연/행사-

[참여 인물/단체](#)
[공연자료](#)
[작품](#)
[주제/소재](#)
[보도/연구](#)
[관련 공연/행사](#)
[공간](#)
[사건](#)

- [남산예술센터 극장](#)

[이 문서를 점검한 것으로 표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공간-

[참여 인물/단체](#)
[공연자료](#)
[작품](#)
[주제/소재](#)
[보도/연구](#)
[관련 공연/행사](#)
[공간](#)
[사건](#)

- [창작과정 및 공연 도중의 사건](#)

[이 문서를 점검한 것으로 표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연/행사: 사건-

2) 인물/단체¹¹⁾

- 기본정보 : 사진, 사진출처, 인물/단체명, 한자표기, 영문표기, 외국어표기, 생년, 몰년, 성별, 국가정보
- 상세정보 : 수상내역, 소속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작품, 관련자료, 사건

윤한솔

수상내역

2013 <아름다운 동행> 제34회 서울연극제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
2012 <두뇌수술> 제5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2011 제2회 두산 '연강예술상'

소속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교수
극단 그린피그 대표





인물/단체명	윤한솔
생년	1972
성별	남
국가정보	한국

공연/활동

공연/행사명	역할	시작일	종료일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펀치를 꽂았는가?(2010)	연출	2010-11-26	2010-12-05
2012 남산연극포럼 동시대성, 동시대적 텍스트, 동시대적 연극(2012)	토론	2012-02-29	2012-02-29
사이코패스(2012)	협력연출	2012-09-22	2012-10-07
치정(2015)	연출	2015-11-19	2015-12-06
치정/관객과의 대화-1(2015)	참여	2015-11-28	2015-11-28
치정/관객과의 대화-2(2015)	참여	2015-12-05	2015-12-05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2016)/관객과의 대화	사회	2016-02-19	2016-02-19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2016)	연출	2016-02-19	2016-02-19
나는야 연기왕(2016)	연출	2016-10-26	2016-11-06
나는야 연기왕/대담(2016)	대담	2016-11-05	2016-11-05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육진의 병신춤 편(2018)	연출	2018-10-04	2018-10-14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육진의 병신춤 편(2018)/관객과의 대화	대담	2018-10-06	2018-10-06

관련자료

- 공연뉴스, 플레이DB, 해화동1번지 5기동인 가을페스티벌 '—인극' , 온라인, 이지혜, 2012-11-13
- 공연뉴스, 뉴스테이지, 국립극장 페스티벌 우수연극 선정작 연극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 , 온라인, 강태영, 2010-08-25

[이 문서를 편집한 것으로 표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인물/단체-

11) 인물/단체 샘플 (<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9C%A4%ED%95%9C%EC%86%94>, 2020.05.28.)

3) 작품¹²⁾

- 기본정보 : 사진, 사진출처, 제목, 다른제목, 한자표기, 영문표기, 창작자, 창작시기, 발표일, 국가, 언어, 초연/전시 날짜, 초연/전시 장소, 초연/전시 주최
- 상세정보 : 개요, 설명
- 관계정보 : 공연/행사, 관련자료, 보도/연구

병신춤

개요

사람의 신체 부자유로 인한 움직임의 특징을 흉내 내는 춤^[1]

공연/행사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인물/단체

- 공옥진

더 많은 정보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병신춤
- 병신춤 영상

출처

1. ↑ 병신춤, 『한국민속대백과사전』online



제목	병신춤
다른제목	금사춤
창작시기	임진왜란 이후
국가	한국
언어	한국어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작품-

4) 공연자료¹³⁾

- 기본정보 : 자료명, 유형, 크기, 생산일, 소장처

12) 병신춤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B3%91%EC%8B%A0%EC%B6%A4>, 2020.05.28.)

13) 대본구성안/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8C%80%EB%B3%B8_%EA%B5%AC%EC%84%B1%EC%95%88/%EC%9D%B4%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4%EC%9D%98_%E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_%EB%B3%91%EC%8B%A0%EC%B6%A4_%ED%8E%B8\(2018\)](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8C%80%EB%B3%B8_%EA%B5%AC%EC%84%B1%EC%95%88/%EC%9D%B4%EC%95%BC%EA%B8%B0%EC%9D%98_%E6%96%B9%E5%BC%8F,%_EC%B6%A4%EC%9D%98_%E6%96%B9%E5%BC%8F-%EA%B3%B5%EC%98%A5%EC%A7%84%EC%9D%98_%EB%B3%91%EC%8B%A0%EC%B6%A4_%ED%8E%B8(2018)), 2020.05.28.)

- 상세정보 : 저작권 정보, 자료 웹주소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사건

대본 구성안/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 유형 : 대본구성안
- 생산일 : 2018.09

장: 하하. 시장에 갔다옵니다. 시장에
 김: 아니 시장에 갔다오면 갔다왔지 그래 배추에다가 왜 모자를 씌워가지고
 땡기슈 그래?
 장: 어어어~ 우리 이 또 사정을 모르시는구만
 김: 무슨 사정인데요?
 장: 아침에요, (예!) 우리 부인이 일어나시더니, (어!) “여보(어!) 당신 시장에
 갔다가 저~배추한통 사오세요” 그래.
 김: 그런데
 장: 얼만한거 사올래 했더니 “당신 머리통 만한거 사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내 모자.....
 김: 알만합니다~ 알만해요
 장: 내 머리통만한거.....
 김: 네 알만해요.
 장: 근데 당신은 어디 갔다오슈?
 김: 나요? 어디가느냐구? 가만계슈.

 김: 애 춘자야!
 (고: 네~)
 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고: 아빠 왜 그래?)
 김: 내 딸입니다.
 장: 잘 생겼다.
 김: 내가 말아쥌. 우리 집사람이 어린애 낳을 때마다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그랬는데, 나면 딸이고 나면 딸이야. 딸이 일곱입니다.
 내가.
 (고: 예이.....일곱이면 뭘해? 내가 제일 이쁜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자료1-

저작권 정보

- 저작권자: 극단 극린피그
- 대본에 사용된 일부 장면의 경우 공동구성

저작권자

- 윤한솔

자료 웹주소

공연/행사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관객과의 대화(2018)

관련 인물/단체

- 윤한솔 <----사진의 경우 식별 인물

작품

- 병신춤 <----작품과 관련한 자료인 경우

사건

- 관련 사건 <----자료와 관련 있는 사건

[이 문서를 점검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자료2-

5) 사건¹⁴⁾

- 기본정보 : 사건명, 시작일, 종료일
- 상세정보 : 개요, 설명, 참고정보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인물/단체

14) 사건 데이터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C%B0%BD%EC%9E%91%EA%B3%BC%EC%A0%95_%EB%B0%8F_%EA%B3%B5%EC%97%B0_%EB%8F%84%EC%A4%91%EC%9D%98_%EC%82%AC%EA%B1%B4, 2020.05.28.)

창작과정 및 공연 도중의 사건

개요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육진의 병신출 편(2018)의 공연 도중 관객 할의

설명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육진의 병신출 편(2018)의 공연의 장면에 등장한 장애인 모사를 놓고 관객들의 함의와 퇴장이 발생함

참고정보

- 절대 쓰자 말아야 할 장애인 비하 용어 ⑤, 『HUFFPOST』online,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연/행사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육진의 병신출 편(2018)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사건-

6) 공간¹⁵⁾

- 기본정보 : 사진, 사진출처, 공간명, 다른이름, 영문표기, 한자표기, 외국어표기, 개관일, 폐관일, 면적, 객석규모, 면적, 객석규모, 주소, gis
- 상세정보 : 개요, 설명, 참고정보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인물/단체


15) 공간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B%82%A8%EC%82%B0%EC%98%88%EC%88%A0%EC%84%BC%ED%84%B0_%EA%B7%B9%EC%9E%A5, 2020.05.28.)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간이력

- 1962년 국내 최초 현대식 민간극장 드라마센터로 개관
- 1962년 4월 12일 개관공연 <햄릿>
- 이후, <밤으로의 긴 여로>, <포기와 베스>, <한강은 흐른다>, <세일즈맨의 죽음>, <로미오와 줄리엣> 등 6개 작품을 공연
- 1963년 재정난으로 극장 운영 1년여 만에 막을 내림
- 1964년 서울연극학교 설립
- 1974년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발전
- 2009년 9월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재개관

참고정보

- 드라마센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연/행사

남산예술센터 극장



남산예술센터 

공간명	남산예술센터 극장
영문표기	NAMSAN ARTS CENTER
개관일	1962년 개관 / 2009년 9월 재개관
면적	1962년 개관 당시 약 200평
객석규모	1962년 개관 당시 객석 473석 / 현재 객석 356석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자)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웹사이트	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간1-

공연/행사



No	연도	구분	작품명	장르	장소	시작일 (YYYY-MM-DD)	종료일 (YYYY-MM-DD)
1	2009	시즌 프로그램	오늘, 손님 오신다(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2009-09-11	2009-09-20
2	2009	시즌 프로그램	바다거북의 꿈(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2009-09-26	2009-10-04
3	2009	페스티벌	로미오와 폴리어(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40092	2009-10-16
4	2009	페스티벌	The blue(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2009-10-07	2009-10-08
5	2009	페스티벌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II(2009)	무용	남산예술센터	2009-10-13	2009-10-13
6	2009	페스티벌	허기진 후식(2009)	신체극	남산예술센터	2009-10-14	2009-10-14
7	2009	제 16회 벼세로 연극제	선비와 망나니(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2009-10-19	2009-10-20
8	2009	시즌 프로그램	길상몽면(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2009-10-27	2009-10-31
9	2009	시즌 프로그램	정말 별 일 없었는지(2009)	콘서트	남산예술센터	2009-11-24	2009-11-29
10	2009	시즌 프로그램	운현궁 오라버니(2009)	연극	남산예술센터	2009-12-04	2009-12-13
11	2010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שלגזאתן(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1-08	2010-01-17
12	2010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호야 好夜(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1-23	2010-01-31
13	2010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맥베드(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2-05	2010-02-21
14	2010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도시녀의 칠거지악(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2-26	2010-03-07
15	2010	FESTIVAL BO:M	루츠 포리스트(2010)	무용	남산예술센터	2010-04-08	2010-04-09
16	2010	신진연출가 기획전	당신의 잠(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4-23	2010-05-02
17	2010	신진연출가 기획전	우릴 봤을까?(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5-07	2010-05-16
18	2010	시즌 프로그램	1등 28번지, 자숙이네(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6-18	2010-06-27
19	2010	시즌 프로그램	서울, 나마스태(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7-03	2010-07-11
21	2010	페스티벌	죽음에 이르는 병(2010)	다원	남산예술센터	2010-09-11	2010-09-12
23	2010	페스티벌	The Wall(2010)	다원	남산예술센터	2010-09-16	2010-09-18
25	2010	페스티벌	할나가부르는시간(2010)	다원	남산예술센터	2010-09-23	2010-09-25
26	2010	시즌 프로그램	베를린 사우튀네 랍릿(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09-29	2010-10-01
27	2010	시즌 프로그램	내 심장을 쫓라(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10-07	2010-10-24
28	2010	201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고골의 꿈(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11-01	2010-11-03
29	2010	공동연작프로젝트	세자매 산장(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11-08	2010-11-11
30	2010	공동연작프로젝트	너의 왼손(2010)	연극	남산예술센터	2010-11-13	2010-11-16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공간2-

7) 보도/연구

○ 기본정보 : 유형, 발행매체, 발간호, 발행일, 쪽수, 웹주소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작품, 인물/단체

연극평론 겨울호/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로움이 인물들의 불안감과 어울렸어요. 하나하나 춤추고 밀도 있게 존재한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최영주 강당위에 예전에는 고전을 통해 양식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 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싶었어요. 사회적 사사를 연극 무대로 가져 와서 자기만의 단극적인 형식으로 구축하고 탐색하고 있는 과정을 봤어요. 다음의 시도가 궁금해요.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최영주 공옥진에 대한 인상이 있잖아요. 병신춤 추는 공옥진에 대한 기억이 그로테스크하게 있어요. 이 극단이 왜 공옥진의 병신춤을 소재로 삼았을까 궁금해요. 병신춤을 춘다는 것 자체를 계승의 의미로 다뤘던 방식에서 포착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거칠고 면밀하지 않았지만, 전통을 현재화한다는 지점을 거기에서 치밀 미학적 측면에서 포착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방향을 찍었죠. 반면에 텍스트 구성이 조금 더 정제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 많은 집에서 태어난 공옥진이 일본으로 팔려가고, 소리와 병신춤을 배웠다는 것이 하나의 저항이고 자기발명self-fashioning으로 이해된다면, 여성, 장애, 역사와 현재되어 의미가 풍부해질 수 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며 끝나서 아쉬웠어요.

김숙현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통의 현재화에 관한 문제. 둘째, 공옥진과 그의 춤을 다뤘던 방식의 식으로 포착하는 문제. 셋째, 병신춤이 카네틱 댄스와 같은 기법에 포착해서 재현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 그런데 융합상 위상은 세 번째. 그런 형식, 방식에 관해

말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최영주 네, 아이디어가 반짝였어요. 병신춤을 찍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인물도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김숙현 저는 그 지점이 아이디어로 출발해 아이디어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주 만약 이 작품에 무언가를 더 넣으면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래모았던 지점은 장애에 대한 대상화였는데,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김숙현 장애문제를 피하는 방식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존재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흔히 재현한 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 그리고 춤 역시, 전통춤, 혹은 공옥진의 춤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80년대 초반 실제로 공옥진의 춤을 봤거든요. 공옥진은 춤을 추면서 자신의 춤을 하나씩 다 설명해줘요. 자신이 왜 이 춤을 추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당시에도 그 춤을 추며 장애인비하라는 면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래된 기억이라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당시 그가 말한 바로는 자신의 동생이 장애인이었다고 죽었다고 했어요. 기억의 옮기기기도 한 것이지요. 그들 몸짓으로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최영주 미니멀하게 구축하며 개념화시켰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대상화를 차단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열에서 불린한 동물을 해도 뛰어가서 함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이 신기했어요. 장상인이 하는 장애인 흉내를 그런 공공연한 공간에서 한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설치적인 거죠. 그 정도의 의미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담담하게 형식화시켰다는 점이 필요했습니다.

김유미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장애를 대상화하는 것을 피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관련 공연/행사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관객과의 대화(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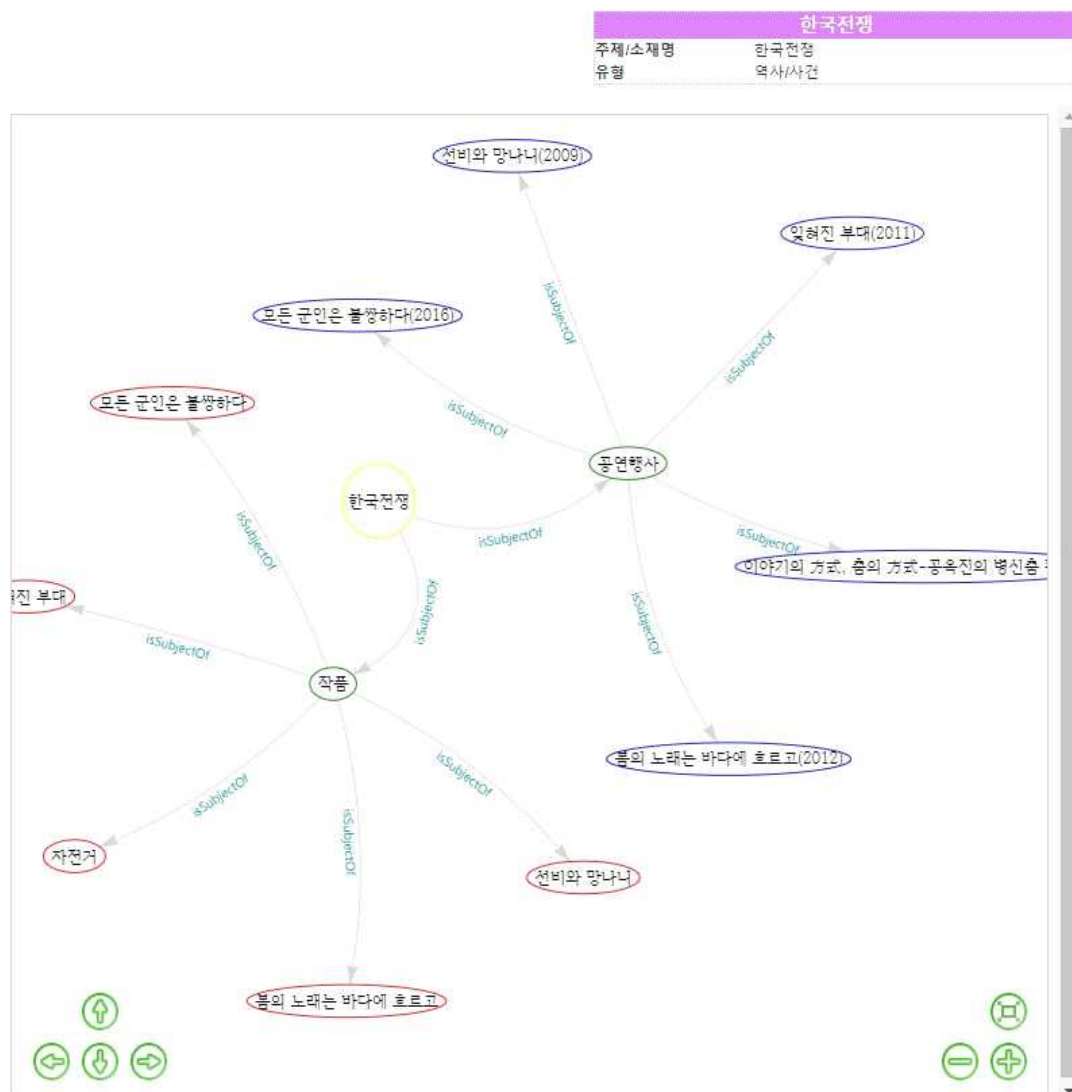
[이 문서를 점검한 것으로 표시]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 보도/연구-

8) 주제/소재¹⁶⁾

- 기본정보 : 주제/소재명, 유형
- 상세정보 : 설명, 웹정보
- 관계정보 : 공연/행사, 작품


한국전쟁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1-

16) 주제/소재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D%95%9C%EA%B5%AD%EC%A0%84%EC%9F%81>, 2020.05.28.)

웹정보

- 한국전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연/행사

공연/행사명 ◆	시작일 ◆	종료일 ◆
선비와 망나니(2009)	2009-10-19	2009-10-20
잊혀진 부대(2011)	2011-08-15	2011-08-22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2012)	2012-06-12	2012-07-01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2016)	2016-03-10	2016-03-27
이야기의_方式_춤의_方式-공옥진의_병신춤_편(2018)	2018-10-04	2018-10-14

작품

작품명 ◆
선비와 망나니
잊혀진 부대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
자전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2-

시즌 프로그램

설명

시즌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주요 공연들로서 남산예술센터의 비전과 색깔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성을 갖춘 창작 연극을 지향하는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을 담고 있기에 창작 초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 신작 초청공연이나 다른 장르와의 협업 공연들도 매 해 한 두 편 정도 시즌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해외 초청이나 대관 공연보다는 창작극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남산예술센터의 특성 상 시즌 프로그램은 크게 제작 방식에 따라 자체제작 공연과 공동제작 공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관 초반에 진행되었다가 사라진 페스티벌 장 또한 별도의 트랙으로 언급할 수 있다. [1]

공연/행사

공연/행사명	시작일	종료일
오늘, 손님 오신다(2009)	2009-09-11	2009-09-20
바다거북의 꿈(2009)	2009-09-26	2009-10-04
갈삼봉면(2009)	2009-10-27	2009-10-31
정말 별 일 없었는지(2009)	2009-11-24	2009-11-29
운현궁 오라버니(2009)	2009-12-04	2009-12-13
1등 28번지, 차숙이네(2010)	2010-06-18	2010-06-27
서울, 나마스테(2010)	2010-07-03	2010-07-11
베를린 샤우부네 램프(2010)	2010-09-29	2010-10-01
내 심장을 찌라(2010)	2010-10-07	2010-10-24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펀치를 꽂았는가?(2010)	2010-11-26	2010-12-05
살(2011)	2011-04-01	2011-04-17
푸르른 날에(2011)	2011-05-10	2011-05-29
1등 28번지, 차숙이네(2011)	2011-06-04	2011-06-19
도화만발(2011)	2011-09-06	2011-09-25
꿈속의 꿈(2011)	2011-10-08	2011-10-23
충찬 노숙(2012)	2012-01-18	2012-02-12
878미터의 봄(2012)	2012-03-20	2012-04-08
푸르른 날에(2012)	2012-04-21	2012-05-20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2012)	2012-06-12	2012-07-01
전명출 평전(2012)	2012-07-10	2012-07-29
사이코패스(2012)	2012-09-22	2012-10-07
헛웃6:삼양동 국화 앞에서(2012)	2012-11-06	2012-11-25
사라지다(2012)	2012-12-29	2013-01-20
독살미녀 윤정빈(2013)	2013-03-12	2013-03-31
농담(2013)	2013-04-09	2013-0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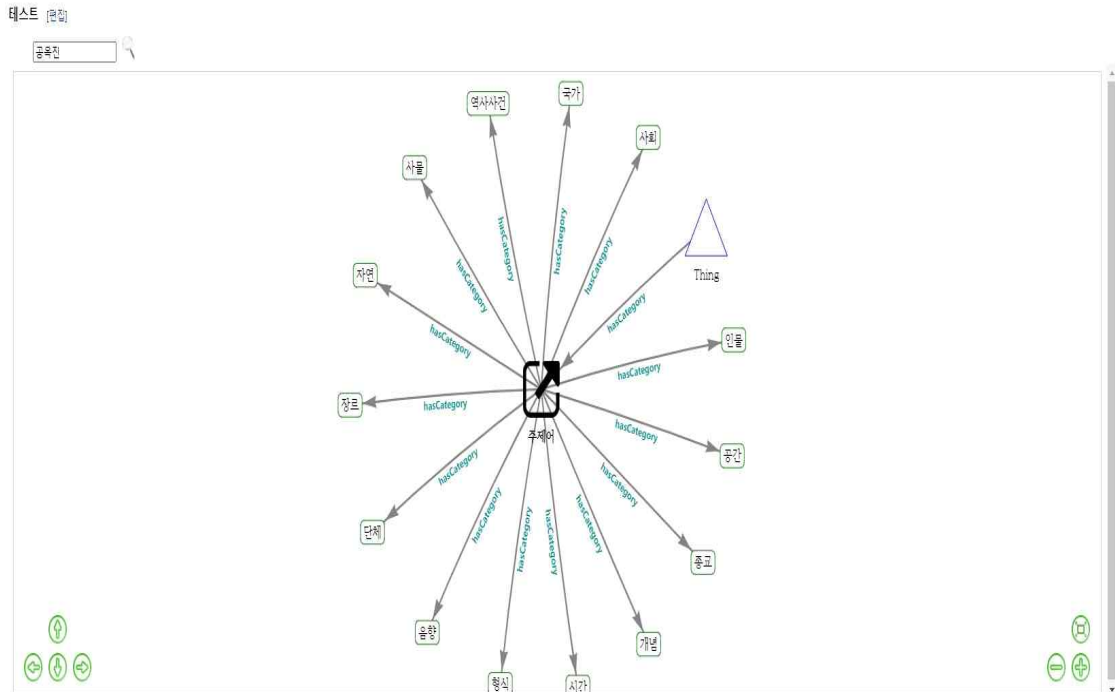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주제/소재3-

-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과 같은 제작 형식은 본 연구의 남산예술센터 공연사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즌 프로그램’에 관한 글을 활용하여 개념 용어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9) 시맨틱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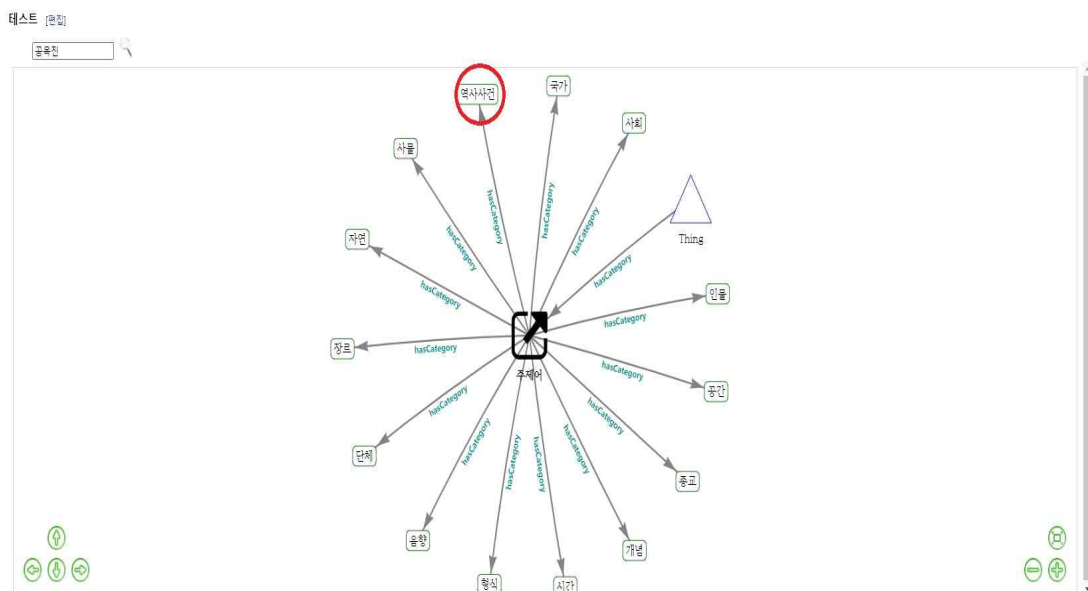
- 2014년 공연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시맨틱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함¹⁷⁾

17) 본 연구는 주제/소재 데이터 구축의 시간과 인원을 파악하고자 주제어 워크숍을 실행하였음. 2020년 4월 10일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해당 연구의 담당자인 남산예술센터 김시내 피디가 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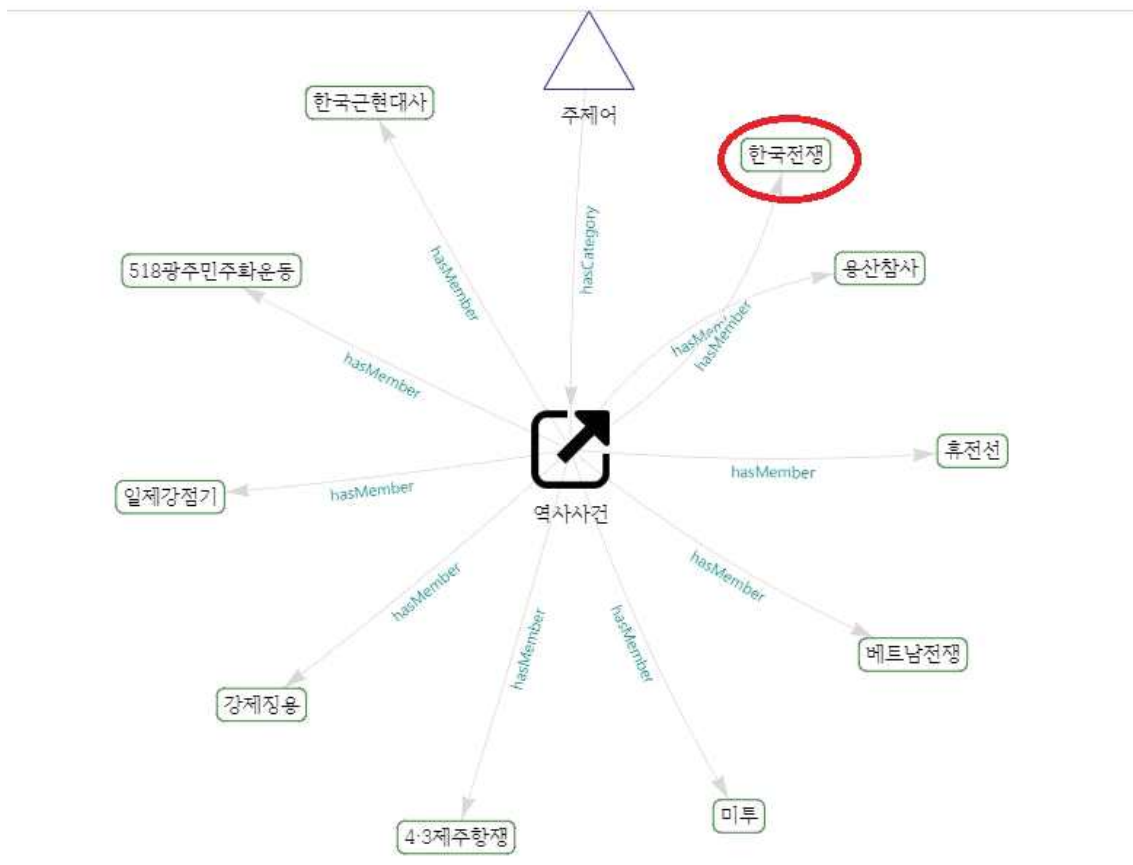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온톨로지 기반의 ‘도메인 + 릴레이션 + 도메인’의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들이 축적된 것임. 위의 그림에서처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될 수 있음.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의미 관계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음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역사사건’-

여하여 2014년 공연/행사의 주제어를 정리함. 총 20개의 공연/행사에 142개의 주제/소재어를 정리함.

- 위의 그림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에서 ‘역사사건’을 클릭하면, ‘역사사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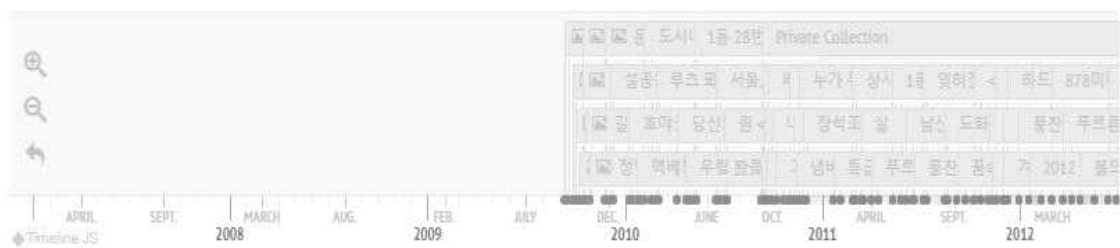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역사사건’->‘한국전쟁’

1) 콘텐츠 개발 예시 : 타임라인¹⁸⁾

-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타임라인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개발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타임라인을 제작할 수 있음. 공연/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산예술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을 포함하여 일종의 연대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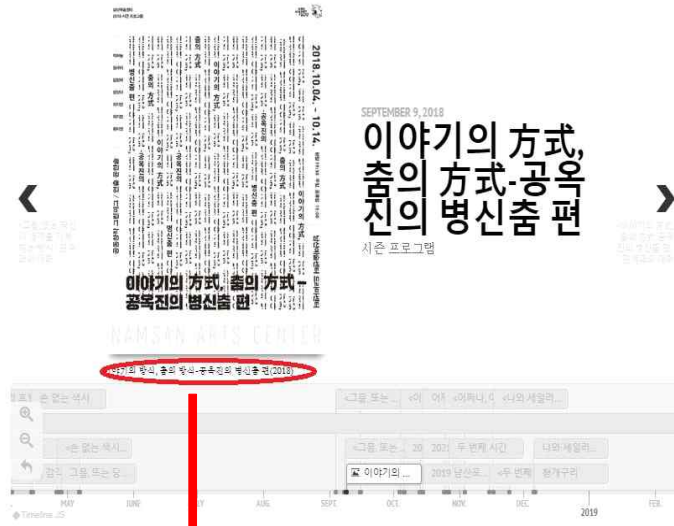
타임라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1-

18) 타임라인 샘플(<http://dh.aks.ac.kr/~theater/wiki/index.php/%ED%83%80%EC%9E%84%EB%9D%BC%EC%9D%B8>, 2020.05.28.)

타임라인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2-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공연 정보

추진경과

날짜	내용
2017년 12월 3일	2018 시즌 공동제작 공모 선정
2018년 1월 17일	시즌 프로그램 기자간담회 개최
4~6월	프리-프로덕션 - 공옥진 병신춤 관련 자료 리서치 및 전문가 프리-프로덕션 자문
6월	출연진 및 제작 스태프 캐스팅
7월 3일~8월 10일	병신춤 활용한 한국춤작품 워크숍 진행 (4주간)
6월 25일	공연 연습 시작
8월	홍보를 제작, 홍보마케팅 방향 논의
8월 21일~9월 14일	한국무용 기본기 워크숍 진행 (4주간)
8월 22일	조기예매 티켓 오픈, 홍보영상 진행
8월 9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9월 3일	2018 서울아트마켓 팸스링크(PAMS Link) 선정
9월 7일	일반예매 티켓 오픈, 티저 홍보영상 공개
9월 18일	기술스텝회의 진행
9월 19일	공연 보도자료 배포
9월 25일~26일	극장 무대연습
9월 27일~10월 3일	무대셋업 및 리허설 진행
10월 4일~14일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공연 / 남산예술센터
10월 6일	관객과의 대화 진행
10월 7일~12일	팸스링크(PAMS Link) 진행 - 참여 엘리키이트 초청 및 확대
10월 19일~20일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투어 / 베세토페스티벌
12월 27일	<평가회의,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평가회의 진행
12월 28일	공동제작사 공연수입금 분배 완료

설명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에 주목하는 연극.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전통을 현재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극.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샘플 -타임라인 예시3-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2018)

2018.10.04 - 10.14

남산예술센터

공연/행사명

시작일

종료일

유형

장르

공연회차

소요시간

관람연령

총관객수

티켓가격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2018)

2018.10.04

2018.10.14

시즌 프로그램

창작극

10회

75분

만 13세 (중학상) 이상 관람가

1,228명

일반 30,000원 / 청소년 18,000원

- 타임라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행사 페이지와 하이퍼링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로드맵

가. 단계별 추진 과제

단계별 과제	기간	내용
방향성 연구	2020.03 - 2020.05	남산예술센터 공연사연구 및 데이터 모델 설계, 로드맵제안, 샘플 아카이브구축
공연자료 분류/데이터 구축	2020.06 - 2020.08	-공연자료 분류 및 아카이브 등록 자료 선별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공간, 주제/소재, 사건, 언론/연구, 공연자료에 데이터 수집 및 메타데이터 구축
시스템 기획 및 요구사항 분석		
시맨틱데이터베이스 구축	2020.09 - 2020.10	-온톨로지 설계 마무리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2020.09 - 2020.10	-타임라인 -파노라마 뷰 -공연사 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검수	2020.10 - 2020.11	데이터 검수
시스템 테스트		
마무리 및 오픈	2020.12	시스템 구축 마무리 및 오픈

□ 공연자료 정리 및 선별

- 현재 남산예술센터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공연자료를 분류체계에 따라 재정리한 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료들을 선별.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렛, 홍보영상, 공연 사진 일부 등으로 예상됨. 선별된 자료들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함

□ 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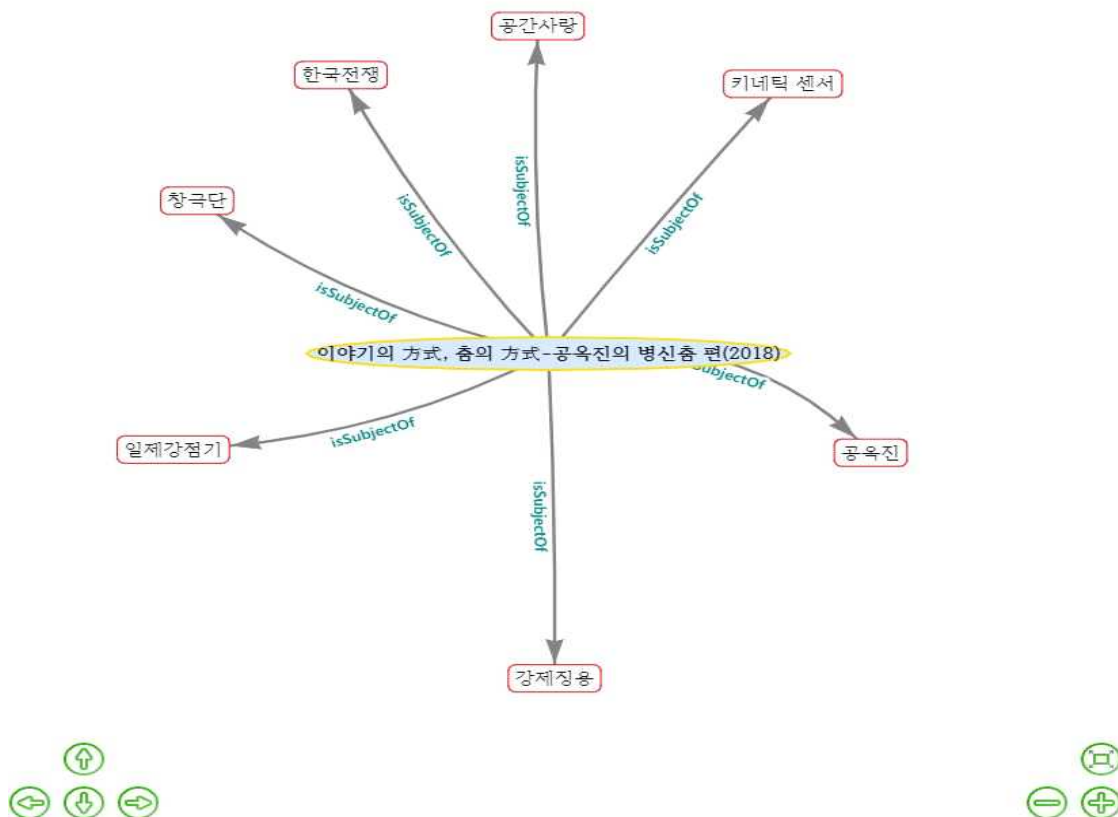
-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공간, 사건, 보도/연구, 주제/소재 클래스에 포함되는 개별 데이터에 고유번호(ID)를 부여하고,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함.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필수정보, 기본정보, 관계정보의 세 가지 형식임¹⁹⁾
- 공연/행사, 인물/단체, 사건, 보도/연구, 주제/소재의 경우 외부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온톨로지 설계

-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공간, 사건, 보도/연구, 주제/소재, 공연자료 클래스와 각 클래스별 관계를 설계함. 해당 작업은 데이터 구축과 동시에 이루어짐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네트워크 그래프 생산

- 설계된 온톨로지에 따라 시맨틱 데이터를 생산함. 시맨틱 데이터는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됨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시맨틱 네트워크 예시

19)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초안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될 예정

□ 콘텐츠 개발

- 남산예술센터 공간의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제작.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미지를 구축 제공함
- 공연/행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산예술센터 타임라인을 제작할 수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디자인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경우 아카이브 구축 연구진과 내부 관계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 개발하는 것을 추천함
- 위키 재단의 오픈 소스인 미디어 위키의 경우 생산과 관리에 용이함. 또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음²⁰⁾

□ 필요 인력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사업진행과 데이터 구축 총괄할 책임연구원 1명, 시스템 구축 전문 개발 인원 3명, 데이터 구축 연구원 5명, 공연자료 분류 및 데이터 구축 연구원 4명이 필요함

20) 미디어 위키 기반의 아카이브 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한국의 기록유산’을 참고할 것. 한국의 기록유산, 권을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A%B6%8C%EC%9C%A8>, 2020.05.17.)

표 27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필요 인력

구분	역할	조건
책임연구원	사업진도관리 산출물 관리 DB구축 총괄 -데이터모델, 온톨로지, 메타데이터 설계 -시맨틱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검수	한국 연극에 대한 이해와 시맨틱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경험을 갖춘 인력
시스템 개발	분석 및 설계 -시스템요구사항분석 -아키텍처,기능,데이터구조,레이아웃설계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기능개발 -서비스페이지개발 -클래스별메타데이터구현 장비 도입 및 설치 -아카이브시스템설치및환경설정 검색기능구현 메타데이터등록및원본파일등록 반응형디자인 콘텐츠개발 -타임라인 및 공간 정보 시각화 등	시스템 개발 경험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을 갖춘 인력
데이터 구축	사건 및 주제/소재 회의 진행 및 데이터 정리 작품데이터수집및메타데이터구축 자문회의진행 콘텐츠기획 데이터검수 인물/단체, 사건, 주제/소재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인물/단체, 보도/연구, 공간 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검수	한국 연극 연구 경험이나 창작, 제작에 경험이 있는 인력

나. 소요 예산 및 기간

□ 구축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DB 구축	인 물 / 단 체 메 타 데 이 터 구축				데이터 클리닝 시맨틱데이 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검수	마무리 작업 및 오픈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주제/소재 데이터 수집						
			주제/소재메타데이터 구축				
	사건 데이터 수집						
	작 품 리 스 트 업	작품 메타데이터 구축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사건 메타데이터 구축				
			보도/연구 메타데이터 구축				
			공간 메타데이터 구축				
시스 템 구 축	분석/설계 시스템설치 서비스페이지디자인 웹호스팅 온톨로지설계 검색기능구현 메타데이터업로드 원본자료업로드						
컨 텐 트 개 발	파노라마 촬영				타임라인 공간정보시각화등		

□ 소요 예산

구분		규격	단가	인원	기간	참여율	금액
사업관리 및 DB구축 총괄	<div>사업진도관리 산출물 관리 DB구축 총괄</div> <div>-데이터모델, 온톨로지, 메타데이터 설계</div> <div>-시맨틱데이터베이스구축</div> <div>-데이터검수</div>	책임연 구원	₩6,459,460	1	6	70%	₩27,129,732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div>분석 및 설계</div> <div>-시스템요구사항분석</div> <div>-아키텍처,기능,데이터구조,레이아웃설계</div> <div>아카이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div> <div>-기능개발</div> <div>-서비스페이지개발</div> <div>-클래스별메타데이터구현</div> <div>장비 도입 및 설치</div> <div>-아카이브시스템설치및환경설정</div> <div>검색기능구현</div> <div>메타데이터등록및원본파일등록</div> <div>반응형디자인</div> <div>콘텐츠개발</div> <div>-타임라인 및 공간 정보 시각화 등</div>	시스템 S/W개발자	₩5,182,563	3	6	75%	₩69,964,600
데 이 터 구축	사건 및 주제/소재 회의 진행 및 데이터 정리 작품데이터수집및메타데이터 구축	연구원	₩4,953,048	1	3	50%	₩7,429,572
	자문회의진행 컨텐츠기획 데이터검수						
	인물/단체, 사건, 주제/소재 메타데이터 구축		₩4,953,048	2	4	25%	₩9,906,096
	인물/단체, 보도/연구, 공간 데이터 구축	연구보 조원	₩3,310,932	2	4	31%	₩8,211,111
	공연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3,310,932	4	3	31%	₩12,316,667
시맨틱데이터 생산 및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3,310,932		1	1	50%	₩1,655,466	
합계							₩136,613,244

다. 운영 방안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관리와 연극 정보 및 자료 업데이트에 있음. 기축적인 데이터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발굴하여, 이를 아카이브 사용자 및 한국 연극에 관심이 있는 일반에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운영이 요구됨

□ 필수 역량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과 축적된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에게 남산예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대 한국 연극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 남산예술센터 실물 및 디지털 자원과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생산할 수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업무 영역

업무 영역	내용
데이터 관리 및 구축 기획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된 데이터의 관리 및 추가적으로 구축 가능한 영역의 데이터 기획
시스템 고도화 기획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페이지의 보완 내용 확인 후 시스템 고도화 기획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 및 진행
자료 관리 및 디지털화	추가적으로 수집해야하는 자료의 디지털화 및 관리 및 저작권 문제 해결

-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학회 개최 등이 가능함. 콘텐츠 기획 등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라. 기대효과

□ 창작자

- 2009-2020년까지의 남산예술센터 공연은 동시대 공연예술 창작 방식의 현주소임.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공연예술 창작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구자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주제/소재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내 공연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학술적

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의 영역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음

□ 일반 사용자

- 남산예술센터의 역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국내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사용자에게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타임라인, 파노라마뷰,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관점의 읽기 방식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국내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활용

-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는 시맨틱 데이터 형태로 축적됨. 이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4차 산업 시대의 공공데이터²¹⁾의 축적과 활용에 있어,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는 LOD(Linked Open Data)²²⁾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음.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함께 4 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IoT(Sensing, CPS, Digital Twin),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IoT(Sensing, CPS, Digital Twin),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데이터의 표준, 연계, 공유를 위해 LOD의 활용사례 및 표준화 내용 공유하고 있음²³⁾

21)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lod.seoul.go.kr/home>, 2020.05.29.)

22) LOD란 '연결된 데이터(Linked Data)'와 '데이터 개방(Open Data)' 개념이 결합된 형태임.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는 웹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로 식별하고,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이며, 팀 버너스리의 W3C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인터넷 상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자 데이터 형식임.

23)서울열린데이터 광장, LODAC2017(<https://data.seoul.go.kr/dataVisual/gallery/galleryView.do?bbsCd=10005&seq=5c33652227a9e33146d69726c27efb2b&ditcCd=LOD>, 2020.05.29.)